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내용문의 02 737 8881 구독문의 02 732 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7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 327 호



금무법구

선악의 과보는 함께 서로 좇아 와서 소리가 산울림을 일으키는 것과 같고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아, 능히 면할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경솔히 악업을 지어 큰 괴로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니건자경-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태고종 또다시 '내분'

지난 3월 28일 순천 선암사 적묵당에서는 만장의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태고종 종회의원들이 혜초스님을 새 총무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한 것이다. 혜초스님은, 3개월여 팽팽하게 맞섰던 두 세력이 마침내 양보와 타협으로 단일후보로 내세운 화합의 상징이었다. 그간 조계종과 함께 한국불교 종단을 이끌어가는 한 축인 태고종의 분규를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던 불교계도 태고종이 파국까지 가지 않고 이러한 화합의 결과를 도출한데 대해 안도하고 '역시 정통종단 답다'고 박수를 쳐주었다. 그런데 채 4개월도 못돼 전 · 현직 총무원장을 주축으로 한 종권싸움이 재연되고 있다.

전 총무원장 인곡, 전 경남종무원장 첨화, 운경, 백우 스님 등이 주축이 된 현 집행부를 반대하는 스님 80여명은 10일 타워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총무원장 혜초스님은 종단의 혼란을 야기시킨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승려대회를 열어 종단이 바로 설때까지 결사정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날 모임을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원회로 전환시켜 기구구성과 임원선임까지 마쳤다.

그러자 총무원 측도 다음날인 11일 "타워호텔에서의 모임을 심각한 해종행위로 간주, 주동자를 색출해 종헌종법에 따라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공제회' '신협' 등 인곡스님 측과 연루된 각종 재정비리에 대한 공청회도 열겠다고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 정치, 언론, 경제, 사회 등 어느 곳 하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심각한 혼란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를 계도하고 중생들을 정토로 이끌어야 할 수행자인 스님들조차 스스로 약속한 화합을 깨고 분열사태를 초래 시끄러움을 더하니 불자들은 민망하기 그지 없다.

한쪽은 '초법적 성격의 승려대회 개최로 현 집행부를 붕신임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그렇다면 '인곡스님과 관련된 각종 사건을 들춰내 맞불을 놓겠다'고 한다. 이렇게 간다면 태고종은 결국 '이전투구(泥田鬪狗)' 식 싸움으로 불자들과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분종(分宗)의 수순까지 밟을 수 밖에 없을 지도 모른다. 4개월전 종단을 위해 양보로 화합의 손을 맞잡았던 것처럼 다시한번 '나' 보다는 '종단'과 '불교계'를 생각하는 큰 마음을 내주기를 바란다.



이경숙(취재 1부 부장)

장 군 죽 비

◇전국토를 묘지화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도심 속에 '화장장'을 만들 수도 없다. '추모공원' 찬 · 반 양론, 님비인가 행정편의주의인가? (8면)

◇초기 불교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라오스 불교 현장으로 가다. 그곳에서는 주지 스님을 재가신도들이 추천한다는데…. (11면)

◇올 여름 피서는 어디로? 동해로, 서해로, 남해로? 가족과 함께 미술관으로 가서 그림 속으로 '풍덩' 빠져보자. (14면)

◇불교계 말기 환자 간병 모임 '정토마을' 스님과 불자들, 가톨릭 공동체 '음성 꽃동네'가다. 왜? 거기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23면)

"전사법 - 문화재 보호법 개정"

김한길 문화장관 문화재 사범 '발견 시점부터' 공소시효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

문화재사범의 공소시효를 도난시점이 아니라 발견시점부터 기산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수행환경 보존과 관련, 논란을 빚어온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12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우리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에서 "불교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잃어버린 시점부터 시작되는 문화재사범의 공소시효를, 도난문화재의 은닉사실이 발견된 시점부터 시작토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사범단속반도 따로 부서를 독립시켜 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855개 전통사찰 가운데 389곳이 국가 및 시도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통사찰보존법을 고쳐 사찰과 소장 문화재 보존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1987년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지난해 사찰주변의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문화관광부는 이밖에 비지정 불교문화재 도난과 훼손방지를 위해 불교문화재 공동조사비와 사찰 방범시스템 설치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을 비롯해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이무영 경찰청장(인터뷰 3면), 노태섭 문화재청장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과 경찰청은 12일 245명의 문화재 전담경찰과 교구본사 주지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군승단장에 이종인 법사

만장일치 선출… "군불교위 전환작업 가속"



군승단은 9~11일 53사단 자운사 법당에서 72명이 동참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제19대 군승단장에 이종인 법사(3군사, 사진)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로써 군승단은 지난 2월 해체 선언이후 5개월만에 정상 궤도에 진입했으며, 군불교위원회로의 전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인 단장은 "군승단 해체로 실추된 이미지를 하루빨리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11월말로 예정된 잔여 임기동안 군종 법요집 연구 및 수정, 의식집 발간, 군법당의 통일된 행정 시스템 구축, 군승 청규 마련 등의 사업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또 이 단장은 "군승단의 선결 과제인 군불교위원회 전환 문제에 대해 조계종 포교원과 심도 있게 논의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집행부 선출에 이어 이날 총회에 참석한 군법사들은 군포교 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포교원은 군승단과 협의해 8월중으로 군불교위원회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 오는 11월30일 군승의 날을 기해 군불교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社告) 22면

종단폭력 근절 대책소위 구성

10일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정념)는 종단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게 될 '종단폭력 근절 대책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14개 불교단체도 불교계 폭력문화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9월 2일 하안거 해제후 개최할 예정이다. 중앙종회 호법분과위는 10일 해인사 대불관련 폭력에 관한 건을 회의에 상정하고, 종단 기강 확립을 위해 종단차원에서 빠른 시일내 폭력행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할 것을 의결했다. 또 종단 내외의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결의했다. 이날 구성된 종단폭력근절대책 소위원회는 위원장에 지광스님, 위원에 세영 운달 탄우 선광스님을 위촉했다. 김원우 기자

외국인 수행자 대상 종단협, 무료 한글학습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행자를 위한 무료 한글학습이 7월 여름방학기부터 실시된다. 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한국에서 수행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수행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한국어 교육 지정교육기관인 서울대 서강대 원광대 외국어대 연세대에 어학연수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금 120만원이 전액 지원된다. 문의 732-4885. 김원우 기자

양산 내원사 "산문폐쇄 불사"

천성산 살리기 대책 모임

양산 내원사(주지 혜등)는 10일 천성산 습지보존 및 불법 임도 개설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모임을 갖고, 생태계와 수행환경파괴가 계속 된다면 산문폐쇄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본지 318호 1면기사 참조)

또 대책위는 천성산 보호를 위해 임도 차량 차단기 설치, 법적 소송 등 다각적인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날 모임에는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 지율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내원사 임도 담당 변호사 강동규 변호사, 대한산악연맹 최영호 이사, 부산환경운동연합 이성근 생태부장, 이병인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양산 환경연합 박현문 사무국장, 울산 환경연합 오영애 사무차장 등 환경단체와 산악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천성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지율스님과 이성근 생태부장을 공동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은 "양산시의 임도는 내원사 경내지에 허락없이 개설된 것인 만큼 반드시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며 "임도개설로 인한 수행환경 생태계 파괴가 명백한 만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수습기자 찾습니다

7월 20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을 보는 눈,

부처님과 중생을 이어주는 믿음의 가교구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대불교의 내일을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3차
수습기자	약간명	①불교신자 ②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병역을 마친 사람은 1973년 1월 1일이후 병역면제 남자 또는 여자는 197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 접수기간 : 2001년 7월 20일(금)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본사 인터넷신문인 붓다뉴스(http://www.buddhanews.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불교정보센터인 부다피아(http://www.buddhapia.com)에 접속, 안내에 따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 성적 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 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 이 함께 하겠습니다





♣ 단청문양 현수막

서울전지역 설치가능 (※ 설치비 별도), 지방은 우편 발송 태영산업 공장직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희 태영산업은 단청문양 전문 현수막 공장입니다.

농협 계좌번호 : 053-02-124814 예금주 : 이태영



♣ 간판 ♣ 근조깃발 ♣ 사찰이정표 ♣ 전주간판 ♣ 간판



♣ 사찰이정표 ♣ 야외용 촛대꽂이 ♣ 안학 및 부식판



♣ 게시판 ♣ A형 간판

☆ 그 외에 하는 일

리본, 어깨띠, 감사패
목간판, 각종깃발
철구조물등.....

태영산업

주소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42-6번지
TEL : 02-433-9544 FAX:02-433-9543 H.P 019-278-1119
e-mail : ity64@korea.com 이 태 영 합장

※ 태영산업은 자사의 공장에서 직접 제작함으로 높은 품질과 신속한 납품이 보장됩니다

사 설

'폭력근절 소위' 에 거는 기대

조계종에 '종단폭력 근절대책 소위원회' 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한다. 해인사 선방 스님들의 실상사에서의 폭력이 이번 위원회 구성의 직접적 계기가 된 셈이지만 이같은 종단차원의 대책은 진작 나왔어야 했다는 생각이다. 단식기도에 들어간 실상사 대중들의 참회문은 폭력을 '종단의 고질적 병폐, 뿌리깊은 업보, 훈습되고 잠재돼 있는, 그래서 언제든 분출되고야 말 화산' 으로 지적했다. 종단의 폭력문제에 관한 한 이같은 실상사 측 지적은 옳다. 지난 98년 총무원장선거를 둘러싸고 벌였던 폭력사태는 불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과 부끄러움을 안겨 주었으며 세계 속에서의 한국불교 이미지 또한 얼마나 훼손시켰던가.

문제는 폭력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최근만 해도 강원도 모 절에서 차마 있을 수 없는 살인사건이 벌어져 세인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평화를 가르치신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교종단에 분규와 폭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낭패스러운 일이다. 있어서도 안되며 있을 수도 없는 폭력이 곳곳에 암처럼 도사리고 있는 것을 쉬쉬 하고 무조건 덮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종단도 자각한 것이라 여겨진다.

'폭력근절 소위' 의 활동으로 인해 '폭력의 싹' 이 뿌리까지 도려내졌으면 한다. 물리적 폭력은 세속에서도 지탄받으며 추방되어야 할 일로 본다. 어떤 명분으로도 불교종단 안에 폭력이 발붙여서는 안 된다. 물론 어느 집단이든 집단 안 분쟁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다만 그 분쟁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느냐에 그 집단의 격이 정해진다.

종단 내 훈습된 폭력의 역사적 내력을 따지기 보다 승단 전체의 폭력종식 의지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총합된 결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폭력근절 소위' 의 첫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 종교연대 필요성

환경문제는 미국과 같은 생활양식을 지향하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서 발생한 엄청난 자원소비에 대한 업보로 발생한 문제이다. 환경문제의 해법은 결국 물질적인 풍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다. 종교의 본래의 가르침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며 따라서 환경운동은 진정한 종교성의 회복운동이다.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의정부의 천주교서울교구 한마음수련원에서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에서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신부와 목사, 스님과 교무를 비롯 약 120명이 모여서 열띤 대화마당을 가졌다. 이 자리는 위에서 언급한 중대한 의미를 포함하여 종교환경운동이 특별히 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과 임무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 또 종교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조직은 바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조직이다. 따라서 이 종교조직의 공동실천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환경운동과 그 연대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 지리산 댐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리산 주변의 종교조직과 사회단체가 만든 지리산 열린연대나, 영광의 핵발전소를 저지하기 위한 종교간의 연대활동, 새만금간척을 반대하는 불교와 천주교의 연대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세계의 환경운동은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의 원칙에 의거하여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지리산을 지키는 종교연대, 섬진강을 지키는 종교연합, 덕유산, 낙동강, 한강, 태백산을 지키는 종교인 연합등, 지역간의 종교연대가 만들어져서 지역에 기반한 많은 종교 간의 연대활동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종교는 기도와 수행이라는 훌륭한 자기변화와 자기승화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은 더욱더 큰 인류의 자산인 것이다. 더욱이 종교환경운동의 대화와 연대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갈등, 남북간의 갈등 등, 분열과 대립의 시대, 통합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긴밀한 유대로 내실있는 많은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재정 공개·청규 마련 시급

물질만능병폐 치유 종교별 전통 확립도

종교개혁 NGO 네트워크 워크숍서 제기

종교계의 재정공개운동, 소비향락문화 개선운동(고급승용차, 골프, 고급 유흥주점, 호텔 이용 자제)을 위한 워크숍이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개혁을 위한 종교NGO 네트워크' 는 6-7일 이틀간 서울 천주교 답십리 성당에서 '재정 청규 마련을 위한 교단의 역사적 경험과 과제' 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기독시민사회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네트워크 주관단체를 중심으로 각 종교별 10여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재정운영과 관련한 교단의 경험과 과제에 대한 사례 발표에 이어 공동 과제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불교계 발제자로 나선 윤남진 재가연대 기획실장은 "교단의 재정수입이 (출가수행자) 구성원들에게 균등히 배분되지 않고 있고,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교단법규(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가 제정되는 등 전통 재정청규가 붕괴되어가고 있는 상황" 이라며 "불교재정운영 청규는 출가공동체 내부에서 지켜야할 청규와 교단운영 청규, 사회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청규 등 3개 분야로 나눠 과제를 정립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윤 실장은 출가공동체 내부에서 지켜야 할 청규로 △탁발 무소유, 소욕지족의 청빈한 생활태도 △보시물의 평등 분배 △모든 스님들에게 기본 유지비 지급 △사적 재산 취득의 최대한 억제 등을 들었다. 또 교단 운영에서 지켜야 할 청규로는 △자발적인 시주와 건전한 사업 및 활동을 통한 재정 충당 △종교시설의 사적 매매 금지 △출·재가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운영 구조 마련 △전문직 종무원 고용 및 생계보장 △사회적 회향 등을 들었다. 이밖에 대사회 관계에서는 △국법준수 △국고보조시 투명성 청렴성 유지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신교 사례발표자인 안창도 기독연대 평신도협의회장은 "교회재정의 독점, 투명하지 못한 집행과 사유화,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교회 헌금 바로 사용하기 운동' 등 재정개혁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 말했다.

가톨릭계 발제자인 김선실 천정연 교회쇄신위원장은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는 모든 재산은 공동소유하였고, 남는 물건은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고, 또 수도회 등에서도 구걸하는 탁발의 전통이 있었다" 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지출예산의 증대(현행 5, 6%), 호화로운 건물 신축의 자제 등을 실천하는 것이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 참가자들은 물질만능주의의 병폐를 치유할 만한 전통이 각 종교별로 훌륭히 갖추어져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 전통을 지켜나가는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대만평 박 구 원



냉면 식사처럼….

포교사단 생명살리기 체험학습

26~29일 실상사 수련회

조계종 포교사단이 26일부터 29일까지 남원 실상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이른바 자기수행과 사회적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 이전까지 불교계 단체들의 수련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성찰과 대안의 문화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열리는 수련회는 '인드라망세계관과 삶의 철학' '농장공동체 생활과 도농공동체 운동' '우리나라 귀농운동과 불교계의 역할' '자연과 함께 하는 지역학교' '지역불교의 활성화와 생명문화를 위한 포교사의 활동방향' 등 21세기의 시대적 가치인 '생명살림' 에 대한 5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와 함께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먼저 포교사들이 조를 나눠 농장과 노작체험을 하면서 모든 작업이 가지는 기술적인 면과 의미에 대해 학습한다. 또 숲속에서 숲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명상과 함께 숲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오솔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자연과 만나는 '숲과의 만남' 체험시간도 갖는다. 체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작체험 교사와 숲 전문가, 새 전문가가 초빙된다.

포교사단 하영태 사무국장은 "이제는 포교사들도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서 이같이 수련회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며 "우리사회의 모범이 되는 포교사단으로 거듭나겠다" 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청동대불 시주자는 80대 거사"

해인사 뉴욕타임즈 왜곡보도 강력대응

"시주자는 절대 유력 정치인이 아니다. 시주자는 평생동안 불교신행을 돈독히 해온 서울에 사는 80대 거사로 주지 세민스님과 30년 인연이 시주의 동기이다"

해인사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시주자를 밝히고 '뉴욕타임즈' 가 '해인사 대불' 관련 기사에서 '시주자가 유력한 정치인' 이라는 기사는 오보라고 설명했다.

6일자 '뉴욕타임즈' 는 해인사 대불건립계획과 수경스님의 반대기고문, 해인사 선방수좌들의 폭력 등을 자세하게 전하면서 "4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불건립비용의 기부자중에는 유력 정치인이 다음대선에서 이기도록 해달라는 의도를 담고 있을 것" 이라며 이를 포교국장 관암스님도 인정했다고 인용했다.

해인사는 "기사를 작성한 도쿄지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관암스님이 시주자에 대해서 재벌이나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기사가 답변과 정반대로 나왔다" 며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자의적인 내용에 바탕한 만큼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도 뉴욕타임즈기사가 승려를 집단폭력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로 비화하고, 한국 절을 돈을 벌기 위한 주말리조트로 소개하는 등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대해 종단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사과 및 정정보도 요구,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해인사 재무국장 현종, 〈해인〉 편집장 원철스님은 "재가신행단체, 불교건축, 조경, 환경, 생태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불사를 진행 하겠다" 며 "문화재청 및 불사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한뒤 빠른 시일내 조감도를 공개하겠다" 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국고 횡령·주지선출 갈등 송구"

범어사 대중 참회기도

범어사 종무 대책위원회(위원장 중원)는 10일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국고보조금 횡령과 차기 주지 선출 등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겪어온 범어사 사태와 관련 참회기도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회기도에 이어 열린 설명회에서는 부산지역 신행단체장과 범어사 신도들을 대상으로 범어사 문제발생과 수습경위를 비롯 향후 수습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원스님은 "범어사 사태와 관련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며 참회의 뜻을 전했고, 과도집행부 부주지 영환스님은 "차기 주지가 선출되기 전에 종무대책위와의 협의 하에 국고보조금 문제등에 대한 법적 해결이나 범어사의 뜻을 결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차기 주지 임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9월 20일 이후 산중총회를 개최한 후 원로스님들의 뜻을 포함한 산중 대중들 공의를 수렴하고 종헌 종법상의 절차를 따라 원만히 해결해 나갈 방침" 이라고 설명했다.

천미희 기자

승가대 올예산 26억원

종범스님 총장직 사임

중앙승가대학교 이전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는 10일과 12일 위원회와 실무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중앙승가대 2001학년도 예산을 25억6천만원으로 확정, 18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학교행정기구 개편안도 이사회에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이전대책위는 이전팀, 인수팀등 산하조직을 해산하는 한편 중앙승가대와 관련한 행정, 재정, 발전방안 등을 연구 논의하는 '종합대책 수립팀' 을 구성했다.

안암학사 임대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임대를 신청한 6개 업체에 대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 18일 이사회에서 선정토록 했다.

한편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종범스님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9일 총장직을 사임했다.

한명우 기자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조각원



■문 의
033)263-1102
H·P 017)379-0590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불자기업 성불조각원

목어

악수 두는 일본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인구는 12억이지만 실제 인구를 15억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중국은 1976년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수요물자 부족국에서 물자의 초과공급 상태가 되었다. 중국 정부의 계획은 연평균 GDP 7%를 계속 성장시켜 2010년에는 현재 2001년 때의 2배를 달성하고, 2020년에는 일본의 경제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만리장성, 대운하와 같은 대공사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도 그것들에 버금 가는 대공사가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이공계 대학은 양적으로는 상승일로에 있으며 질적으로도 清華, 北京대학 등 세계 일류급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IMF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통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 반도체, 제철 등 중요한 경제분야에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으며, 특히 IT분야에서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불과 수년 전까지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다. 하지만 지난 잃어버린 10년 간의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호송선단식 관주도와 연공서열, 종신고용에 의한 경제시스템이 더 이상 정보화, 국제화의 진행 속에서 지탱을 못한 것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기부양정책은 정부 부채가 GDP의 180%에 달해도 효과가 없어서 0금리를 실시할 정도가 되어 있다. 일본 경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호전될 전망은 없다.

그간 가벼이 여겨온 한국과 중국의 약진에 일본은 초조해지고 국민은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암울한 상황을 왜곡된 교과서 등으로 국민적 자긍심을 부추기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선이 오히려 일본을 망치고 동북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성을 되찾아 함께 이 지역의 공생공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통도사 갈등 '해빙 국면'

정대스님 통도사 주지 임명장 수여

종단상대 소송취하 표명
사면 복권 추진 밝은 전망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종단화합차원에서 추진해온 사면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그동안 사면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정화회의의 소송취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98년 정화회의 건과 관련해 방장 직위가 해제돼 주지추천권이 없는 월하스님이 지명한 현문스님에게 주지(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해 통도사와의 화합의 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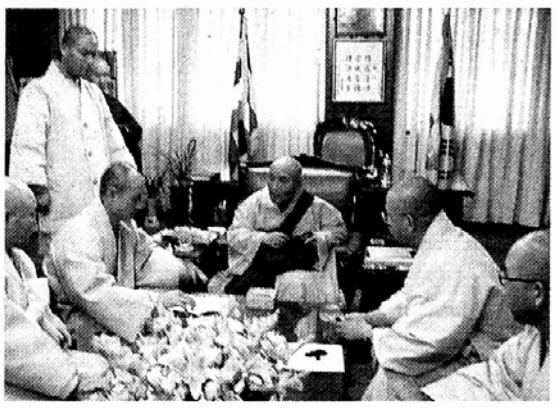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월하스님이 총무원 인사와 만나 종단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취하, 징계승려 사면요청 성명서 발표 등 종단화합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존중한 데 따른 것이어서 월하스님도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추진중인 사면복권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이와 관련 "어른(월하)스님께서 '나로 인해 불이익당한 사람들을 종단차원에서 풀어줬으면 한다'고 밝히셨다"며 "나중에 성명서를 발표해서라도 어른스님이 결단내린 부분에 대한 의견표명이 있으실 것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정화개혁호의가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취하 등 98년 종단분규로 인해 파생된 종단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화합종단 구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혀 화합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통도사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은 총무원 집행부가 종헌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종회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면에 대해 미온적인 한 종회의원은 "3월 종회에서 '종헌 개정, 초파일 이전 사면' 등의 얘기가 나왔으나 정화회의가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및 총무원장 부존재 소송을 항소하여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며 "사면에 대해 종회의원들의 분위기가 싸늘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무원이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인다면 올해 내 종법개정과 사면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통도사 현문-원산 스님측은 12일총무원에서 월하 스님의 뜻을 존중, '신임주지로 현문 스님을 임명 한다'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대화 통해 화합 모색"

통도사 주지직대 현문 스님



"대중이 화합하고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통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으로부터 신임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임명장을 받은 현문스님은 "지난달 초 주지선출을 위한 임회의 유회 등 휴유증으로 통도사가 한 달간 주지 공백사태에 빠지는 등 갈등이 있었지만 양측(현문-원산스님)이 어른스님(월하스님)의 뜻을 존중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일불제자인 만큼 문제가 발생되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통도사가 정화개혁회의를 이끌며 종단과 대립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풀도록 노력 하겠다"며 "양측이 12일 합의점을 찾은 만큼 앞으로는 오직 산중이 편안해지는 원융살림을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현문스님은 월하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해 7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후 표충사 주지, 조계종 중앙선관위원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종교인환경회의 첫 워크숍

"자연-사람 더불어 살자"

종교·환경단체 150명 참석

"종교인들이 자기 자신부터 정화해 나갈 때 자연과 사회가 청정해진다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고 신도들을 각성시켜 나가자."

갈등과 대립의 상처를 통합과 조화의 사회로 만들어나가는데 종교계가 나섰다. 지난 5월 22일 창립한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 김영락 이선종 최용록)는 9~11일 경기도 의정부 천주교 한마음 수련원에서 '생명의 시대, 깨달음과 영성을 위하여'란 주제로 제1회 '생태사회를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을 펼쳤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교단 환경단체 회원 150명이 참가한 이번 대화마당은 생명에 대한 깨달음과 영성을 지향하는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뭇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인간의 이기심과 오만에 대한 참회를 통해 사람과 자연을 모두 살리는 생명운동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대화마당 첫 번째 날에는 '21세기 화두 깨달음 영성이란 무엇인가'란 화두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선태 교무는 발제문을 통해 "모든 편견을 버리고 평상심과 여여함으로 자연을 어머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태적인 공존과 상생의 시작"이라면서 "삶과 만남 속에서의 깨달음이 생태적 깨달음"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현주 목사는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 자리를 포기하고 겸손되이 땅에 내려와 자연의 일부로서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곧 우리는 편이와 안락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인간스럼움을 약탈해 가는 저 눈먼 도시화, 공업화로부터 탈출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월스님(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은 "우주와 나, 물질과 정신을 둘로 보지 않는 물심불이(物心不二)의 자세로 생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나 부처님의 법신인 지구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환경운동은 결국 모든 종교의 근본적 가르침과 일치하며 종교 쇄신운동과도 연계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혼돈의 시대를 조화의 사회로 만들어나가는 종교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화마당은 그간 가장 생태적인 삶을 살면서도 환경운동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종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종교적 깨달음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종교환경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 문화재 지키기 결국 문화유산 보호"

'우리문화재 지킴이' 발대

이무영 경찰청장



문화재 도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찰청은 12일 오후 2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우리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문화재 지키기에 경찰과 정부, 불교계가 매진 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문화재 지킴이'의 총사령탑인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으로부터 발대식의 의의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들었다.

▲우리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이 갖는 의의.

경찰-사찰 유기적 협조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의 창달 없이는 국가의 부강도,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찰이 문화재 보존과 도난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차에 불교계에서 담당수사관제도 창설을 제의해왔기에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민 · 관 그리고 경찰이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 서로 협력을 약속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발대식 이후 문화재 전담 수사관 등 경찰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현재 전담수사관은 전국 경찰관서에서 차출된 정예수사요원 2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담수사관들로 하여금 관내 문화재 현황 및 골동품상, 문화재 범죄경력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한 전담수사관들에 대한 집체 교육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집중단속이나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전국적 공조 수사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수사역량 강화

▲발대식을 계기로 경찰과 불교계가 문화재 지키기에 공동 노력을 더욱 배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경찰은 지역의 사찰과 유기적이고 장기적인 협조 체제를 일어 문화재의 손실과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경찰청이 문화재 자문위원 11명을 위촉한 것으로 압니다. 더불어 문화재전담 수사관의 전문교육 강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문화재 각 분야별로 권위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문화재 전담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전문화 교육에 대해 협의 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청 사정을 감안하여 금년 후반기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불교계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도난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방범활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래 불교계에서 문화재 소장 사찰 등에 방범기기 시스템을 도입 설치하는 등 자위방범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불교계와 경찰이 뜻을 모아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임연태 뉴미디어부장

한국불교태고종 전 종도에게 드리는 말씀

한국불교태고종은 종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역대 선조사 스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종단의 자주적 전통과 법맥을 계승하여왔다. 그러나 제79회 중앙종회 이후 작금의 현실까지 야기된 종단의 사태는 전 종도들을 실망시키고 내분으로 인하여 종단이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파사현정 부종수교의 일념으로 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동안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바로 잡고자 지난 7월 10일 종단 내의 대덕 큰스님들과 주요간부 100여인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불교태고종 종단바로세우기연합"(이하 종단바로세우기연합)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대회장에 서철화 스님, 상임집행위원장에 김운경 스님을 추대하고 다음과 같은 4개항을 결의하였다.

1. 우리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승가 본연의 가풍을 지향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종단건립에 매진한다.
2. 우리는 작금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킨 자들을 규탄하며 현 총무원장은 조속히 , 종법에 의거하여 책임자들을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종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고 바로 설 때까지 현 집행부의 모든 지시사항을 거부한다.
4. 우리의 요구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여 종단이 바로 설 때까지 결사 항전할 것을 천명한다.

종단바로세우기연합은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7월 11일 최혜초 총무원장을 방문 결의사항을 전달하고 종단의 현안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촉구하였으나, 최혜초 총무원장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 자들과 배후 세력은 인정하지만 첫째 자신은 힘이 없고, 또 총무원장을 만들어준 그들을 배신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최혜초 총무원장과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종도들에게 현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종단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최근 현 집행부에서는 종단에 떠도는 의혹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공문을 종단 간부들에게 보냈는데, 이 문제 또한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현 집행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전국승려대회이후 구성되는 참신하고 공정한 집행부가 주도하여 모든 관계자를 소환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애종심과 결의를 연명으로 종도들에게 고하며 전 종도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 증 명 : 덕암 종정 예하
- 고 문 : 승정원 승정 예하, 홍인곡, 김연운
- 대회장 : 서철화 · 부대회장 : 최월해
- 상임집행위원장 : 김운경 · 부위원장 : 김수암, 이지성
- 입법위원회 위원장 : 최법산 · 부위원장 : 성수종
- 사정위원회 위원장 : 김백만 · 부위원장 : 이백우, 김지각
- 자문위원 : 김학성, 김운암, 김지암, 권태수, 박만화 송종연, 김산옹, 이청은, 이벽파, 이석우, 임자광 류우담, 정지허, 주선응, 최정암, 최월봉
- 지도위원 : 김금명, 고동우, 권금용, 석노필, 박일운 박정담, 박길수, 박동파, 이혜암, 최만월 최혜운, 김법선

정토사 혜성, 관암사 혜공, 백련사 정암, 인곡, 운암, 월해, 운경, 설산, 도명, 무불, 도원, 종원, 용문사 산옹, 태평사 금명, 송암사 혜운, 봉원사 법산, 성담, 일운, 운천사 대권, 홍국사 월봉, 연화사 본자, 백우정사 도성, 도현, 선암사 현오, 원각사 법해, 선암사 법정, 청련사 백우, 혜암, 혜경, 도암, 심곡, 벽산, 승가사 지성, 불국사 법선, 법성, 보리정사 일운, 선광사 수열, 정방사 혜일, 청강사 수행, 금붕사 수암, 백용사 수종, 석봉암 광진, 원각사 법달, 극락사 현경, 향림사 우담, 천불사 무애, 미타사 만화, 법성사 법성, 상불암 무위, 불화연구소 원욱, 청봉사 청봉, 성불사 도암, 경불사 우준, 토굴산방 정우, 보은사 혜담, 기원정사 대원, 보경사 형우, 무각사 호산, 천관정사, 도봉사 고봉, 원광사 화경, 보은사 장진, 백천사 정일, 동방대동문 보적, 혜경사 지현, 수왕사 만월, 수도사 일호, 송암사 백송, 대길사 대길행, 은적사 진공, 관음사 청호, 관음사 동표, 부흥사 법선, 부용사 법혜, 향천사 혜연심, 용학사 완월, 용천사 원산, 성은사 성오, 성주암 재홍, 원각사 원명, 미륵사 청안, 사바사 일곡, 선행암 정안, 만성사 김백만, 기원정사 설운, 정불사 서운, 관암사 법인, 선현정사 학림, 경수사 호연, 천영사 현우, 용운암 계룡 (무순)

불기 2545년 7월 12일

한국불교태고종 종단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서철화

일주문



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

현성 청소년교화연합회장스님은 5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어린이 불교학교 열어

일면 봉선사 주지는 19일부터 2박3일간 봉선사와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를 연다.



'숭산 스님 가르침' 법문

성광 화계사 주지는 25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숭산스님의 가르침'을 주제로 법문한다. (02)703-0108



티베트박물관 개관 법회

현장 대원사 주지는 8일 '티베트박물관 개관 법회'를 봉행했다. 박물관에는 불상, 만다라 등 6백여점이 전시돼 있다.



백담사서 염불만일회

김재일 염불만일회 회장은 8월6일부터 2박3일간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에서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를 개최한다.



해병불자회 정기법회

김흥국 해병대불자회 회장은 29일 오후 3시 강남 삼성동 봉은사에서 해병대불자회 '7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KBS 사회교육방송 출연

김규범 대한불교청년회장은 8월6일부터 12일까지 KBS라디오 사회 교육방송 '종교와 인생'에 출연한다.

전북불교대 미주 총동창회 결성



전북불교대 통신반을 수강중인 미국내 학인들이 전북불교대 미주 총동창회를 결성했다. 뉴욕, 워싱턴, 하와이 등 미주에 거주하는 전북불교대 통신과정 학인들은 최근 뉴저지 대원식당에서 모임(사진)을 갖고 앞으로 △법사 초청 법회 개최 △불교성지순례 △불교도서관 설립위한 불서 모집 △모교방문 등의 추진과 동창회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모임은 2개월에 한 번씩 마지막 토요일 오후 7시 뉴저지 불국사에서 갖는다.

"태교는 업장 녹이는 인성교육"

한국 태교연구소 개설 구본일 소장



"태교는 똑똑한 아이를 만드는 조기교육이 절대 아니예요. 마음을 비우고 부모와 태아의 업장을 녹여나가는 인성교육이자 수행입니다."

최근 사단법인 한국태교연구소를 개설, '불교 태교(胎敎)'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구본일(여 · 49) 소장은 "불국토를 가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올바른 태교문화를 시급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 소장은 극성스러운 자식사랑에도 불구하고 태중태교는 이미 늦고, 더욱이 욕심과 집착이 앞선 잘못된 태교는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임신모의 업장을 녹이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태교의 본뜻인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태아를 천재로 만들겠다고만 하면 아이가 배우는 건 음악이나 영어가 아니라 어머니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 태교이론과는 다른 구소장만의 독특한 교육은 '명상태교'에 담겨있다. 하루 15분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 또는 참선을 하면 자아반성과 감사의 마음이 싹트면서 심성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엄마와 태아와의 태담(胎談)을 통해 태아의 집중력과 두뇌기능이 향상되고 바른 인생관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일본 와세다대에서 동양미술사를 전공한 구소장은 13년전 홍콩 홍법원에서 대구 파계사 주지이자 태교연구가인 성우 스님으로부터 명상태교의 중요성을 배워 불모지나 다름없는 불교 태교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태교와 육아법〉 〈흰연꽃 피는 소리〉(토방 刊) 등 태교육아서를 내기도 한 구소장은 오는 9월 개원식을 열고 불교 태교이론 정립, 강의 및 실습, 세미나 개최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13~15일 남양주시 봉인장수련원에서 청소년-일반인-임산부를 위한 첫 '명상태교 캠프'를 가진 구 소장은 26~27일(대학생 · 일반인 · 임산부)과 8월 7~8일 대구 파계사에서 태교수련회도 갖는다. (02)738-8813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그늘진 영혼에 재활꿈 심었으면 …"

장애인돕기 산사음악회 여는 거조암 주지 돈명 스님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일이야말로 불자들이 해야할 신행이죠."

지체장애인 후원기금 마련을 위해 오는 27일 오후 7시 대구 팔공산 거조암에서 500나한의 개채불사 회향과 함께 산사음악회를 여는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 돈명 스님(거조암 주지). 스님은 "특별한 때에나 한 번 장애인들에게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그들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스님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센터를 개소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공동자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생각"이라며 사찰에서 쓰다 남은 양초를 수거, 자생산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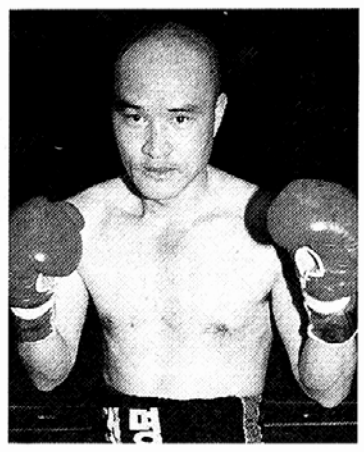
500나한 개채불사의 회향 공덕으로 장애인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력을 모은 돈명 스님은 3년전부터 장애인들을 초청해 사찰순례를 겸한 야유회를 베푸는 등 장애인들을 후원해 왔다. (054)335-1369

김재경 기자

'한라불교' 대표 조맹수 씨



조맹수(46 · 사진) 신임 한라불교신문 대표이사는 4일 취임식을 갖고, "불교계 신문인 만큼 일반 사회기사보다는 환경관련 기사에 비중을 두겠다"면서 "8월부터는 현재 격주간 발행을 주간 발행으로 쇄신, 지면 고급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조 대표이사는 서귀포시 출신으로 광주대와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을 졸업, 제민일보 주일 특파원,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을 역임했다.



"포교위해 오른 사각링도 선방"

20년 권투 접는 대명 스님

"링에서도 포교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운 대신 누비 장삼을 걸치며 20여년간 복서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력은 아직도 자신이 있지만 불혹이란 나이의 부담감은 쉽게 떨칠 수 없었습니다."

29일 오후 2시 동국대 경주 체육관에서 고별전을 갖는 분황사 대명 스님은 수행자로서 권투 포교를 위해 링에 올랐던 그 동안의 감회를 이렇게 털어놨다.

현재 분황사에서 천일기도 정진과 하루 5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마무리 훈련에 한창인 스님의 고별전 상대는 前 세계 챔피언이었던 홍수환씨의 아들 홍대호씨(24). 15년 이상의 나이차와 체력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홍씨가 3전3승의 강펀치를 갖고 있기는 하나 한 번 해볼만 한 상대라고 자신감을 피력한다.

29일 홍수환 아들과 고별전

은퇴후 심판 · 선무도 활동

대명 스님이 복서로서 활동하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6년 MBC 신인왕전에서다. 1회전에 강력한 우승후보를 만나 얻어맞고 링에서 쓰러졌을 때 이를 지켜보던 어느 보살이 "그렇게 스님을 두들겨 패도 되냐"고 소리를 질러 장내가 웃음바다가 됐다. 이런 불자들의 격려와 응원이 20여년간 스님을 링에 붙잡아 둔 가장 큰 이유다.

78년 인왕산 본원정사에서 출가 한 뒤, 상계동 사천왕사, 남양주 봉선사 등에서 수행정진 했던 스님은 인천체고와 인하대 체육학과를 거쳐 88년부터 5년동안 대전 보문중 교법사 겸 체육교사를 지내기도 했다.

분황사와 골굴사 어린이 · 청소년 수련회 지도법사인 대명 스님은 은퇴 후 권투 심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골굴사 선무도 대학원에 입학해 선무도와 청소년 포교에 앞장선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조동종 총무원장 심월 스님 취임법회

대한불교 조동종 제6대 총무원장 심월스님이 12일 서울 강서구 용천사에서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명종, 발원문 낭독, 총무원장 임명패 및 임명장 수여, 법어, 취임사, 축가 등의 순으로 열린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동종 종정 지명스님, 조계종 재무부장 성월스님, 법사종 하순성 종정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동참했다.



김천 직지사 생전예수재 회향

김천 직지사(주지 법성)는 10일 만덕전에서 생전예수재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예수재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 스님, 전 종회의장 법등 스님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녹원 스님은 "생전예수재 회향을 계기로 재발심해 가정에서도 수행정진에 충실한 참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파주 호국 충의사 봉불점안

경기 파주 호국 충의사는 10일 법당에서 봉불점안법회를 봉행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최정수 명예회장을 비롯해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부산 용화사 주지 연담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불사가 군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정신력 증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종단협 봉축열차 회향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7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전국지하철 자비의 말씀 게시판 설치 고불 및 봉축열차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의회장 정대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풍경소리 대표이사 성운스님, 고건 서울시장 등 1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雪山玉佛
釋迦世尊께서 成道하신
雪山玉石으로 造成한 圓滿
慈悲하시고 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四五年 二月 二十一日
小林 西翁 謹書

■ 주천서



■ 고불송림 방장 서옹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 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 .co.kr

산골 역사에도 '자비법음' 울린다

풍경소리 10월 철도역 300곳 게시판 설치

철불협 9월 연합회 창립…무사고 법회도

도시 지역에서만 법음을 울렸던 자비의 말씀 게시판이 산간오지에도 설치된다.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는 빠르면 10월부터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경춘선, 태백선, 전라선 등 철도청 관할 300여 역사에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설치한다고 밝혀, 지하철에 이어 열차 포교 시대가 본격 개막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수도권전철운영단 등과 공동으로 지하철 역사에 게시판을 운영해 온 풍경소리가 철도청불교협의회(이하 철불협)와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해 실현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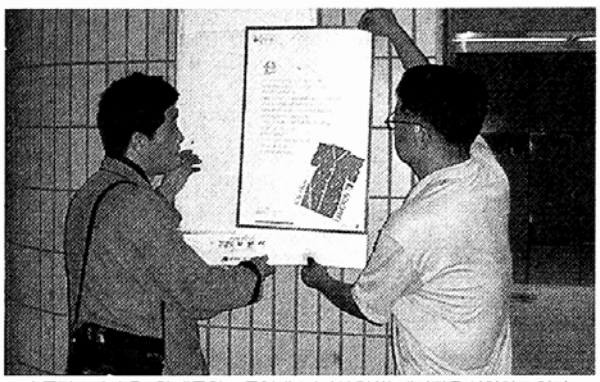
이번 합의에 따르면 철불협은 오는 9월 철도청 본청 불자회 및 철도청불교연합회(가칭)를 결성하고 게시판 설치를 위한 철도청의 승인 절차를 밟는 데 주력한다. 또한 풍경소리는 게시판 제작 및 운영비 4000여만 원을 마련한다.

철불협은 현재 전국 15개 지회와 1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할 만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본청에서는 불자회를 결성하지 못해 철도청 내 공식단체로 등록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도 철도 역사에 포교용 게시판을 설치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철불협은 9월 본청 불자회를 꾸리는 데 이어, 기존 15개 단체와 더불어 대전에서 '철도무사고 안전법회'를 겸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철도청불교연합회를 결성해 철도청에 신행단체로서 공식 등록한다. 특히 철불협은 연합회 회장단에 철도청 이사관급 인사를 추대해 자비의 말씀 게시판 설치를 용이하게 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풍경소리 이용성 사무처장은 "앞으로 결성될 연합회의 승인 신청과 내부 직원들의 협조만 있다면, 전국 철도구간 전역에 포교용 게시판을 설치하는 게 가능하다"며 "철도 포교에 철도인 스스로 나서고, 이를 계기로 불자회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는 하루 1백50만 인구가 이용하는 대규모 교통수단이다. 지난 93년부터 도심 지하철 역사에 '사랑의 게시판'을 설치해 온 지하철기독교 선교회도 아직까지 '선교 게시판'을 철도 역사에 걸지 못했다.



◇풍경소리가 올 2월 개통한 보문역에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설치하고 있다.

풍경소리는 철도 역사에 부착할 게시판 수를 약 600여 개로 잡고 있다. 이는 전국철도 역사 한 곳당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하루 2백50만 시민들이 부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비의 말씀 게시판은 부처님 경전 말씀과 설화 등을 현대적 언어로 다양하게 재구성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월 2회 교체하고 있다.

대표이사 성운 스님은 "자비의 말씀 게시판을 철도 역사로 확대, 설치해 부처님 정법을 생활 현장에 쉽게 접하고, 부처님 법음으로 자비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조폐공 금강회 정기법회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는 11일 금강원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17명의 회원들은 '공(空)'을 주제로 한 관음정사 회주스님의 법문을 듣고, 하반기 창립기념법회, 사찰순례, 수계법회 등을 논의했다.

'법륜회보' 18호 발간

법륜교수불자회는 〈법륜회보〉 제18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화사점족을 하랴!'를 주제로 한 통도사 백련암 주지 원산스님의 법문과 대경대 노용호 교수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태교육', 경산대 김성삼 교수의 '다시 보는 고려불화의 아름다움' 등이 게재됐다.

부산 한빛은 참선실수

한빛은행 부산불자회는 14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영주암에서 7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20여 회원들의 108배로 시작한 이번 법회는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의 법문과 참선실수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불자회는 9월중 부산, 서울 한빛불자회 합동법회에 관해 논의했다.

석불연 문명대교수 강좌

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11일 삼청동 가족 아카데미아에서 동국대 문명대 교수 초청 불교 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문 교수는 30여 명의 연구회 회원들에게 '삼국시대의 불상'을 주제로 강연했다

들꽃사진회 촬영실습



통도사 서운암 들꽃사진회는 8일 경주 산내 그린 대강당에서 첫 모임을 열고 강연회와 야생화 촬영실습을 실시했다(사진). 30여 회원들이 동참한 이날 밀양대 하순혜 교수는 '들꽃 촬영 기법과 카메라 테크닉'을 주제로 강연했다.

게시판

알림

▲무료법률상담=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14, 28일 오전 10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김동진 변호사가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의 주제는 전세, 채무, 보상, 노동, 이혼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것으로, 당일 복지관에서 일괄 접수한다. (051)271-0562

▲무료직업소개소 개설=자양사회복지관은 무료직업소개소를 개설하고 구직자와 구인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구인처는 전화 접수 가능하며, 구직자는 복지관을 방문해 소정의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02)458-1664

▲장애인 차량 무료점검=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20일 하루 동안 영주 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054)633-6415

강좌

▲어린이 한문학당=미황사는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의 '어린이 한문학당'을 마련한다. 22~29일, 8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한문학당에서는 한문, 다도, 참선, 발우공양, 생활예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61)533-3521

모집

▲독거노인 도우미=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무의탁 독거노인의 일상을 도울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는 5일간 5차례 실시된다.(02)385-1351

▲봉사캠프 참가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 봉사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봉사캠프는 8월 2~3일 경기도 가평 꽃동네에서 열리며, 20시간 자원봉사확인증이 발급된다. (02)2282-1100

▲사회복지사 모집=문경모전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 컴퓨터 운영 가능자로, 지원 마감은 21일. (054)555-0108

▲건강음료 후원자=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건강음료 서비스 후원자를 모집한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들에게 보낼 건강음료 비용을 모금하는 것으로, 한 구좌당 3,000원. (031)716-4215

▲여름방학 과제함께하기 신청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신나는 여름방학 과제함께 하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6학년 대상. (02)989-4215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5시)
☎ 02)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 02)722-4162

"누구나 좋아하는 만화 훌륭한 포교방편이죠"

불교만화동우회 창립준비 김선아 소장



"불교만화를 독자적인 포교 방법으로 완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불교계 첫 불교만화동우회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이끌고 있는 불교만화연구소 김선아(사진) 소장.

김 소장은 불교캐릭터 상품 개발, 각종 불교서적 삽화 작업, 만화 〈영험설화〉 연재, 불교만화 홈페이지(www.okbuddha.co.pe.kr) 운영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교만화 분야의 선두주자.

김 소장은 "불교만화는 거의 황무지 상태지만 포교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획과 일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불교만화 창작 등이 이루어진다면 포교의 옥답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분야"라고 단언했다.

위덕대 권기현 교수, 서울 선운사 주지 태허스님, 애니메이터 김종현 씨를 비롯해 20여 명이 이미 회원 등록한 불교만화동우회는 29일 오후 2시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에서의 창립법회를 시작으로 지역 모임을 활성화하고 소식지와 인터넷 공간 등을 활용해 만화포교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회원들의 각기 다른 관심분야를 서로 연계하면 포교라는 공통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김 소장은 "불교만화동우회 창립을 통해 불교만화가 독자적이고 신선한 포교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053)474-034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친 심신 참선으로 달래

금융단聯 수련회…사경 · 수계식

7일 서울 수락산 자락에 위치한 도안사 대웅전에서 반야심경 1자1배 사경법회가 봉행됐다.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가 이 곳에서 무박 2일 수련회를 연 것이다.

농협, 수산업협동조합, 수협, 한빛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서울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이 모인 이번 수련회는 사경법회 외에도 기체조 참선 실수 새벽예불 수계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수계식에서는 연합회의 수련회 사상 최연소 참가자가 수계를 받아 이목을 끌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연합회 총무 이충훈 씨의 10살의 딸과 9살의 아들.

이 씨는 "이제는 좀 큰 것 같아 아이들에게 불교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토록 하기 위해 같이 참가하게 됐다"며 "처음으로 계첩을 받은 딸이 학교 다니면서 상장 하나 못 받았는데 사찰에서 받았다고 말해 웃음을 터트렸다"고 말했다.



◇절에서의 예법을 배우고 있는 금융인 불자들.

이번 수련대회를 기획한 연합회 김윤하 운영위원장은 "대규모 임원 감축 등 어려운 여건을 이겨낸 회원들이 참석해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 깊은 수련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9일 열린 새만금 1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족식.

1천만 서명운동본부 발족

새만금 갯벌 평화연대 새만금갯벌 생명 평화연대(상임대표 수경스님)는 9일 서울 인사동 서울은행 옆에서 새만금 1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본부에는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와 각 종교단체의 환경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했다.

서명운동본부는 각 부문별 지역별로 서명운동을 전개, 오는 9월말까지 1차로 100만 명 서명을 달성해 정부와 국회에 새만금 강행 무효화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20명 ■야간 20명 ■통신 50명	· 고등학교 및 수학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 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 50명		
개호복지사과	2년	■통신50명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20명 ■야간1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1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2. 제 10회 졸업생 배출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지도자과정 입학가능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입학가능(9월)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7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TEL.02)511-2026~8 FAX. 511-2028
일본동경분교 :TEL 055-233-1848
부 산 분 교 : TEL 051-322-32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WWW.samhwadea.wo.to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 화 불 교 대 학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까지)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1년 7월 30일까지
■ 문의처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202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
한의사 과정 학생모집

1.모집학과
■석사 · 박사과정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 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전문대,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건강 진단서 1통 ◇ 외국인 유학생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3매
중의외과	5 년	
중약학과	5 년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 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등 완비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WWW.njutcm.edu.cn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남경중의약대학

중국남경 중의약 대학 박사과정 연수

한방미용연수
■ 대 상
피부관리사, 전문미용인 한방미용이나 경혈 마사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
■ 주요연수 내용
머리경혈마사지 피부내용 한방미용다이어트 시이요법 및 응용 등

침 · 기공 연수
■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 주요연수 내용
당뇨병 · 중풍 비만 · 좌골신경통 및 관절치료 등의 침치료, 맥진법, 기공 등
■ 기 간 : 8월 2일 ~8일(6박7일)
■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학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 인 원 : 10명 선착순
■ 출 발 일 : 2001년 8월 2일 예정
■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 화 : 02) 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사찰 대소사 우리가 앞장서요"

신행현장

통도사 쿠샨티봉사반

장마비가 영축산 자락을 적시던 11일. 통도사 설법전 지하에서는 노란조끼를 입은 보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14일로 다가온 1차 수련회를 위해 지난해 사용했던 발우를 다시 소독하고 짝을 맞추어 정돈하느라 습한 날씨에 구슬땀이 흐른다. 아침나절 내내 수련회 참가자들에게 지급되는 법복을 다림질하고 잠시 쉴 틈도 없이 발우 정리에 나선 이들은 통도사 쿠샨티봉사반(회장 최여래지) 회원들이다. 수련회 준비가 이들의 몫이듯 회향 후 뒷정리도 이들 차지다.

"수련회가 6차까지 있으니까 수련회 준비와 뒷정리로 올 여름은 다 가겠지요. 한 가족처럼 마음 맞추어 한결같이 일하는 회원들이 고마울 뿐이죠." 최여래지(56) 회장의 말처럼 쿠샨티봉사반의 여름은 일상을 벗어난 수행을 꿈꾸는 이들의 뒷바라지에 모두 바쳐진다.

98년 통도사 교리반과 경전반 출신들로 창립된 쿠샨티봉사반은 통도사의 대 소사를 돌보는 살림꾼으로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사중 일도 모자라 매월 한번은 노인들 간식을 챙겨들고 자비원을 방문해 청소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매월 초하루, 보름 법회와 화엄산림, 개산대재, 초파일 등 크고 작은 법회에서 행사장 안팎 정리와 법당 청소에 이르기까지, 해도 해도 표나지 않는 일에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 '인욕'을 뜻하는 '쿠샨티' 라는 말 그대로 인욕 수행을 행하는 이들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만이 모든 상을 여의고 쿠샨티봉사반의 노란조끼를 계속 입을 수 있는 것. 처음 30명이던

회원 20명 분주한 나날
수련회 참석자 뒷바라지
노란조끼 입고 '인욕' 실천

회원이 현재의 20명으로 줄어든 것도 쿠샨티봉사반의 만만치 않는 활동정도를 대변하고 있다.

"부처님 법을 행한다는 굳은 신심 없이는 계속할 수 없는 일"이라는 최금강심(58)보살은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일을 그냥 일로 보면 힘들어서 못해요. 모든 일이 곧 수행이고 복덕을 짓는 일임을 잊지 않으니 가능하지요."라며 발우를 정리한다.

평균 연령 50세인 쿠샨티봉사반의 유일한 미혼 임영주(31)씨는 직장과 봉사를 겸하며 '나이 들어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한결같이 봉사할 수 있길' 발원하고 있어 어머니뻘 회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통도사 쿠샨티 봉사반 회원들이 여름수련대회 참가자들이 입을 법복을 다림질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는 행을 통해 불법의 진수를 체득하는 이들의 정진은 그러나 봉사에서 그치지 않는다. "힘들게 일하는 틈틈히 시간을 내어 천배를 하고, 집으로 가는 차안에서 독경하고 모든 분들이 한시라도 수행을 늦추지 않아요" 이법연화(45) 총무의 설명이다. 봉사와 정진을 둘로 보지 않기 위해 월 1회 법회와 특강을 가지며 수행을 점검하기도 한다.

통도사 교무과장 현담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상 내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흔적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고 가는 봉사반에 항상 고마울 뿐"이라며 "궂은 일을 수행삼는 것은 모두에게 귀감"이라고 칭찬했다.

묵묵히 행하고 가는 쿠샨티봉사반의 보람과 기쁨은 사람들이 던지는 "수고하시네요" 인사와 어디서든 반갑게 인사를 건네오는 불자들의 환한 웃음이다. '노란조끼'가 어느덧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 마음가짐과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

"수련회 참석하고 싶을때도 있지요. 그러나 내가 참석하고 나면 누가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나 하는 걱정에 그 마음을 접게 돼요." 김정심화(58) 보살의 말은 산사를 찾아 수련를 하는 많은 이들이 한번쯤은 새겨봄직한 말이다. 절이나 일상에서 누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사소한 혜택이 쿠샨티봉사반의 노란조끼가 상징하듯 많은 이들의 노고에서 비롯됨을 일깨워 주는 말이기에.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생활속의 불교

공양(供養)의 의미

단지 인간이라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의 목숨을 아무 거리낌 없이 빼앗는다. 그러면서도 미안하다거나 죄스럽다는 생각조차 않는다. 아니, 당연시하고 즐거워하고 제법 고상한 척한다.

불살생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먹을거리는 모두 다른 생명체로부터 빼앗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섭리이다. 고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살생하지 말라 하는가.

생명 유지를 위한 살생, 그것은 공양(供養)이어야 한다.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는 입장에서는 고귀한 자기 희생이며 받는 입장에서는 눈물겨운 수용인 것이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고 받는 일인 만큼 고귀하고 성스러운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한낱 즐기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없다. 내것이라면 하찮은 물건 하나라도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유일하기로 치면 사람과 조금의 차이도 있을 수 없는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매일 그토록 고귀한 헌공에 의해 살아 간다. 어찌 감사하다 하지 않으랴.

그런 의미에서 식전(食前)의 합장 기도는 그 감사함의 표시가 되어야 한다. 내게 바쳐진 모든 생명 공양을 결코 헛되이 받지 않으리라는 다짐이 되어야 한다. 나를 살리기 위한 모든 희생과 함께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리라는 이타의 표시여야 한다.

그 고귀한 희생에 의해 살아 가면서 내 어찌 허튼 짓을 하고 악행을 하랴. 내가 허튼 짓 하고 악행을 한다면 내게 바쳐진 그 공양은 다 어쩌란 말인가. 너무나 억울한 희생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선량한 언행으로 그에 답하지 못한다면 그 숱한 빚을 다 어찌 감당하랴. 생명을 바친 존재들의 억울함을 다 무엇으로 어루만지랴.

내 물건 아끼는 만큼이라도 다른 생명체를 아껴 준다면, 몸에 좋다고 닥치는 대로 잡아 먹고 즐겁다고 죽이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또 휴가철이 돌아왔다. 마구 먹고 마시고 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龍眼

주제가 있는 법문

"산사로의 단기출가 삶의 에너지 재충전 기회"



대명스님
동두천 불멘암
서울포교당 주지

방학이나 휴가철이 오면 전국의 사찰과 불교신행단체들은 하나같이 각종 수련회를 개최한다고 매우 부산스럽습니다. 여기에는 사전 준비가 잘 돼 조직적이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수련회가 있는가 하면, 주제도 없이 무엇을 위한 수련회인지도 불분명한 수련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하는 일이다보니, 사찰이나 불교신행단체에서 더러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련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의 준비가 철저하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수행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련회에 임하는 불자들의 자세가 수련회 프로그램이나 그 진행의 좋고 나쁨을 떠나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불자들이 수련회의 진

여유로운 마음가짐
남 배려하는 자세로

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동참해야 하고, 그것은 또 수련회에 참가한 불자들 스스로 더욱 더 신심나는 수행 정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불자들에게 올바른 자성을 깨우치고 진정한 불법을 맛보는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련회에서 보다 많은 깨달음의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신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행이란 '끝없이 반복하여 구함이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자들 중에는 조급한 나머지 1박 2일이나 2박 3일 간의 수련을 통하여 당장 도인이나 될 것같이 서두르는 마음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수련회란 일상의 자기 생활을 조금 다른 환경과 공간으로 옮겨 적응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는 생각이 앞서면 안 됩니다. 수련회도 신행의 한 과정으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자 스스로 4가지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첫째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바쁜 마음이 앞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쁘고 조급하게 행한 일은 그 순간을 지난 다음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둘째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기심만 자라고 자기 주장이 많아져서 결국엔 자기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란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큰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낮출 때 진정한 수련회의 참 맛을 보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삼보를 경애하는 마음이 확연해야 합니다. 먼저 부처님을 경애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승단을 존경하는 마음이 참마음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수행으로 진정한 가르침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확실한 신념으로 정진 할 때만이 여러분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다소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자기희생을 감내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보리심을 내어 재충전된 에너지로 사회와 이웃 그리고 가족을 위한 진정한 보살행의 거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곧 '상구보리 하화중생'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평상심이 도라는 확연한 진리를 깨우쳐서 수련회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올 여름 수련회를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용맹 정진하실 전국의 불자들에게, 이 4가지의 마음을 여여하게 실천해 보실 것을 당부합니다.

신행 캘린더

7월 18일 (수)

■개관 10주년 기념법회=대전 보현문화회관은 오후 7시 개관 1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월명사 주지 모허스님은 '업장 소멸의 길'을 주제로 법문한다. (042)631-6555

7월 20일 (금)

■선과 생활 주제 워크숍=한국선학회는 해인사 홍제암에서 '선과 생활'을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실시한다. (02)2260-3135

■평화운동 강연=(사)좋은 벗들은 오후 7시 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한국대인지뢰금지협의회 조재국 씨를 초청 '국제평화운동'을 주제로 강연회를 마련한다. (02)587-8996

7월 21일 (토)

■시민위한 특별강좌=전북 불교대학은 우후 3시 큰법당에서 '화엄의 세계'를 주제로 시민을 위한 특별 강좌를 실시한다. 동참비 없음. (063)226-7878

■하계수련대회=법륜불자교수회는 22일까지 영주부석사에서 제27차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53)819-1450

7월 22일 (일)

■금산사 십선수련회=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는 8월 14일까지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십선(十善)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십악참회, 1080배, 십선계수계식 등으로 진행된다. (063)548-4440

7월 23일 (월)

■어린이 여름캠프=정토회는 26일까지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05)587-8990

■참선 강좌=우곡선원은 8월 18일까지 27일간 부산 지원인 해운대 우곡선원에서 참선강의 및 좌선 실수를 실시한다. (02)529-5027

7월 25일 (수)

■7월 정기법회=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 금강회는 7월 25일 오후 7시 30분 관음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53)810-0272

7월 26일 (목)

■농아인 수련대회=광림사 농아인 불자회는 29일까지 리선행 법사 초청으로 강원도 횡성 대승사에서 2001 여름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02)2202-5831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1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9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종(동산불교대교수) · 문용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요국근(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정규반(100명) · 주간반(50명) · 통신반(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우리춤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1년 6월15일 ~ 2001년 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미술반) · 매주 목요일 오후4시(우리춤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 학 일 시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064)7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불교 미술학과 · 우리 춤학과 개설

◆ 불교미술 개설 취지

불교미술에 대한 깊은이해와 함께 부처님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변상도를 직접 그려봄으로써 불보살님에 대한 신심과 예경을 표현하고, 1600년의 한국불교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심미안을 체득, 전법과 포교인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교과목

이론편	· 불교미술사 (인도, 서역, 돈황, 중국, 티벳, 남방) · 고려불화, 조선불화, 현대불화 · 불화제작의 이론 (단청, 화엄성중, 변상도, 만다라)
실기편	· 기초선긋기 (사왕초, 보살초, 여래초) · 단청, 선화 (달마도), 민화, 담채화 · 변상도 (법화, 화엄, 정토), 만다라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5시
· 지원자격 : 불교미술을 통하여 불교신행하고자 하는자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2시

◆ 우리 춤학과 개설 취지

우리의 몸 속에 면면히 흐르는 민족의 춤가락을 신명나게 배워 전통의 맥을 잇고, 불교의 사상과 몸짓이 만나 부처님께 춤 공양과 깨달음의 길로 다가가는 과정.

◆ 지도교수 및 내용

교 과 목	❶ 우리춤 기본(몸놀림의 기본 토대 교육) ❷ 승무 기본 (염불가락, 타령가락, 굿거리 가락) ❸ 작법 기본(춤의 기본 사위와 바라놀림) ❹ 북과 장단기본(북놀림과 우리 장단의 기본)
지도교수	이애주 (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예능보유자

◆ 모집요강

· 입학일시 : 2001년 8월 4일(토) 오후 5시
· 모집인원 : 정규반 (30명)
· 강의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문의전화 : 02) 732-1206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박태원 교수의 44

불교로 보는 인생

며칠 전, 저녁 식사로 콩국수를 먹은 것이 잘못되어 밤새도록 고생했다. 아침이 되니 퀭한 눈빛의 해쓱한 얼굴이 스스로도 안쓰러워 보일 정도였다. 어찌나 호되게 시달렸던지 아직까지도 평소의 정상 체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별로 잔병치레는 하지 않게 관리하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몸에 대해 많이 결례했다. 그 날 따라 부쩍 활력이 넘쳐 더위 식힌답시고 입맛 내키는 대로 찬 밀가루 음식을 급히 몸에 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먹을 때 '이거, 좀 넘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혀의 유혹에 끌려 직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었다. 중도 감각을 잊은 미련한 중생 꼴이라니.

어릴 때 한 번 몸이 망가졌던 터라 평소 몸 관리를 허술히 하지는 않는 편이다. 30대 중반 이후로는 근육형 운동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 동양의 전통 기공법에 눈을 돌렸다. 이런 저런 기법들을 응용해 보다가 지금은 태극권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아끼는 선연(善緣)들과 태극권이 몸에 익을수록 그러한 느낌의 지각은 점점 세밀하고 선명해진다. 기공을 통한 기혈 순환 훈련 과정에서, 건강이라 부를 그 어떤 '균형 상태'와 '그 균형 유지력의 상실 및 균형점에서의 일탈'을 몸으로 알게 된 것이다.

비단 몸만이 아니라 일상의 진행, 인생의 전개 과정에서도 정황은 비슷하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는 어떤 기준선을 중심으로 안전과 평안을 유지하거나 상실하는 부침을 거듭한다. 인생의 통찰력을 키운다는 것은 그 기준선에 대한 지각과 그 유지 및 일탈에 대한 직관적 감수성을 계발하는 것과도 통한다. 부처님이 설하는 중도(中道)나 노자가 말하는 '스스로 그러함(自然)'은 바로 그 안전과 평안의 기준선이며, 그에 대한 안목이고 직관이기도 하다.

부처님이 설하는 마음 공부에 열리다 보면 지금의 언행과 마음 씀씀이가 안전과 평안과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지나침과 모자람으로 인해 불안과 고통과

中道라는 균형감각

중에 태극권의 달인이 한 분 있는데, 그 탁월한 태극권 경지도 놀라운 것이지만 술(術)의 고수(高手)들에게 흔히 목격되는 아만과 기만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데다가 무도(武道)의 길에서 열려진 수준 높은 도안(道眼)이 참으로 보기 좋다. 그 분이 내 몸 조건에 맞추어 지도해 주는 태극권은 이제 건강 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정도가 되었다. 체력 소모가 많아 몸이 쳐질 때, 한 시간 가량 연구실에서 태극권 수련을 하면 수영 직후의 활력과 참선 때의 안정감이 몸에 찾아든다. 그저 몇몇 동작을 천천히 진행했을 뿐인데 몸의 기혈 순환이 이처럼 왕성해지니, 오랜 세월에 걸쳐 가다듬어진 동양의 몸 수련 비결들의 공능이 놀랍기만 하다.

태극권 맥락에 몸을 싣고 있을 때면 몸 상태가 건강한 평형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지, 또 어디가 얼마만큼이나 그 균형점에서 일탈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조금이라도 마음이 몸 상태 주시에서 떠나 다른 생각으로 쫓아나가면 금방 그 원활하던 기혈 순환의 균형과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는 것을 느낀다.

마음공부 열리다보면 말과 행동 자연스러워

타락의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것인지를 점점 민감하게 직관할 수 있게 된다. 어떤 판단이나 행동이 중도라 부를 '생명 성숙과 건강의 기준선'에 근접해 있는지 일탈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통찰력이 점점 증장한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신통이 아니고, '그 어떤 경험들(경계)에도 휘말려 나가지 않는 능력'과 '분리와 오해의 가지치기(희론)를 하지 않는 힘'의 자연스러운 산물이다.

잘 나갈 때면 쉽게 넘치고, 막힐 때면 곧 좌절과 낙망으로 무기력하게 주저앉곤 하는 중생이다.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잘 풀릴 때일수록 위험한 때다. 평소 중도 감각을 전혀 계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때, 열이면 열 중도의 기준선에서 심하게 벗어나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경험하는 마음을 돌이켜 살필 줄 알아야(廻光返照) 중도가 보일 터.

▩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mail.ulsan.ac.kr

수계는 불제자 되는 필수과정

참불자의 길 재가자의 계율



◇계율을 지키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행을 닦는 것이다.

옛날 한 스님이 상좌를 두었는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 1주일 이상을 살지 못할 정도로 명이 짧았다. 그래서 스님은 집에서 죽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상좌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7일이 지나서 상좌가 절로 다시 돌아왔다. 스님은 깜짝 놀라 "너의 얼굴을 보니 자비심이 가득하구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으니, "고향에 가던 날 갑자기 비가 내려 개울물에 수천 마리의 개미가 떠내려가는 것을 제가 옷을 벗어 건져 주었다"고 대답했다. 상좌는 불교의 5계 중 불살생계 즉, 개미를 살려준 공덕으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불교에서 계(戒)는 출가수행자와 재가수행자 등 불제자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더 쉽게는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라는 행동지침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일반적으로 불교를 실천의 종교라고 말한다. 아무리 수승한 이론과 사상을 지니고 있어도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얘기다. 그 실천의 길을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 수계다. 수계는 불자가 되는 필수과정이다.

수계를 받게 되면 계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코 구속이나 강제가 아니다. 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제한하기 위한 규율이 아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당연히 받아들이고 지켜야 할 가치의 기준이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부처님의 행 즉, 깨달음의 행을 닦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이 삼귀의계(三歸依戒), 오계(五戒), 칠불통계(七佛通戒), 보살계(菩薩戒)다.

삼귀의계는 불문에 귀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즉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교단에 귀의합니다'라고 함으로서 부처님을 닮은 삶을 서원하는 것이다.

오계는 첫째 생명을 존중하고 억압하거나 죽이지 말하는 것이고(不殺生), 둘째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하는 것이며(不偸盜), 셋째는 청정행

계행 구속아니지만 삶에서 실천 안하면 아무런 쓸모 없는일

을 할 것이요 결코 사음을 하지 말며(不邪淫), 넷째는 진실한 말을 하고 결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不忘語), 다섯째는 바른 마음을 지키고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不飮酒)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오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불자로서의 본분공덕을 실현하는 길이다.

칠불통계는 비바시부처님으로부터 석가모니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일곱 부처님이 공통으로 수지했다는 계다. 즉 '모든 나쁜 짓 하지 말고, 온갖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諸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라는 것이 근본 사상이다.

보살계는 재가 불자가 받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계로 10중대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재가불자로서 해탈을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설한 10중대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삼귀의, 오계를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불자로서 세속에 살면서도 출가수행승 못지않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부처님께서는 "보살계를 받은 자로서 만약 이 계를 송하지 아니하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결국 진정한 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보살계를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김중근 기자

禪과 21세기

'서장' 통한 선 공부 22 유통판에 대한 답서(1)

병 사라졌는데도 약 그대로 쓴다면

옛날에 바수반두가 늘 한 끼만을 먹고 눕지도 않고 육시(六時)에 예불하며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서 대중의 귀의를 받았는데, 20조 사야다(闍夜多) 존자가 그를 제도하고자 하여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두루 두타행(頭陀行)을 실천하고 범행(梵行)을 잘 닦아서 불도(佛道)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무리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님의 정진(精進)이 이와 같은데 무슨 까닭에 얻지 못하겠습니까?"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스승은 도(道)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설사 무수한 세월 동안 고행(苦行)을 하더라도 모두가 헛됨과 망념됨의 뿌리가 될 뿐이다."

그러자 그 무리들이 분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안색을 바꾸고 성난 목소리로 사야다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존자께서는 어떤 덕을 쌓았기에 우리 스승을 나무라십니까?" 사야다 존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도(道)를 찾지도 않지만 또한 전도(顚倒)되지도 않는다. 나는 부처를 예경(禮敬)하지도 않지만 또한 업신여기지도 않는다. 나는 장좌불와(長坐不臥)하지도 않지만 또한 게으르지도 않다. 나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이것 저것 마구 먹지도 않는다. 나는 족함을 알지도 못하지만 또한 탐욕스럽지도 않다.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는 것을 일컬어 도(道)라고 한다." 바수반두는 이 말을 듣고서 무루지(無漏智)를 일으켰습니다.

"어리석고 꽉 막힌 장로들은 그대에게 고요히 앉아서 부처되기를 기다리라고 가르치니, 이 어찌 헛됨과 망녕됨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또 말하기를 고요한 곳에서는 잃지 않지만 시끄러운 곳에서는 잃는다고 하니 어찌 세간상(世間相)을 부수어 실상(實相)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생에게는 광란(狂亂)이 바로 병이므로 부처가 적정바라밀(寂靜波羅蜜)이라는 약으로써 그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병이 사라졌는데도 약을 그대로 쓴다면, 그러한 병은 더 큰 병입니다. 하나는 집어들고 하나는 놓아버리니 어느 때에 끝마치겠습니까? 생사(生死)의 문제가 도래하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의 양 변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음도 아니고 적음도 아니며, 고요함도 아니고 시끄러움도 아니며, 얻음도 아니고 잃음도 아닌 곳으로 즐겨 나아가, 단순히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주의를 기울여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 철학

마음 공부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하여 주의할 점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은 미리 목표를 정해 놓고 그곳으로 가는 일정한 과정을 밟아가거나 특정한 노력을 쌓아가는 것을 공부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나 과정이나 노력은 전부 분별심으로 헤아려서 둘로 나누고, 의욕을 앞세워 만들고 조작하는 유위(有爲)이기 때문에, 결국 전도된 망상으로 이끌 뿐이다. 아직 마음을 깨닫지 못한 입장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성스럽고 행복하고 위대한 목표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모두 분별망상에서 나온 전도된 견해일 뿐이다.

또 눕지 않고 앉아만 지낸다든지 입을 봉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식사를 줄이고 호흡을 조절한다든지,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히 앉아 있다든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고 홀로 지낸다든지 하는 등의 고행(苦行)은 특정한 병에 대한 일시적 약처방으로 유효한 것일 뿐, 이러한 행위들 역시 유위(有爲)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마음공부라고 착각해서는 안된다. 마음은 지금 있는 이대로 완전하여 병들거나 부족하거나 넘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유위행(有爲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든 유위행은 상(相)을 따라서 둘로 나누어 취하고 버리는 분별심의 소산이다. 마음은 본래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나누어서 취하고 버리는 분별심에 머문다면 이것은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가 바로 본래 마음이요 깨달음이요 부처이므로 달리 해야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본래 마음은 시끄럽거나 고요하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이 모든 경우에 한결같다. 공부인은 이 한결같은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봉인사 위빠사나 여름 수련 일정

"그대는 이 순간에도 깨어 있는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위빠사나 수행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고요히 관찰 할 수 있는 시간에
동참하시어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7월 · 8월 여름수련회 수련일정 ◈

수련내용	날 짜	기 간	회비(원)	지도스님
위빠사나	7월 19일 ~ 22일	3박4일	7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7월 29일 ~ 8월 2일	4박5일	10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8월 23일 ~ 26일	3박4일	7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주 말 수 련	1박2일	20,000	지산스님

▷ 3박4일, 4박5일 : · 입실 - 오후 5시 · 퇴실 - 오후 3시
▷ 주말 수련회 : · 입실 - 오후 4시 · 퇴실 - 오후 3시
(유경험자인 경우 주말 수련회에 참여가능)
▷ 준비물 : 편안한 복장 · 신발 · 세면도구 · 수건 · 필기도구
▷ 연락처 : 031) 574-5585, 529-5585
▷ 참가신청 : 전화로 신청 후 계좌로 입금
(국민은행 277-25-0000-906 · 예금주 : 봉인사)
※ 미리 신청해 주세요.

봉인사 한길정진원

봉인사 어린이 수련회

"신나는 여름 부처님을 찾아요"

수련일자
7월 24일(화) ~ 26일(목) 2박 3일
만나기 - 24일 오후 2시
집으로 돌아가기 - 26일 오후 2시

참 가 비 3만원

수련내용
하나. 부처님 모자이크 (협동정신 키우기)
둘. 발우공양 (깨끗한 음식처리)
셋. 밤하늘 별자리 관찰 (내별은 어디 있을까?)
넷. 신나는 레크레이션
다섯. 아마존 유역을 답사해 볼까?
(코엑스 아크아리움 수족관 답사)
여섯. 찬불가 배워요
일곱. 수련기간 행사 신문 만들기 (보도정신)

어린이 불교성전



아빠와 함께 읽는
부처님의 지혜.
엄마와 함께하는
부처님의 자비.

· 부처님의 생애
· 부처님의 말씀
· 뛰어난 제자들
· 다름어 가꾼 믿음

■ 증명 : 석주 스님 (칠보사 조실)
■ 감수 : 법정 스님 (맑고 향기롭게 회주)
■ 맡아엮은이 : 적경 스님 (봉인사 주지)
■ 가격 : 1만원
■ 보급처 : 각 유명서점

도서출판 한 길 (구 - 단이슬)
Tel : 031-574-5585 Fax : 031-574-0808

이렇게 들었다

11 역사교과서 왜곡

진실 덮으려 하다니

지난 10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시립병원 영안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출신 황옥임(85) 할머니의 영결식이 열렸다. 주위에 위안부 출신인 것을 숨기고 살아온 황 할머니는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서 중풍을 앓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황 할머니에게 이같은 아픔을 남긴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기는커녕, 역사교과서조차 이 문제를 빼버리는 등 후안무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은 〈점수일체지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법부들은 소견이 잘못된 까닭에 사견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직 어리석은 짓만을 생각해 무익(無益)한 일을 구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이 번뇌뿐이어서 은애(恩愛)의 그물만을 구하고, 미혹의 생활을 사모하여 이곳 저곳을 오고가며 노닐고, 삼독을 품었기 때문에 음(婬)·노(怒)·치(痴)의 번뇌가 윤회를 끝없이 반복하게 하며, 남을 원망하여 해치려는 마음을 불꽃같이 일으키므로 그릇된 행위로 죄를 지으며, 온갖 은애와 무명에서 나오는 여러 번뇌를 늘 생각해 마음에 지녀, 그 의식을 결박하고 있으므로 삼계(三界)를 옮아 다니게 마련이니, 그 괴로운 액(厄)과 포악한 행위가 끝없이 오가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잘못을 참회하고 상처를 드러내어 치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실조차 없었던 양 가장하려 드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역사왜곡은, 끝없이 번뇌와 윤회의 반복 끝에 역사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아무리 일본이 진실을 덮으려 발버둥쳐도 역사는 결코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덮어주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35개 항을 들어 수정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이미 일본내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조차 실종돼 버렸다 한다. 오히려 일본 총리의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재수정 거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끝까지 간다'는 강경대응론이다. 우선 4차 대일 문화 개방 연기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조영길 합참의장의 방일취소, 9월 초로 계획됐던 일본 해상자위대 연습함과 호위함의 입항 거부, 다음달 6일 열릴 제 9차 한-일 문화교류 국장급회의 개최연기 등 잇따른 조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제기하고,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군대위안부 문제를 누락시킨 일본을 강하게 규탄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의 질시와 규탄으로 마지못해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보다는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위상을 되찾는 일이 현명한 처신이 아닐까.

이은자 기자

환경 친화적 추모공원 만들라

물자 세상보기

주민들 "화장장 반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
'유치하면 오히려 혜택'
정부 차원 제도 마련



이필도
서울보건대학 장례지도과 교수

최근 들어 화장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잘못된 장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 화장장 시설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가족, 향후 우리 모두의 안식처가 될 추모공원이 혐오시설로 기피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극단적인 유치반대운동이 반복되고 있다.

화장장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침해나 환경오염, 교통혼잡, 생활불편의 야기 등 경제적 이유와 정서적 측면에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데 기인한다. 화장장 설치 반대는 어떤 특정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만 탓할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잠재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장례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한, 화장장이 지역사회의 필요한 주민친화적 추모공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화장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편익시설인 추모공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어떻게 화장장을 지역내 편익시설인 추모공원으로 인식되도록 국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겠는가. 먼저 추모공원이 현대화된 환경친화적인 시설임을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추모공원은 시설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지나친 우려감이 불식되도록 충분한 자료를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 입장에서 시설설치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도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는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추모공원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것보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요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현대화된 추모공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주변 부지이용 계획,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피해와 혜택 등의 정보공개와 아울러 사후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로 인해 추모공원 설치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추모시설은 그 지역내 지역개발정책과의 연계하여 지역내 공공시설의 정비나 지역기반시설의 설치계획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추모공원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와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종교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주민의 반발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제 바람직한 장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를 탓하기 보다 내가 먼저, 내 지역이 앞장서서, 그리고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지역내 설치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자세와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사회적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람직한 추모공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시설설치 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해인사 대불' 소란의 교훈 자못 크다

특별기고

김병규
(문화일보 前 편집국장)



해인사 '세계 최대' 청동좌불 조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불교계 안팎에 남긴 교훈은 자못 크다. 무엇보다 해인사와 실상사의 스님들은 우리들에게 '원한을 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원한은 오직 참음으로써만 이 해결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참음으로써만
원망 해결된다'
진리 배웠다

이번 사태 초기 온 국민이 우려한 것은 과거처럼 '원한을 힘으로 갚지 (보원이력 報怨以力)'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지난날 종권 쟁취를 둘러싼 조계종 폭력사태처럼 원한을 힘으로 해결하려는 데서 나타난 악순환이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실상사 대중이 '21일 단식기도 정진'을 시작하며 낸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 원망은 해결된다" 면서 도법, 연관, 수경 스님 등 6명이 참회단식기도에 들어가고, 해인사에서도 전 대중이 21일부터 1주일간 참회 철야용맹정진에 들어가기로 한 것은 온 국민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용단이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내 소멸되지 않는다. 오죠 '참음으로써 원한의 마음을 쉰다(행인득식원 行忍得息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양측의 이 같은 참회 노력은 사태를 진정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둘째, 흔히 말하는 상생(相生)의 이상적 형태를 스님들이 몸소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잠재우는 전기가 마련됐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상생'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대방에 대한 원한, 숙감(宿感)등을 먼저 없애야 한다. 그 다음엔 서로가 화합하고 어울리게 하는 상화(相和)의 인자를 찾아야 한다. 또 미흡하고 못마땅한 점도 포용하면서 서로가 의지하려는 상경(相傾)의 자세와 서로가 믿고 따르겠다는 상수(相隨)의 정신이 필요하다. 비록 자운, 성철 스님의 암묵적 가르침에 대한 해석과 회향 방법은 다를망정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상성(相成)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셋째, 승단에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설득력있게 보여준 점이다. 민주주의 방식의 확산이다. 이번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돋보인 장면 중 하나였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이 점이 사태를 신속하게 매듭짓게 한 커다란 요인중 하나일 것이다.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결의를 통해 조계종의 최대 고질적 병폐로 여겨지고 있는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스님들의 이번 결의는 1천6백년 한국 불교사의 새로운 장면이었다.

넷째, 해인사 측은 청동좌불 건립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규모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일각에서 떠도는 오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번 세계최대 청동좌불 건립 시주자

해인사-실상사
참회 용맹정진
감동스런 용단

중에는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다는 루머가 있었다. 해인사 청동좌불 건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크게 보도한 뉴욕타임스(지난 6일자)는 "4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불건립 비용은 신도들이 익명으로 기부해 조성되지만, 거액 기부자중엔 주요 정치인들도 포함돼 있다" 고 보도, 이같은 오해를 증폭시켰다. 이 문제에 대해 해인사측은 뉴욕타임스에 강력 항의하는 한편 조계종과 함께 법률적으로 대응키고 했다고 한다. 이같은 오해가 더이상 국내 외에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인사뿐 아니라 가야산 전체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안식처이며 마음의 영산으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당부하고 싶다.

다섯째, 이번 소란을 통해 대부분의 불자와 국민이 바라는 불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돼야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나마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이젠 외형적 크기를 경쟁하는 불사보다는 내용과 깊이가 동시에 담긴 불사를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았다. 시체말로 하자면 하드웨어적인 불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불사를 더 많이 바라고 있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모두가 함께 확인했다. 법당, 불상, 범종 등을 크고 화려하게, 또 보기만 해도 신심이 우러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시대에 보다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스님들의 노후대책, 종합병원 등과 같은 복지부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 대책없이 눈요기 거리의 불사에만 열중할 경우 한국불교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불사를 추진하되 친환경적이어야 함이 포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요즘 승가와 그 주변에선 묵언이 요구되는 계절이다.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자에게 묵언은 필수다. 그러나 사바세계에 몸을 맡긴 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한 묵언만이 최상일 수는 없다. 1천6백여 년의 긴 한국불교사에서 보면 피차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 순간 시끄러웠던 이번 일을 역사 속으로 영원히 묻어버리자. 툭하면 난무하는 폭력성, 항상 잠재돼 있으면서 공격자세를 취하고 있는 분노, 증오와 함께 영원히 소멸시켜 버리자.

일찍이 원효 스님은 '크다'는 의미의 '대(大)'엔 6가지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첫째, '광(廣)', 한량없이, 경계선이 없을 정도로 '넓다'는 뜻이다. 둘째, '고(高)', 위없이, 높이의 끝이 없이 '높다'는 의미다. 셋째, 장(長), 끝없이 길다는

불사 추진 어떻게
불자와 국민 바람
재확인 기회

뜻. 넷째, 심(深), 밑 닿는데 없이 깊다는 의미, 밑바닥이 없을 정도로 깊다는 말이다. 다섯째, 다(多), 한없이 많다는 뜻이다. 셀 수도, 끌어안을 수도 없이 많다는 의미다. 끝으로 승(勝), 그 어느 것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다. 그 이상 더 좋고 뛰어난 것이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는 의미다. 〈원각경〉에 나오는 대(大)를 스님께선 이같이 해석, 가르치고 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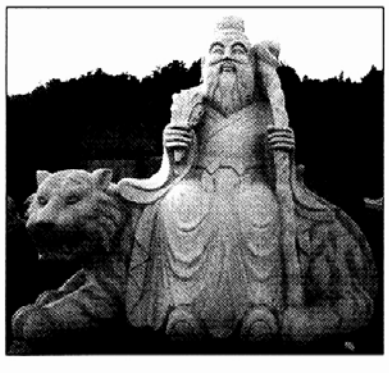
조그만 불사, 공(空)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사에서 벗어나자.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큰 나라, 큰 절, 큰 스님, 큰 백성, 큰 불자가 되도록 공부 많이 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자. 출세간은 물론 세간에 있는 사람들도 큰 것을 향해 크게 보고 크게 행동하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

진성석재 예술원



최고의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진성석재 예술원'은
모든 작품들을 오직 불심으로 제작하여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옥에관한 문의를 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청옥, 황옥, 백옥)
※ 순옥 조각제품 주문 제작 환영 ※

▶ 대한민국 석공예 초대 명장


청 옥

백 옥

황 옥

장수거북(청옥·화옥)

단주 · 108염주 · 합장주

두꺼비(청옥·화옥)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용정리 155-2
(대표 : 이진억 명장 : 이석규)
■ TEL : 031-527-6778 (팩스겸용)
■ H P : 011-9046-6981
■ e-mail : LJU729@hanmail.net

사·부·대·중

복권 만능주의



이귀인
한국석불선양회 회장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간접세에 편중돼 있어 중산층 이하의 국민이 부유층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빈부격차의 골을 깊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영세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복권발행에 혈안이 되어있다. 주택복권 · 월드컵복권 · 기술복권 · 즉석복권 · 인터넷복권 등 복권왕국(?)이 되어버렸다.

복권의 단골고객은 버스정류장 · 지하철역 등에서 쌈지돈을 헐어서 복권을 사 당첨되기를 빌어보는 중산층 이하의 민초들이다.

당국은 1등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제시해 놓고 당첨확률 · 당첨금은 복권발행액의 약40~50%라고 홍보하고 있다. 한마디로 바람을 넣고 있는데 복권에는 곳곳에 함정과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자꾸 복권을 사다보면 적은 지출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열심히 노력하기보다는 행운과 요행을 갈구하게 된다. 또한 복권 운영상 소액 당첨금(당첨금 1만원 이하)이 전체 당첨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소액 당첨자 대부분은 당첨금을 현금으로 찾지 않고 다음 번 복권으로 바꿔치기를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꽝이 되고 만다. 당국은 복권발행으로 주택을 짓고 운동장을 건설하였다고 자랑할 지 모르지만, 복권의 수요가 중산층 이하의 국민이라고 볼때 이러한 사행심 조장행위는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영수증 주고받기 · 신용카드 매출시에 번호를 부여하고 추첨하여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권장할 만 하다. 왜냐하면 상거래 질서 확립 · 신용사회 정착으로 투명하게 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납세자에게 포상의 명목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되고, 조세정책 발전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요행을 좇는 무리가 되지 말고 백장회해선사의 가르침인 '一日不作, 一日不食'을 실천덕목으로 받아들여 생활과 수행을 동시에 겸비하는 근면 성실한 불자로 거듭나자.

목탁소리

허술한 수탁시설 관리

오 종 욱 (취재1부 기자)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주지 일면)와 수탁시설인 딸기원어린이집 前 원장 박경주 씨의 갈등은, 불교계의 허술한 시설 관리나 미숙한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봉선사 총무국장 선우 스님 등이 4월 9일 딸기원어린이집을 방문해 실사를 벌인 후 박 씨와 보육교사 등에게 일괄사표를 요구한 데 이어, 5월 12일 자로 박 씨를 해임한 데서 양측의 공방이 노골화 됐다.

봉선사는 해임통고서에서 "박 씨가 원아 모집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재정 흐름 역시 투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성급한 해고'라는 지적이 있다. 박 씨가 40여 명 정원의 딸기원어린이집을 4년 넘게 운영하며 예 · 결산을 전담했고 구리시청으로부터 매 분기별 680여 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온만큼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딸기원어린이집을 수탁한 주체는 봉선사인데, 지난 4년간 어린이집 관련 통장을 박 씨가 관리하게 된 과정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고 조치로 딸기원어린이집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보다는 봉선사의 "적법한 인사조치", 박 씨의 "부당한 해고"라는 공방만이 두드러지고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교계 일각에서도 "해임 통보에 앞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임 사유의 적법성은 물론 합법적인 과정을 밟았어야 이번 갈등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딸기원어린이집 사태를 거울로 삼아 보육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나 불교단체는 수를 늘리기보다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계중 中信會 토론회

'불사문화 점검과 방향'

논란을 빚고 있는 해인사 청동대불 조성과 관련, 현행 불사문화의 점검과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최로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철승(한국종교문화연구원 연구위원)씨와 이평래 교수(충남대 철학)가 '불사 단상(斷想)'과 '바람직한 불사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으며,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백남석 인드라망 집행위원장, 김동흔 경불련 운영위원장, 최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현행 불사문화가 조형물이나 건축물을 조성하는 외형적인 불사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교육 복지 문화 등 내적 불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는 정작 불사의 주체가 되는 스님들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다. 발제 및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참불사 교화설법과 수행"

발제 I : 불사 단상(斷想)



진철승 〈종교문화硏 연구위원〉

불사의 본래 의미는 교화설법과 수행이다. 한국불교사에서 최근처럼 대형불사가 난립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대형불사를 제도적으로 규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우선 총무원 문화부 소속으로 성보보존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고, 설령 활동을 하더라도 불사를 규제하거나 혹은 지원할 아무런 힘이 없다. 둘째로 불사를 하더라도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단 내의 논의나 협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셋째, 정작 필요한 불사가 있더라도 종단은 공식적으로 지원할 기금이 없다. 그러다보니 주지 스님이 자기 신도로부터 확보한 대형불사 자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이밖에 불사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나 사업체와의 관계, 국가예산의 활용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해인사 청동대불을 조성하겠다는 기본적인 의도는 순수하고 목적도 합당한 듯하나, 여러 반대자들의 의견 또한 다양하고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해인사는 팔만대장경과 판전을 모신 법보종찰이다. 그로써 족하며 굳이 수행도량에 수많은 신자들이 몰려와 공부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청동대불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법보종찰에서 해야 할 가장 큰 불사는 대장경의 보존과 그 속에 깃든 부처님 말씀의 홍포이기 때문이다. 대장경 전산화, 역경, 영역(英譯), 이를 위한 인재양성과 스님교육이 더 시급한 과제다. 해인사도 그렇지만 모든 사찰이 불사시 사찰환경기본계획서부터 마련해야 한다.

"재가자 佛事觀 인식전환"

발제 II : 바람직한 불사방향



이평래 〈충남대 철학과 교수〉

불사의 개념은 시대에 맞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불사는 어떤 개념인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불사의 의미는 거의 모두가 조성 · 건축 · 주조를 의미한다. 물론 사원을 건립하는 것 자체나 오래된 불교문화유산을 보수하는 일들이 포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가시적인 결과물보다 더 필요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방법이 갖춰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불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인터넷이나 TV, 라디오 방송에서 신선하면서도 재치 넘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포교하는 것도 필요하고,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 널리 모범이 됨으로써 민중으로부터 신로를 받는 수행풍토를 진작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는 것이나, 병들고 가난하고 버려진 이웃을 위해 쉼터를 건립하는 일도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사부대중에 의한 사찰의 공동경영과 재정 공개, 관혼상제 등 통과의례를 제정하는 문제나, 세계를 불교화(佛敎化) 하기 위한 노력 등 지금 한국불교계가 해야 할 불사는 너무나도 많다.

새로운 개념의 불사가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불사에 대한 그릇된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출가자 뿐만 아니라 재가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불교라는 상징성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불교를 융통성있게 하는 일은 불사의 개념을 바로 잡고 자비행을 펼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람직한 불사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11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렸다.

토 론

"불사 공개심의 필요"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수행과 교화만으로 종교가 존재할 수는 없다. 위대한 건축물과 불상도 존재해야 한다. 옛 문화재를 보면 문화재 자체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포교의 결정체임을 누구나 알 것이다. 다만 그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사를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찰운영위원회만이 아니라 중앙기관의 결의도 거치도록 하고, 공개적이고 전문가적인 과정이 확보돼야 한다. 불사문화가 불교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해인사 대불 조성 논란을 값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복지 등 보살행 불사" 백남석 〈인드라망 집행위원장〉



사찰에서 교육이나 복지사업을 하려고 하면 신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런데 불상을 조성한다면 너도나도 앞장선다. 이러다보니 사찰도 필요한 불사를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작복(作福)보다는 기복(祈福)에 근거한 불사가 더 많다는 얘기다. 더구나 계율을 잘 지키고 포교에 열심인 스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불사를 했느냐를 스님 평가 잣대로 삼고 있다. 불사문화가 왜곡된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불자들도 조성불사에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인권 복지 교육 등 보살행 위주의 불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스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외형위주 우상 일뿐" 김동흔 〈경불련 운영위원장〉



현재의 대형불사 문화는 근본적으로 불교와 물질적 상관관계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교는 절제를 강조하고 욕망극복을 가르치는데, 그런 점에서 대형불사는 불교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때 대형불사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앞으로의 불사는 자비행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심에서 건물을 지어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복지사업 등 사회공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불사를 해야 한다. 외형 위주의 불사는 단지 우상일 뿐이다.

"신도의견 충분 반영" 최 연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불사를 해나가기까지의 절차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까지의 불사는 대부분이 주지스님과 조성업자 등 일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져 왔다. 신도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그런 노력 자체도 없었다. 불사와 관련해서는 사찰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뿐만 아니라 종단 기구인 성보보존위원회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의 불사는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충실히 이행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2001년 대원불교대학 후학기(後學期) 입학안내

■ **강의시간** 8월 27일 개강 주 3일 출석(5과목 강의), 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일운스님(무형문화재 범패전수자)
■ **조빙교수** 월운스님, 권기종(동국대), 정병조(동국대)
■ **교육과목**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우리말불교의식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 (편입생에 한함)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편입학은 2학년 과정으로 입학
· 불교학 통신 00명			
· 불교학 편입 00명	· 타 불교대학 과정 졸업자		

■ **원서교부 및 접수** 2001년 8월 17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제 3 회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

1. 취지
· 불교음악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한 포교사업으로 창작찬불가를 공모하여 의욕있는 불교음악인을 발굴하고자 창작찬불가를 공모함

2. 행사내용
· 불교적인 정서가 함축적으로 표현되고 밝고 즐겁게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

3. 참가요령
· 1인 2곡까지 응모가능 하며 응모작품은 가사가 적힌 멜로디악보 1부, 카세트테잎 제출
· 작품속에는 작사,작곡자의 성명을 비롯한 악보외의 표식은 하지말것
· 신청서는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배부

4. 진행과정
· 작품접수 : 2001년 10월4일 ~ 10월20일까지 (16일간)
· 본선진출자통보 : 2001년 10월 31일 (개별통보 및 종단홈페이지에 게시)
· 본선경연대회일자 : 2001년 12월1일
· 심사위원 : 불교음악의 권위자로 본선당일 발표 (예선심사 : 악보/테잎심사 본선심사 : 경연대회)

5. 시상내역
· 대상 1곡(상장,상패,상금300만원), 우수상 1곡(상장,상패,상금100만원),
장려상 2곡(상장,상패,상금50만원), 아름다운 노래말상 1곡(상장,상패,상금50만원), 입선 5곡(상장)

6. 참고사항
· 기타 공모대회 내용은 공모요강을 반드시 참조할 것.
· 제3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세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제 3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 운영위원회
전화 02-739-1830 인터넷 : www.buddhism.or.kr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⑰

다시 '회향'이란 말을 풀어보자. 청량소에서 "회(廻)란 '돌린다, 굴린다'의 뜻이요 향(向)이란 '나아간다, 향한다'의 뜻이니, 넓게는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베푼다(廻自向他) 2. 적은 것을 많은 데로 향하게 한다(廻少向多) 3. 자신의 수행을 남의 수행으로 향하게 한다(廻自因行 向他因行) 4. 중생의 수행을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향하게 한다(廻因向果) 5. 열등함을 훌륭하게 한다(廻劣向勝) 6.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향한다(廻比向證) 7. 현상적인 것을 이치적인 것으로 향하게 한다(廻事向理) 8. 차별문을 원융문으로 수행하게 한다(廻差別行 向圓融行) 9.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향하게 한다(廻世向出世) 10. 도리에만 머물던 이치적인 수행을 현상적으로 성취로 향하게 한다(廻順理事行 向理所成事)"는 등이다.

화엄에서 회향의 의미는 십지 수행에 앞서서 행하는 삼현보살(십주 십행 십회향위의 수행자)의 공덕 쌓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리라. 그래서 6번째 수순견고일체선근회향(隨順堅固一切善根廻向)에서 60종의 보시공덕으로 그 절정을 이룬다.

"…그 때 보살이 옥주(獄主)에게 말하기를 '내가 몸을 버려서 저의 목숨을 대신하려 하노니, 내가 만일 저 사람이 사형 받을 것을 보고도 생명을 버려서 대신 받지 않으면, 보살심에 머문 이라고 할 수 없나니, 왜냐하면 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기 위하여 온갖 지혜에 나아가 보리심을 발한 연고니라.'"

온갖 것으로 보시하는 공덕에 자신의 모든 재물, 왕위 등 모든 소유물, 심지어는 신체의 장기에 이르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보시에 대해 결론내린 장항을 보자. "불법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비(大悲)로 모든 중생을 구호하여 크게 인자한 데 머물러 보살의 행을 닦게 하며 부처님의 가르친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교묘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수행하여 부처님들의 종성(種姓)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하는 대로 보시하되 싫어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것을 버리면서도 중간에 후회하는 일이 없으며, 온갖 지혜의 길로 부지런히 회향하느니라."

"마음은 모든 업을 분별치 않고 업 지어 과 받는데 물들지 않고 보리 성품 인연으로 생김을 알아 법계에 들어가서 어기지 않네 / 지나간 법 허망하게 취하지 않고 미래 일도 탐내지 아니하오며 현재에 머물지도 아니하나니 삼(三)세가 공한 줄을 통달하였네."

여기서 소개된 두번째 게송은 〈대혜서장〉의 답루추밀장(答樓樞密狀)에 소개된 바 있다. "문을 닫아걸고 벽관하는 가풍을 잇는다 하니 이는 참으로 마음공부하는 좋은 약이로다. 마음을 쉬고 나서는 지나간 일에 좋거나 나쁘거나 모두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일에도 살피고 또 살펴서 한 칼에 두 조각을 내어 지체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면 본래의 일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여기서 대혜선사(1089~1163)는, 단지 조주무자(趙州無字) 화두만을 생각할 일이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각을 비우고, 홀연히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이르러 이 한 생각마저 깨뜨려 버리면 단박에 삼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가르치신다.

불교에서 보살의 회향이란 처음 발심할 때부터 함께 하여야 정각을 이룬 후에 중생에게 널리 베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첫 발심과 구경성불이 다르지 않건만 이 가운데 첫 발심이 더욱 어려워, 자기 제도 못하고도 남을 제도해 그러므로 첫 발심께 예배합니다"라고 한 것이리라. 앞의 10가지 회향의 정신에 비추어 이해하도록 하자.

▩봉선사 능엄학림 연구원

성불보다 더 어려운 첫 발심

모든 생각 비워 삼세가 空함을 통달했네



그림 · 문병성

인연 모이면 물질 흩어지면 공간

불교와 과학 〈36〉

바람 바람
바람은 서 있는 놈이 없으면
바람도 아니야

이 시는 우리 시대 생명사상의 스승이셨던 故 무위당(无爲堂) 장일순 선생의 화폭 안에 바람에 흔들리는 난초와 함께 쓰여진 글그림이다. 그 짧은 시구 안에서 우리는 광대한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고뇌를 엿보게 된다.

인생은 고뇌라고 한다. 그러나 고뇌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어디에 불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된다. 고뇌에 빠져 허우적거리거나 겨우 고뇌를 깨쳐 가는 가운데 비로소 삶의 흔적을 알게 된다. 그 사람 앞을 가로질러 흘러가는 강물이 아예 없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급류의 저 강을 건너야만 하는 그의 절실함도 없었을 것 같다. 해와 달의 지고 뜸이 없다면, 늙음과 태어남이 없다면 시간의 변화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변화 그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할 것이다. 구름과 천둥, 번개가 없다면 하늘이 무슨 필요가 있을지, 하늘이 무엇일까라는 호기심도 없었을 것이다. 달빛과 별빛이 있어서 밤이 있고, 어둠과 무서움이 있어서, 어렸을 적 그런 밤이 무서워 군밤 까먹으며 도깨비 귀신 이야기에 이부자리 소동도 일어났다.

모진 바람 앞에 서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뺨이 갈라지는 아픔이 있었기에 비로소 바람의 존재가 다가온다. 세상살이 또한 번뇌와 갈등이 아예 없었다면 그것을 깨닫거나 깨우칠 일도 없게 된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일상사 속에서 "아 그거였구나!"하는 느낌이 올 때는 이미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가 많았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생활 속의 작은 깨우침도 없었을 것이다. 지나가는 젊은 여인을 보고 겨우 눌러 놓은 색정과 숨겨진 하찮은 물욕이 불끈 뛰쳐나오려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과 좌절을 할게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깨달음과 깨우침으로 가려는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면 더 좋겠다. 그래서 원래 깨달음을 가진 이보다 깨달음의 길을 나서야겠다는 서원의 깨달음을 갖는 이가 더 아름다운 구도자일 수 있다. 비록 완전한 깨달음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달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말이다.

공간과 물질

과 학 물체 부피만큼 공간 생겨

불 교 공간 · 물질의 근본은 하나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물체들이 없다면 공간의 존재와 의미를 알 수 없다. 자연과학에서 공간은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즉 첨학용어로는 연장성(延長性)으로 설명가능하다. 자연히 연장성을 지니는 물체가 없다면 공간도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칸트는 공간을 물체의 경험적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선천적인 순수 직관의 영역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공간의 직관성은 물체가 없으면 그 의미도 사라진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공간과 물체의 상관성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그 상관성의 기본은 물체가 있을 경우에만 중력을 낳는 공간의 존재의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과학이나 서구철학에서 공간과 물체는 여전히 서로 다른 두 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람은 그 바람을 맞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바람일 수 있다. 공간은 물체가 있어서 공간일 수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바람과 서 있는 사람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일이 먼저이다. 마찬가지로 공간과 물체가 둘이 아니다. 물체는 극미의 물질 원천들이 모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원리는 바로 인연의 끈이다. 서로 다른 인연에 따라 동일한 물질 원천들이 다른 물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윤회의 사슬이 이어지니, 각양의 물체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 같은 하나이다. 질적으로 동일한 물질 원천들이 모이면 각양의 물체가 되고 흩어지면 공간이 될 뿐이다. 그래서 공간과 물체는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저기 언덕 위에 한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그 소나무는 소나무이지만 그 소나무를 물질 원천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 나눠진 것을 다시 불성(佛性)의 인연을 통해서 법신(法身)으로 재구성 할 수 있다면 그 소나무는 곧 법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추론은 이미 기신론(起信論)에서 설파되었고 반야의 진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논리를 떠나서 이러한 변화의 깨달음 혹은 무상의 깨달음이야말로 바로 일상사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서 말한 색정과 물욕 역시 무조건 버리고자만 한다면 계속 따라 붙을 뿐이니, 고뇌 없는 깨우침은 없으며, 시행착오 없는 구도는 없을 것 같다. 석존의 깨달음을 거울로 삼아도 좋을 듯하다. 한낱 시름에 지나지 않는 욕정에 빠짐과 벗어남이 하나라는 세간의 인연 구조를 알 수 있다면 삶의 깨우침으로 가는 길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dchoi@chiak.sangji.ac.kr

성당 불교작품 놓고 종교-미술계 입씨름

지구촌 불교 / 美 성당 전시회 논란

미국 뉴욕에서 6월 17일 시작된 성(聖) 존(John) 대성당의 전시회를 놓고 미국 예술계와 종교계 사이에 논쟁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논쟁은 '영혼의 경계(A Threshold of Spirit)'라는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 성 존 대성당측이 지난 1일 전시 작품 중의 한 점을 강제 철거한 것에서 비롯됐다.

철거된 작품은 미국의 대표적인 설치미술가 알린 쉬쳇(Arlene Shechet)의 '무제'. 알린의 작품은 청동으로 만든 가는 줄을 엮어 석탑의 기단을 닮은 구조물을 만들고, 그 위에 사찰 모양의 건물을 세우고, 다시 범어를 연상시키는 문양을 수놓은 모양이다.

이번 논쟁을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기획전에 앞서 알린의 작품을 처음 본 성 존 대성당측은 "다른 종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알린 스스로 작품을 수정해 다시 출품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알린 쉬쳇의 연작 '부처님'.

그러나 알린은 "성 존 대성당의 권위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다. 이 작품은 당초 계획대로 대성당 1층 중앙 로비에 전시돼야 한다"며 전시를 강행했고, 결국 성 존 대성당측이 1일 작품을 강제 철거시킨 것이다.

대성당 "기독교인 명예 훼손"

미술인 "예술인 상상력 제동"

성 존 대성당측은 작품 철거에 앞서 "성 존 대성당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니다. 세례 의식이 진행되는 이 곳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영광을 찾고 싶다. 따라서 알린의 작품은 전시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번 기획전에 작품을 출품한 11명의 다른 예술가들은 "알린의 작품 성향이 불교미술에 가깝다는 것은 대성당측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11명의 작가 중에는 도날드 맥피트(화가), 안드레 시라노(사진작가)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미국 미술비평계는 "종이나 청동을 재료로 연출한 조형물의 형태, 또 그것을 놓는 방법 등에서 불교미술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해 왔다. 2년 전부터 알린이 내놓고 있는 '부처'나 '기도' 등의 연작에서는 이 같은 평가를 실감할 수 있다.

성 존 대성당의 '영혼의 경계' 전(展)을 총괄한 큐레이터 피터 네기는 "성당은 매우 민감한 장소이긴 하지만 예술가의 상상력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알린의 작품을 포함해 이 곳에 전시된 작품들은 성당의 상징성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존 대성당은 1892년 뉴욕 맨해튼에 세워진 침례교 계통의 유서 깊은 대성당으로, 종교예술 관련 학술대회와 전시회의 전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회는 8월 26일까지 계속되며, 뉴욕타임스는 알린의 작품 전시 여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4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구중구보(2개월 150만원), 유황간장(2개월 50만원), 유황된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10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1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제조 총판 의료법인 효성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김 시 연 합장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효성양방한방병원 (052)254-2600 (011)545-550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솔선식(松仙食)」,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53-655-3027) 최 청정심 올림

인도차이나반도 내륙국가인 라오스(LAOS)는 14세기 란쌍 왕조시대 캄보디아로부터 전래된 상좌부 불교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조계종 남방불교 탐방단(단장 원택스님, 총무부장)은 2일부터 8일까지 수도 비엔티엔과 고도 루앙프라방의 사찰과 수행현장, 유적을 중심으로 현장을 둘러봤다. 탐방단은 라오스불교협회 회장 빗칫(vichit)스님 등 관계자들과 만나 한국-라오스 불교교류방안도 모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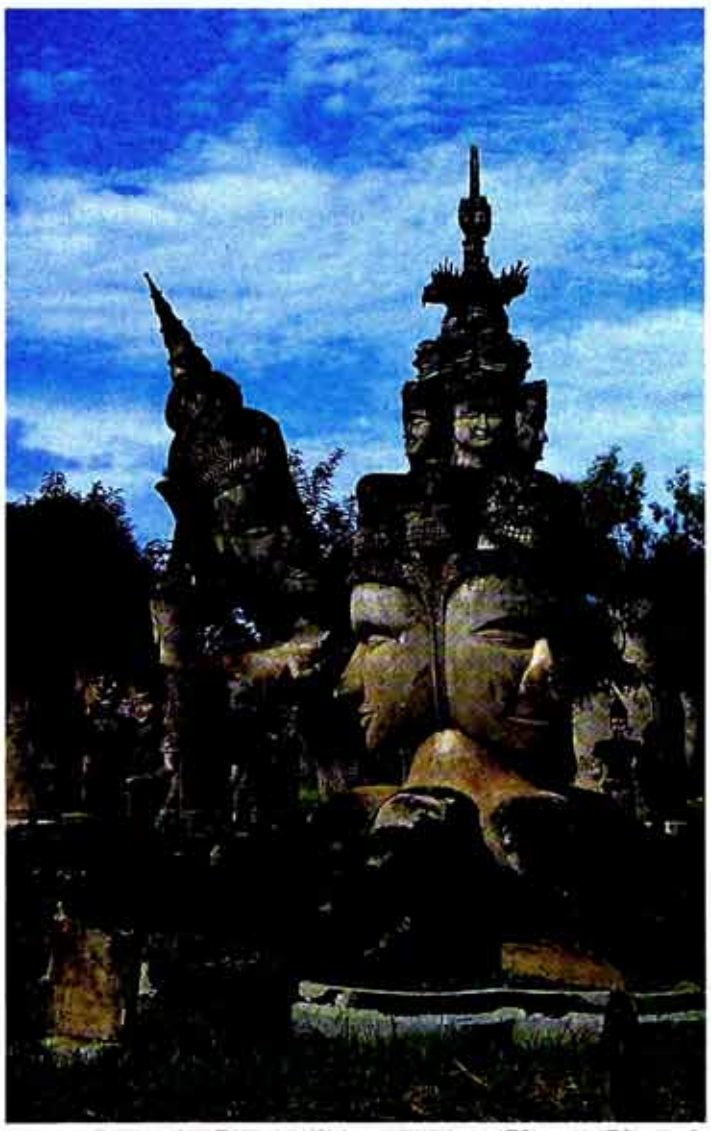
◇아침 5시30분이 되면 라오스 스님들은 탁발에 나선다. 이 른아침 마을 불자들이 공양물을 가져와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모습.



◇루앙프라방 비슨사원에 단기출가(시마네라)하는 불자들이 가족과 친지, 마을주민들의 축복속에 출가의식을 하고 있다. 단기 출가자들은 흰옷을 걸치고 법당에 들어와 부처님께 향 · 초 헌화를 하고 가사를 상단에 올린뒤 가족과 함께 경전을 독경하며 불심을 다진다.

조계종 라오스불교 탐방단 '동참기'

신도들 주지 추천 교단 운영 '한 축'



◇1958년 독실한 불자였던 루앙푸가 조성한 수도 비엔터엔의 <부다공원>. <부다공원>에는 총 500기에 달하는 불상과 현세, 극락, 지옥을 형상화한 팜킨트리가 있다. 사진은 <부다공원> 대표적 상징물인 와불과 4면불(앞).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4면이 육지로 갇혀있는 라오스. 면적은 236,888㎢로 남한의 3배가 넘으나 인구는 5백만으로 10분의 1에 불과한 나라다. 인구의 95%가 불교신도로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라오스에는 3000여개의 사찰에 2만여 명의 스님이 상주하고 있다.

도시전체가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도 루앙프라방을 방문한 5일은 라오스 스님들이 3개월간의 안거에 들어가는 날이었다. 이날 아침 5시부터 사찰 앞에는 신도들이 모여들어 탁발하는 스님들에게 정성들인 공양을 올렸다.

라오스 달력에 의해 음력 7월 5일 입재에 들어가는 안거는 우기인 3개월 동안 이어진다. 안거 중에는 가족과 친지의 죽음이 있을 경우 큰스님의 허락을 맡아 외부에 나갈 수 있을 뿐, 사사로운 출입이 금지된다고 한다.

라오스 내에서 스님들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출가를 제외하고, 누구나 정식 스님이 될 수 없다. 스님이 되려면 지방행정기관과 라오인민청년동맹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가족 중 출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다단히 명예롭게 생각한다. 사찰에서도 새로운 출가자가 생기면 대나무에 긴 종이 연을 매단 풍을 세워 축하한다.

라오스에는 각 마을마다 라오인 들의 주된 생활과 교육 문화공간인 사찰이 있다. 일정한 건축양식이 없는 라오스 사찰은 대개 대웅전을 중심으로 탑과 전통가옥양식인 요사가 일렬로 배치돼 있다. 불두에는 수행의 상징인 육계가 탑처럼 높게 솟아 있고, 수인은 선정인 또는 시무외인이 대부분이다.

라오인 들은 사찰에서 스님들에게 국어 수학 역사 지리 등의 과목을 불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교육을 받고, 결혼적령기인 20세 이전에 절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사마네라'라고 하는 단기 출가제도를 전통적으로 거친다. 3개월에서 팔계는 1주일정도 단기출가를 하는데, 단기 출가할 때는 가족과 친인척 마을사람들이 모여 축복해 준다. 여기서, 일생을 통해서 실천해야 할 생활습관과 가치관을 습득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상적 영향보다도 불교적 전통을 유지하는 요인이 된다.

인구 중 95% 불자
사찰은 문화-교육 공간
3천 사찰-2만 스님
가족중 스님 '명예'

라오스 스님 일과

04:00	기상하여 예불
05:30	탁발
07:00	아침공양
08:00	위빠싸나 수행
11:00	점심공양
13:00	신도집 방문 축원
16:00	마을법회
18:00	명상
20:00	자유시간
22:00	취침

라오스불교가 1975년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 과정에서도 불교국가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계승하고 전통의 뿌리를 잃지 않는 것은 라오불교협회와 라오신도들의 단합에서 나왔다.

라오스공산정권이 들어서며 20년간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다(?)'는 이유로 불교계에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하지만 공산주의 이념도 불교를 약화시키지는 못했고 라오스정부는 결국 종교를 인정하는 라오스식 공산주의로 바꾸어야 했다.

한국의 종단격인 라오불교협회는 라오스 불교계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다. 협회는 18개도의 지역별 협회가 조직돼 있고, 지역조직이 모여 중앙의 라오불교협회를 이끄는 체계적인 조직을 형성한다. 라오불교협회 산하에는 판따돌라부(교육담당)와 위빠싸나부(수행담당)가 있다.

라오스 승가대학

4년제 학사관리 엄격



라오스 승가대학은 수도인 비엔티엔의 동뜨사원에 있다. 라오스 승가대학(사진)은 라오스불교를 움직이는 엘리트 승려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1년 예비과정, 3년 정규과정 총 4년제이다. 1년 예비과정은 300명, 2~4년은 200여명이며 교수는 10명이 봉직하고 있다. 학인들은 경, 율, 론 3장을 기본으로 공부하고, 학과는 학년 당 2개과로 영어, 불어 등 어문과인 악손사와 수학 과학 등 이과인 쿠사로 나뉜다.

라오스 승가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사찰에서 추천을 받아, 각 지역 불교협회에서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서 300명을 선발하여 1년 예비과정에 입학한다. 1년 예비과정을 통해 60명을 선발하고, 이들이 2~4년의 정규과정을 거쳐 졸업하게 된다.

캄삐엔교수(심리학 전공)는 "1971년 승가교육 강화를 위해 대학이 설립됐다"며 "학승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라오스불교협회의 기둥이 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라오불교협회 회장 빗칫스님이 한국-라오스 불교 교류 협력을 다짐했다.

라오스 불교협회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여, 벽촌에 있는 절의 봄사나, 수도승을 선출하는 데도 연합회의 승인이 필요할 정도다.

절에서는 왼쪽 어깨에 루트(하얀 천)를 두르는 것으로 스님에게 제자의 예를 표하는 라오스 신도들은 사찰의 평생소임인 주지임명 추천권한, 사찰의 운영과 재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등 교단의 한축을 형성한다. 라오스 불교가 종교를 인정치 않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국가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잃지 않았던 것은 신도들이 평소 존경하는 스님을 주지로 협회에 추천하는 권한 등 투철한 신심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오불교협회 회장 빗칫스님은 "협회는 4분야를 담당한다"며 "첫째는 출가여부 결정, 둘째는 교육, 셋째는 수행과 실천, 넷째는 사찰의 보수 및 신축이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국불자들이 처음으로 라오스 불교계를 방문해 줘 고맙게 생각하며, 교환방문을 시작으로 한국-라오스 불교의 교류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상호교환방문이나 의료보건, 복지 분야 등에 있어서 라오스 불교와의 교류 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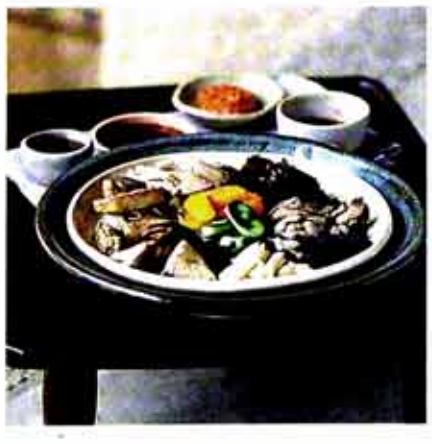
글=김원우 기자 wakim@buddhap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a.com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버섯 모듬회



고려 고종 19년(1232),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의 일이다. 강화도에서 제작된 팔만대장경은 뱃길로 부산포를 거쳐 합천 해인사로 옮겨졌다.

부처님의 법만이 어지러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민심은 대장경의 운반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로 받아들였다. 〈고려사〉에 따르면 이 장경의 운반을 위해 스님들이 모였다. 대장경을 옮길 때는 땅 위에 내려놓아도 안 되고, 등에 져도 안 되었다. 오직 머리에 인 채로 100여 리의 험준한 산길을 올라가야 했으니 그 고충은 형언할 길이 없었다. 쉴새없이 독경을 하며 움직이는 스님들의 발가락은 헤어진 짚신 사이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어느덧 석양이 물들었건만 가야산의 모습은 좀처럼 가까워지질 않았다. 앞장선 스님들이 지름길을 찾다가 그만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리하여 조심스레 길을 찾는데, 발밑에서 하얀 버섯이 피어올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에 밟혔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부릅튼 발의 고통이 버섯을 밟는 순간 가시지 않는가. 하도 신기해서 스님들은 버섯이 피어있는 길을 따라가며 풍증을 달래었다. 우여곡절 끝에 밤이 깊어서야 이 운불사는 마무리되었다.

다음날 아침, 밤새 고생했던 스님들이 어제 밟 헤매던 산길을 돌아보면서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해인사를 코앞에 두고 주위를 뱅뱅 돌았던 것이다. 더욱 놀란 것은 부르트고 찢어진 발바닥의 상처가 모두 말끔하게 나았던 것이다. 모두가 부처님의 위신력이었다.

그 후 스님들은 산길의 아픔을 달래준 버섯을 신성하게 여겨 산사의 음식에서 빠지지 않는 귀중한 음식으로 여기고 있다.

■ 약선식 연구가. <산사에 가면 특별한 식당이 있다>저자

육류 독제거…항암 효과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생표고버섯, 목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팽이버섯 각 50g씩, 볶은 소금, 참기름, 고추장, 간장, 식초, 쌈장, 땅콩가루 각 1큰술

요리법 ①각종 버섯을 잘 씻어 데친 후 물기를 빼고 차게 식혀 접시에 보기 좋게 담는다. ②기호에 따라 참기름장, 초간장, 쌈장, 초고추장을 양념장으로 곁들여 찍어 먹는다. ③곁들이는 야채는 단호박, 당근 찐 것, 생오이가 좋다.

효능 ①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므로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환자에게 특히 좋다. ②육류의 독을 제거하며 항암작용이 뛰어나고 다이어트식으로도 최고다.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원감국사의 '無碍'

원감국사는 고종13년(1226) 전남 장흥에서 탄생했다. 속명은 위원개(魏元凱), 법명은 밀암(宓庵), 법휘는 법환(法桓), 법호는 충지(沖止), 시호는 원감(圓鑑)이다.

국사는 유년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다. 9세에 취학(就學)하여 17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9세에 예부시(禮部試)에 장원으로 뽑혔다. 또한 국사는 사신(使臣)으로 일본에 가서 수려한 문체로 일본인을 놀라게 하였다.

국사는 29세에 불문에 출가했는데, 그 동기는 전쟁과 민란 그리고 질병 등으로 민중들의 고귀한 생명이 허무하게 사라져 가는 시대적 혼돈 속에서 겪었던 생에 대한 고뇌였다.

국사는 승려가 된 후 41세가 될 때까지는 두타(頭陀)의 행각(行脚)을 하였으며, 삶도 죽음도 없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용맹 정진을 거듭했다. 지리산 상무사(定慧寺)에 주석한다. 45세 되는 봄에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의 노래를 불렀다.

청천(聽泉)

鷄足峯前古道場(계족봉전고도장)
今來山翠別生光(금래산취별생광)
廣長自有淸溪舌(광장자유청계설)
何必南南更擧揚(하필남남경거양)

계족산 봉우리 앞 옛 도량,
이제와 보니 푸른 산 빛 유별나네.
부처님 소리 바로 맑은 시냇물 소리인데,
무엇 때문에 귀찮게 다시 부처님 소리 세우리.

국사께서는 부처님의 법이 자연 자체인 것을, 또한 시냇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하지마는 국사의 수행은 끝이 없었다. 거미줄이 얼굴을 덮고, 무릎에 먼지가 쌓여 새발

12년간 '설산고행' 닮은 두타행

티끌-정토가 모두 한 암자려니…

주암에서 홀로 선정에 들매, 그 모습이 마치 허수아비 같았고, 거미줄이 얼굴을 덮고 새발자국이 무릎에 찍힐 정도였다. 국사는 41세에 정진을 중단하고 김해 감로사에 주석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덕(禪德)이 찾아왔다. 그 선덕이 국사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이에 국사는 크게 깨달았다. 그리고 천지를 꿰뚫는 무애(無碍)의 소리를 토했다.

무애(無碍)

春日花開桂苑中(춘일화개계원중)
暗香不動小林風(암향부동소림풍)
今朝果熟沾甘露(금조과숙첨감로)
無限人天一味同(무한인천일미동)

봄날 꽃은 계원(桂苑)중에 피었는데,
암향(暗香)은 소림의 바람에 움직이질 않는구나.
오늘 아침 익은 과일은 감로에 젖었고,
한없는 인천(人天)은 한 가지 맛이구나.

그 후 국사는 감로사를 떠나서 정혜자국이 찍히며 머리카락은 억새풀처럼 변하여 허수아비처럼 되는 선정에 들고는 하였다. 이렇게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선정에 들어있던 어느 날 천지각(天地覺)을 하였다.

천지일향(天地一香)

塵刹都盧在一庵(진찰도노재일암)
不離方丈遍詢南(불리방장편순남)
善財何用勤劬甚(선재하용근구심)
百十城中枉歷參(백십성중왕력참)

티끌과 정토(淨土)가 모두 한 암자,
방장실을 떠나지 않고도 남방을 두루 순방했네.
선재동자(善財童子)는 무엇 때문에 그리도 심한 고생을 자처하여,
백십성(百十城:수를 셀 수 없는 여러 곳)을 순력(巡歷:돌아다닌다)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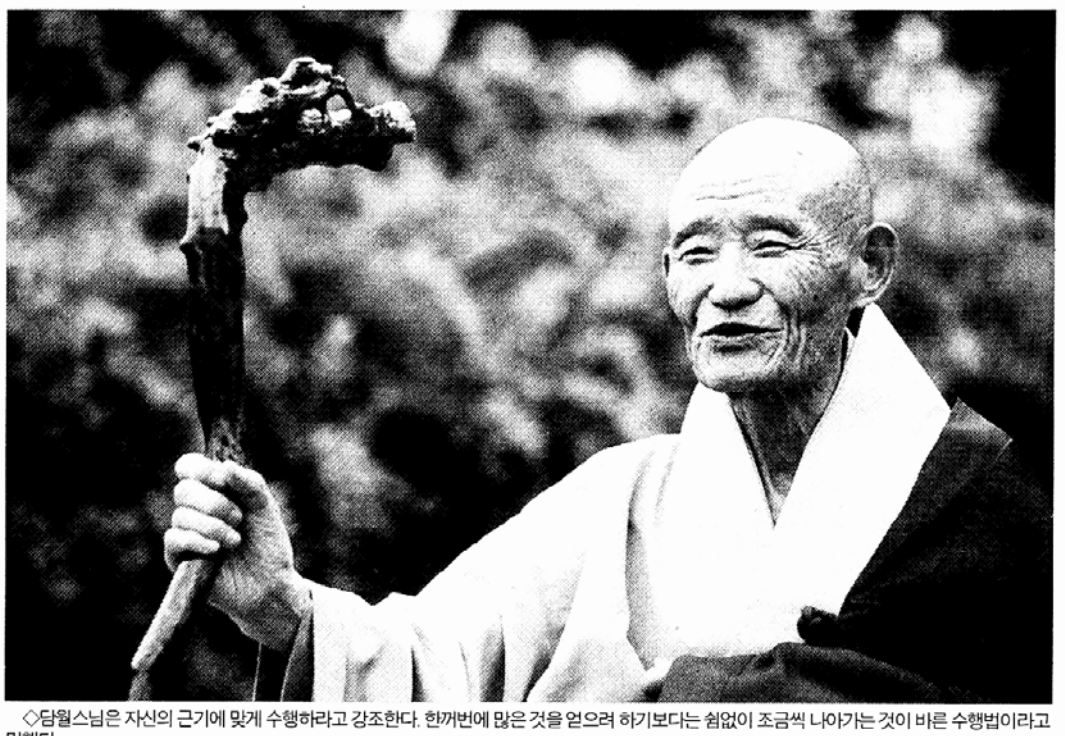
달빛도 국사의 깨침 앞에 빛을 잃어버렸다. 천지를 넘어선 국사의 고선풍(高禪風)은 중생세계에 참사람이 되는 길을 인도해 놓고 충렬왕 19년(1293)에 몸을 접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담 월 스 님

제천 백련사 회주

"자신 비우는 공부가 수행"



◇담월스님은 자신의 근기에 맞게 수행하라고 강조한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쉼없이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바른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말한다. 산은 사랑할 대상도, 정복할 대상도, 탐닉의 대상도 아니라고, 그저 산이 거기에 있어 오를 뿐이고, 내가 존재하기에 오를 뿐이라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믿는다. 산과 자신이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산은 자신에게 자연의 이치를 확인시켜 주는 존재이고, 자신은 산에게서 그것을 느낄 뿐이라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상은 없다. 그보다 더 순일무잡한 무엇이 과연 있기나 한 것인가?

"저기가 월악산이고 이쪽으로는 치악산이지. 산 하나가 저기에 있고, 산 하나가 여기에 있으니 세상이 온통 산이야. 산은 욕심이 없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생긴 그대로 살지."

점심공양을 마친 담월스님은 평소대로 산을 내려다보았다. 산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고 하신다.

담월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충북 제천 백련사는 감악산 850고지에 위치해 있다. 산정상은 960여 미터. 850미터를 이곳에서는 850고지라고 부른다. 대웅전 바로 앞 평평한 작은 바위에 올라서면 월악산과 치악산이 병풍처럼 펼쳐진다.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욕심이 앞설 리 없고, 세상이 혼탁해 보일 리 없다. 담월스님은 늘 그 자리에 서 있다.

오후 한 시간은 그렇게 지나간다. 산을 굽어보고 절 주위를 산책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오랜 습관이다. 원래 신라시대의 고찰이었으나 화재로 빈 법당만 남아있던 것을 다시 세운 것이 20년이 넘었으니 아마도 그때부터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스님, 수행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요."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아무래도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연과 산의 의미가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자 양반은 건강하신가. 건강이 최고야.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동문서답이었다. 움푹 파인 볼과 옷 위로 드러난 어깨뼈의 윤곽. 말 그대로 뼈만 남은 앙상한 스님의 모습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한 눈에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스님은 오래 수행해온 수행자답게 음성은 힘 있고 또렷했으며 눈빛도 형형하게 살아 있어 주위를 압도했다.

"수행은 자신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처럼 어려운 것도 없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진리를 얻고자 함이요, 자신을 바로 알고자 함이지.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말과 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풀겠다는 굳은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뜻이 있어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스님께서 그토록 건강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분명했다. 바로 자신이 그랬기 때문이다. 어렵게 시작한 공부였기에 사력을 다해 정진했지만 건강이 나쁜 탓에 원력만큼 하지 못한 것이 늘 응어리로 남아있다.

"작년 봄에 위를 절단했어요. 세 번째 수술이었어요. 20살 때 쯤 위병을 얻어 지금까지 고생이지. 그래서 지금은 허리를 제대로 펴고 앉아있기가 힘들어. 어디 그뿐인가, 백내장 수술도 했지, 탈항 수술도 했지…, 걸어 다니는 병동이야."

그러면서도 호방하게 웃으신다. 육신이 병들면 마음도 병드는 법. 하지만 적어도 담월스님에게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야윈 육신을 정신이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스님의 정신은 맑았다.

> "건강이 최고야
> 건강을 잃으면
> 아무것도 못하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9살 때는 아버지마저 병으로 돌아가셨지. 이때부터 3살 많은 형과 바가지를 들고 다니며 밥 얻어먹는 고아 아닌 고아가 됐어요. 그때 어떤 스님을 만나 탁발생활을 하기 시작했지. 말이 탁발이지 구걸이나 다름없었고, 그 스님은 사실 진짜 스님은 아니었어요. 나는 지금도 내게 깊은 불연(佛緣)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스님을 따라 다니다 도망쳐 나오고 나서 만난 사람 역시 가짜 스님이었지. 그렇게 가짜 사람들이 많았어. 진짜로 내가 스님이 될 수 있는 기회는 13살 때 평양의 영천암에 갔을 때였지. 영천암에는 거룩한 관음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그 관음상을 보며 처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스님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경전공부와 좌선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좌선은 새벽예불을 올리고 난 뒤 1시간 정도다. 오래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전은 누워서라도 본다. '중이 공부 안 하면 뭐하겠느냐'는 생각을 머리 속에서 단 하루라도 지워본 적이 없었다. 그 옛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가 아니던가. 가끔씩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제방선방을 찾아 수행에 몰두했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경봉스님과 동산스님 등 우리나라 불교의 큰 선객들과 함께 공부하던 때가 눈앞에 선하다고도 하셨다.

"출가한 후 처음 결제한 곳은 수덕사 정혜사였어요. 그 후부터 통도사 극락선원, 범어사, 팔공산 파계사, 해인사, 오대산 상원사 등 전국 제방선원을 다니며 수행을 했지. 요즘에는 안거 때도 돌아다니는 스님들이 많은데 그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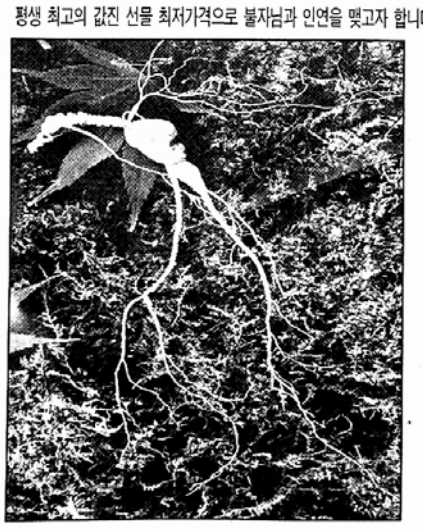
최근 논란이 됐던 해인사 대불 조성문제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新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후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특허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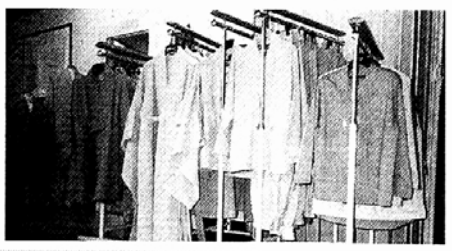
승복·법복·누비·바랑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꽃, 옴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 등록하고 무늬없는 승복도 동시에 생산합니다.

◈ 춘추복 : 촉감이 매우좋고 맵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 편안합니다.
◈ 하 복 : 모시처럼 시원하며 구김이 없고 다림질이 필요치 않음
◈ 장 삼 : 가벼워서 입기가 아주 편하고 구김이 없습니다.
◈ 가 방 : 완전 방수처리 되며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판매가격표

스타일		구분	판매가
춘추복	저고리 바지,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하복	저고리 바지,조끼	남·여	150,000
	두루막	남·여	130,000
장 삼		조계종	200,000
		태고종	200,000
손가방		大	28,000
		小	23,000
바 랑			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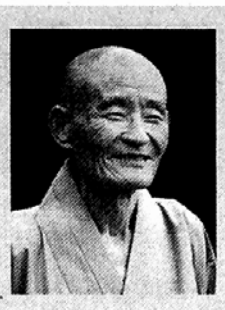
※ 사이즈별로 디잉하게 생산함
※ 맞춤 전문으로 생산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사 : 대구 동구 신천3동 139-1 봉용B/D 3F 302호
전화 : 053)764-4114 011-9850~4400

담월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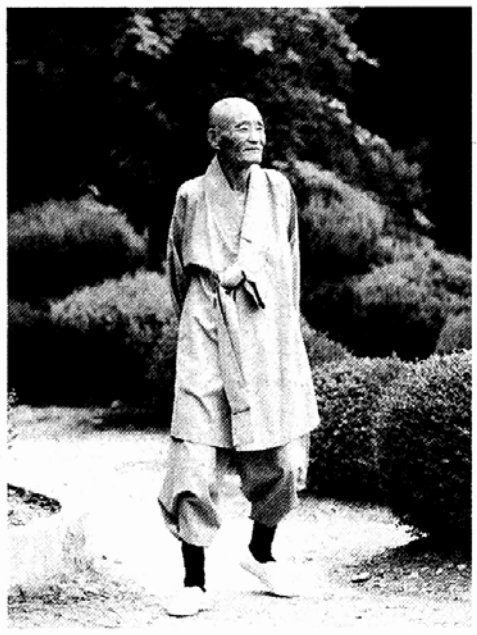
손수 절터 닦고 돌나르고 신도 시주금 극구 마다

담월스님을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스님을 청빈하고 수행에 철저한 스님이라고 말한다. 온갖 병고로 지칠 대로 지친 몸이지만 지금도 좌선과 경전공부를 놓지 않을 정도로 용맹정진이 몸에 배여 있다. 신도들에게는 자상하지만 공부하는 스님들에게는 엄하기로 소문나 있다. 상좌가 15명이나 되지만 모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여겨 아예 발걸음도 못하게 할 정도다.

스님은 1924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1941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월봉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보현사 강원 대교과를 마친 후 1945년 대원강원 수의과를 졸업했다. 1955년 가야총림 해인사 강원 강사와 부산 범어사 강원 중강을 지냈으며, 1961년 속초 신흥사 주지, 1966년 간성 건봉사 주지, 1970년 서울 칠보사 주지를 역임하고 현재 제천 백련사에 주석하고 계신다. 조계종 원로의원 벽암스님,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대구 관음사 주지 원명스님이 통도사 극락선원과 해인사 강원 등에서 함께 수행했던 도반이다.

20년전 백련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절터를 닦고 돌을 나르고 길을 손수 닦았던 스님은 지금도 신도들에게 시주금 받는 것을 극구 마다하신다. 오히려 불교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볼때마다 공부 잘 하라고 호통을 치시는 일이 잦은 편이다.

담월스님을 5년째 시봉하고 있는 반야행 보살은 "담월스님처럼 욕심 없고 공부에 열심이신 스님을 본 적이 없다"고 귀띔했다.



◇무욕의 삶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자유로워야 하는 것임을 담월스님은 깨닫게 해준다.

"무소유 실천하는 삶 승가나 속가 마찬가지 많이 가지고 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와 수좌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여쭈었다.

"승가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 길을 알면 가야 하는데 알면서도 가질 않아. 출가의 사명은 견성하기 위해서인데, 그 사명을 잊고 산다면 속인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행자는 깨달음 외에 달리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번뇌와 속박에 물들게 되면 올바른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니,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진정한 무소유를 실천할 때만이 깨달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가나 속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마음은 다른데 빼앗긴 채 가부좌를 틀고 앉은들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성이란 무엇입니까. 본성을 찾는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한량없는 생각이 찰나에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중생의 모든 고통이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이란 형체가 없어서 허공의 새가 날아간 자리처럼 공한 법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아주 신비한 것이어서 넓으면 법계도 삼킬 수 있지만 좁으면 바늘끝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부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마음(心)입니다. 팔만대장경도 마음 심자 풀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 깨치고 나면 모든 이치를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본래 본성이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본성을 찾는 길입니다."

담월스님은 오후시간을 주로 글을 쓰며 보낸다. 서재 한 구석에는 시중에서 파는 먹물이 10통 가량 쌓여있었다.

"17살 때 묘향산 보현사 강원엘 갔지요. 평남 고봉사라는 절에서 김만성 스님에게 의지해 공부하다가 제대로 공부하자는 생각에 보현사에 가게 됐어요. 보현사는 유학승제도가 있어 공비로 일본유학까지 갈수 있었는데 욕심이 났지요. 그래서 보현사에 계셨던 월봉스님을 은사로 사교, 대교를 졸업하고 서울 안암동에 있는 중앙고등강원이었던 대원강원 수의과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강백이었던 박한영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 밑에서 오래 공부하지는 못했지만 스님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큰 복이었지요."

스님은 이따금씩 찾아오는 스님들이나 신도들에게 늘 동산스님 이야기를 하신다.

"동산스님은 물욕과 사심을 떨친 분이셨지. 소탈하고 소박한 성품으로 모든 중생들이 편안하게 대할 수 있다는 점도 그렇지만 공부하러 오는 선객들을 유난히 아끼셨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6.25 전쟁으로 세상이 어수선하고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당장 땟거리가 없어도 걸망지고 공부하러 오는 수좌들은 항상 반겼고, 떠나는 수좌들에게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가장 먼저 예불에 참여하고 가장 오랫동안 용맹정진을 하신 분도 바로 동산스님이셨지. 동산스님을 보면 저절로 신심이 나고 수행에 철저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담월스님은 요즘 천수주력에 열중이다. 신도들에게도 천수주력을 많이 하라고 권하신단다. 주력에 의존하는 것이 타력신앙이 아니냐는 질문에 스님은 간명하게 답하셨다.

"아무리 바삐 살아도 부처님 가르침 대로 성품 근원 찾는 노력 게을리 말아야 해요"

"참선과 염불은 둘이 아니지. 아미타불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곳에 생각이 미치게 되면 그대로 무량수(無量壽) 무량광(無量光)이고,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이야. 진리가 따로 있지 않아, 바로 이것이 진리지. 사람은 모두 저마다 근기가 달라 혼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질 못해요. 천수주력은 대비주의 위신력을 빌리자는 것이지, 의지하라는 뜻은 아니야. 참선수행은 웬만큼 근기가 익은 후에 해도 늦지 않아. 무엇이든 근기에 따라 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대화가 길어지면서 담월스님은 힘들어하셨다. 한 손으로 잡은 경전이 조금씩 손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다.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 불자들에게 주실 말씀을 청했다.

"처세간여허공(處世間如虛空) 여연화불착수(如蓮華不着水) 심청정초어피(心淸靜超於彼) 계수예무상존(稽首禮無上尊)이라. 세간생활 하되 허공같이 비워서 걸림 없게 하고, 연꽃이 더럽고 깨끗한 물에 젖지 않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장애나 구애받음이 없으니 자기의 부처에게 의지하라는 뜻이지. 항상 마음의 근본을 밝히고 성품의 근원을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해요. 요즘 사람들은 풍부함을 누릴 줄만 알았지 욕망을 절제하는 법은 몰라요. 세상이 혼탁한 것도 그 욕심 때문이지.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에 효도하고, 책임을 다해 가정을 돌보고, 부처님 계행을 바탕으로 삼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을 바로 세우는 것이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요, 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담월스님은 20년전 이곳 백련사에 왔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셨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세월이 흘러 나이가 쌓인 것뿐이라고. 하지만 스님은 그것조차 잊고 사신다. 세월의 경계도, 아름답고 추함의 경계도 모든 것이 다 상(相)에 불과한데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산에 묻혀 산처럼 살아가시는 담월스님에게서 또 다른 산을 보았다.

글=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 일선스님

도반은 수행길의 평생 벗이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에게는 이 도반이라는 말이 가장 정겹고 풋풋하다. 아마 스님네에게 도반이 없다면 수행의 길은 외롭고 힘들 것이다. 수행길에서 도반은 탁마(琢磨)의 개념이 더 크다. 모난 돌이 정을 만나면 반들반들 조아지듯 도반은 서로 경책하고 점검하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도반을 통해 자신의 허물도 알 수 있고 모난 성격도 고쳐진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도반을 잘 만나는 일은 공부의 반을 성취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셨나 보다. 아닌게 아니라 이러한 도반의 은덕으로 들쭉날쭉 하던 내 성격도 둥글둥글한 조약돌이 다 된 것 같다.

많은 도반들 가운데 늘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스님이 희양산 봉암사에 살고 있다. 그 스님의 법명은 일선(日禪)이다. 일선 스님을 만나면 도반의 인연이 된 것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그는 수행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일등 수좌다. '걸어다니는 수행자'나 다름없다. 밥 먹는 일부터 잠자는 일까지 그의 행동은 수행인의 자세와 계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일선스님은 절집에 들어와서 강원 시절 빼고는 줄곧 선방에서만 정진하고 있다. 스님에게는 해제와 결제가 따로 없다. 안거가 끝나도 일주문을

해제-결제 따로없는 수행

승복 무릎부분 겹겹 헝겊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를 도심에서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그는 한 곳에서 정진하면 3년 결사를 한다. 지금까지 문경 봉암사, 김천 수도암, 지리산 칠불암에서 3년씩 공부하고 올해부터 다시 봉암사에서 정진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봉암사는 상선원(上禪院)과 하선원(下禪院)으로 나누어 한 철 살림을 산다. 하루 12시간 이상 정진하는 수좌들은 상선원의 선실에 앉게 되는데 일선스님은 매 철마다 이 선실의 터줏대감이다. 어느 해는 공부 잘하는 수좌들이 모인 덕분에 잠을 더 줄이고 한 달 동안 가행 정진을 했다고 들었다.

어느 해 여름 봉암사에서 그를 만났을 때 마애불로 오르는 길에서 이렇게 말했다.

"갈수록 참선이 힘듭니다. 10년 이상 이 수행을 했으니 육체 조복은 되었는데 번뇌 조복이 영 되질 않습니다. 청산에 앉았어도 구름은 걷히지 않는 것이지요"

좌복 위에서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는 일은 하루 종일 하여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육체적 편안함이 공부에 방해가 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두에 매달리지 않고 고요한 상태에 빠지는 일종의 무기(無記)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의 표현은 실참(實參)의 수행에서만 가능한 목소리였다. 그러한 경계가 어디 이론과 지식으로만 체험되는 부분이던가. 하루 6시간만 앉아 있어도 어깨가 굳는 내 처지로서는 육체 조복(調伏)조차도 깜깜한 단계다. 일선스님은 이미 그 단계를 넘고 있었다. 고인(古人)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수레를 끄는 소의 고삐를 잡는 일만 남은 것 같다.

일선 스님의 수행 과정은 아무래도 우행(牛行)에 가깝다. 서두르지도 급하지도 않다. 천천히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간다. 깨달음은 순간이지만 그 과정은 길고 먼 고행 길임을 그의 안광(眼光)을 보면 실감한다.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한 스님 중에 강원에서 이력을 마친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입적하신 성철스님의 선풍(禪風)과 가르침 때문이다. 일선스님이 쌍계사 선원에 살고 있을 때 하루는 어느 암자에 들렀는데 그 암자에 계신 노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젊은 수좌! 나 또한 평생 납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아쉬움은 없지만 딱 한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네. 그 한 가지가 강원 공부를 못해본 것이요. 참선 공부는 평생의 일이지만 강원 공부는 시기가 주어지는 일이네. 참선은 너무 서둘지 말고 평생을 두고 차근차근 하시게"



그 노스님의 이 한마디가 큰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강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원 시절 몸을 뒤척이다 잠을 깨보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실루엣 물체가 보일 때가 많았다. 바로 일선스님이 잠자지 않고 이불을 방석 삼아 정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일 한차례 108 참회를 빼놓지 않고 올린다. 그가 입고 있는 승복을 보면 무릎 부분은 헝겊으로 잇대어져 있다. 절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닳아지는 까닭이다. 게으름이 없는 수행의 한 단면이다.

일선스님은 도반이기 보다는 존경하는 스승이라 말해야 옳을 것 같다. 강원에서 같이 지냈던 어떤 스님은 삭발날이 되면 일선스님 몰래 욕실에서 그의 고무신을 씻어 놓았다고 한다. 그 정도로 도반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스님이다. 일선스님을 보면 진정한 수행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일임을 거듭 깨닫는다. 그는 도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는 또 다른 선지식이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새로운 불교환경단체가 출범합니다 명칭공모, 사업제안, 회원 활동가 모집

뭇 삶의 터전인 땅과 물을 살리려는 원력을 모아 새 불교환경단체의 창립(9월 6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네차례의 회의를 열어 백두대간 생명네트워크를 구축, 불교환경정책연구 및 교육 등 사업의 내용과 조직에 대한 얼개를 짜고 있는 중이며, 이는 사부대중의 공의에 따라 확정하고 실행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새 불교환경단체의 명칭 공모, 회원·지역활동가모집, 사업제안을 받으려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시되,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의견을 내주십시오.

◇ **명칭공모** '불교·환경·생명살림'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이름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제안** 간단한 아이디어라도 괜찮습니다. 불교환경운동의 실천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 **회원·지역활동가 모집** 돌멩이 하나도 손을 움직여야 옮길 수 있습니다. 사부대중의 동참이 불교의 환경과 뭇생명의 조화로운 살림살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402호
전화 720-1654, 팩스 720-1657 이메일 jirilive@chollian.net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준비위원회

특강안내

우리 山河의 근간인 백두대간과 그에 기반하고 있는 사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특강 및 슬라이드 상영을 갖습니다. 불자 대중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 특강주제 : '우리 산하(山河)의 올바른 이해'
– 백두대간과 사찰의 의미를 찾아서 –
▶ 강의 1 : '백두대간의 이해' 김원기(백두대간보전회 회장)
▶ 강의 2 : '백두대간의 실태(개발과 훼손)' 서재철(녹색연합 생태보전국장)
▶ 일 시 : 7월 28일(토) 오후 2시, 장소 : 조계사 문화교육관
▶ 주 관 :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준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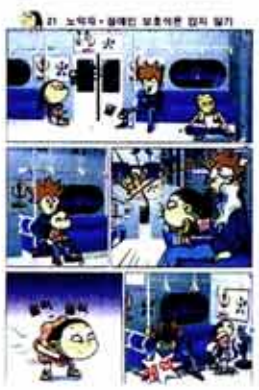
정명 스님 '연꽃전'

백상기념관 18~24일

연꽃공예가 정명스님이 18일~24일 서울 안국동 백상기념관에서 두 번째 '연꽃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생화·조화·종이 연꽃 등 다양한 형태와 소재의 연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낼 예정이다.

스님은 생화 연꽃과 달리 장시간 보존하기 힘든 생화 연잎을 특수처리해 전시 기간 내내 생생한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스님은 또한 룸비니동산의 무우수, 부다가야의 보리수, 구시나가라의 사라쌍수를 문현을 토대로 재현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실험정신 가득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02)388~0108



'에티켓 명랑만화'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종단협, 사찰 등 배포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에티켓 명랑만화'를 제작한다. 월드컵 명랑만화는 친절 질서 정직 청렴 등 문화시민 4대 지표를 중심으로 100여 가지의 테마로 구성된다. 종단협 사무처장 법현스님은 "우리 국민들이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표현해, 불교 포교와 국민 계도를 동시에 꾀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종단협의회는 10만부를 1차 제작하여 11월부터 전국 사찰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터미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이런 피서 어때요!

가족과 함께 미술관 여행



◇더위에 지쳐 놓쳐버린 일상의 리듬을 가족과 함께 하는 미술관 여행에서 되찾아 보자

우연히 들른 미술관에서, 새로운 세계를 마주한 듯한 충격을 받았을 때의 느낌. 그것은 단순히 예술 작품에 대한 감흥을 넘어 삶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기도 하다.

더위에 지쳐 놓쳐버린 일상의 리듬을 주말

과거·현재 오가며
동·서양 그림감상
몸도 마음도 '시원'

을 이용해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미술관 여행에서 되찾아보면 어떨까.

현대 한국화에서부터 조선시대 인물초상화, 20세기 서양 추상미술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미술 전시가 곳곳에서 열린다.

● '한국현대미술의 전개-전환과 역동의 시대전' :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기획전이다. 8월1일까지 제1,7전시실에서 당시의 주요 전시를 중심으로 선정된 50여 작가의 작품 160여점이 선보인다. 부대행사로 매주 작가와의 학술강연도 진행해,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당시의 미술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02)2188~6000

● '찾아가는 미술관-우리의 산하, 우리의 이야기전' : 국립현대미술관이 전개하고 있는 찾아가는 미술관 7월 전시로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20일까지 열린다. 우리의 산하와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10점과 창원지역 작가 작품 40여점 등 총 140여점이 전시된다.055)239-3313

● '미술의 시작전' : 성곡미술관이 세번째로 마련한 여름방학 기획전. 9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현대미술 속으로 들어가자'이다. '전시'와 '교육'을 상호 연계해 구상단계부터 최종 완성단계까지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과 그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적 차원의 전시회다. 화가 오용길 씨 등 9명의 작가가 직접 수묵화, 회화, 사진, 조각, 목판화 등의 작품이 제작되는 과정을 통해 미술의 이해를 돕는다.02)737-7650.

● '그리스 로마 신화전' : 유럽 3대 고고학 박물관의 하나인 이태리 나폴리 고고학박물관 소장의 조각품, 회화, 항아리 등 진품유물 150여점이 선보인다. 서양문화의 바탕이 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해에 도움을 주는 전시로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서 9월 30일까지 계속된다.02)597-2230

● '티베트 불교미술전' : 최근에 문을 연 전남 보성 대원사 티베트불교미술관에는 주지 현장스님이 13년간 티베트와 중국, 몽골 등지를 순례하면서 수집한 티베트불교미술품 600여점이 전시된다. 티베트 탱화와, 만다라, 불상, 밀교경전, 법구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티베트불교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061)852-1755

● '인물화가 채용신전' : 덕수궁 미술관은 조선시대 마지막 인물화가인 석지 채용신의 작품 60여점을 8월 26일까지 전시한다. 채용신 탄생 150주년을 맞아 열린 이 전시는 양반 초상화로 이름을 남긴 화가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자리다.02)779-5310

● '20세기 추상미술의 빛과 움직임전' : 8월 15일까지 갤러리현대와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분산 개최되는 추상미술 전시회로 프랑스의 화상 드니즈 르네가 선정한 작품 80여점이 선보인다. 몬드리안, 알렉산더 칼더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02)734-6111

● '디아나의 노래전'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두 방식으로 미래 예술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디아나의 노래전'을 29일까지 연다. 30대~50대에 이르는 14명의 신예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매체로 두 방식의 대화를 시도한다.02)760-4562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만다라 어떻게 만들까

통도사 성보박물관 '티베트 특별전'

8월 5일까지 만다라 제작 시연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에서 짝부를 이용해 만다라를 제작중인 티베트 스님

통도사성보박물관이 개최하고 있는 '티베트 특별전'에서 초펠, 돈텐놀부, 짜시콘포, 카티 등 네 명의 티베트 스님들이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만다라 제작 과정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한 달간 이어지는 이번 만다라 제작 시연은, 밀교 특유의 의식과 만다라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에서 매일 오전 9시~10시 예불의식을 봉행하고, 10시30분~11시 30분까지 버터연꽃으로 제작하는 만다라 제작과정을 선보인다. 오후 1시 30분~4시30분 까지는 석채를 이용한 만다라 제작 시연을 한다.

만다라(曼荼羅, mandala)는 산스크리트어로 '원' 또는 '구획'이라는 뜻으로, 본질을 표현한 도상을 가리키는데, 건축설계의 평면도나 천체도처럼 보이는 기하학적인 그림이다. 만다라는 3단계로 된 붓다의 땅 또는 붓다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수행자 자신의 깨달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전통 만다라에서는 황금과 산호, 진주 등 적·청·황·녹·백의 다섯가지 귀한 재료를 썼지만 요즘은 그같은 값비싼 재료 대신 옥석 가루에 색을 입혀 사용한다.

너비 1.2m 크기 8각형의 단 위에 티베트 현지에서 가져온 옥석 가루와 버터로 만다라를 표현한다. 버터는 꽃이 귀한 티베트에서 부처님께 버터로 꽃모양을 빚어 바쳤던 데서 유래한다. 물감과 붓을 사용해 만드는 만다라가 아니라, '짝부'라는 길이 30㎝ 정도의 원추형 대롱을 통해 옥석가루를 조금씩 흘리는 작업으로 조금만 호흡이 흐트러지면 가루가 날려 그림이 망가지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모든 업장의 소멸과 함께 다시 무(無)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살려, 원래 옥석가루로 만든 만다라는 완성과 동시에 다 쓸어 없애버리지만, 박물관측은 전시를 위해 완성된 만다라를 보존할 계획이다.055)382-1001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불교는 매우 현실적인 종교다. 문제의 출발점을 거창한 형이상학적인 주제보다, 지금 이 순간 각자가 겪고 있는 현실 속의 고통에 둔다. 부처님은 이것을 '화살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어느 장수가 전쟁터에서 화살을 맞았다. 부하들이 주위를 둘러싸자, 그 자신의 몸에서 화살을 뽑는 대신 그들과 토론을 벌였다. 과연 그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그 궁사가 어느 카스트 계급에 속하는지, 어느 방향에서 날아왔는지, 화살의 재료가 무엇인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 그는 이런 논쟁을 벌이다 결국 죽고 말았다. 우리도 이렇게 엉뚱한 문제에 사로잡혀 인생을 헛되이 살고 있는지 모른다. 반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화살을 뽑는 시급한 일을 먼저 하라고 가르친다. 그 화살은 우리의 마음에 박힌 채 고통을 안겨주는 '자아(自我)'이다. 따라서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화살을 뽑게 만들어 해탈에 이르게 하는 문이기도 하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잘 알다시피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아의 속성인 탐진치 삼독에서 온다. 탐은 탐욕(貪慾)이며, 진은 진에(瞋⊥, 화냄)이고, 치는 우치(愚癡, 어리석음)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대개 추상적으로 들리기 쉬우므로,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의 문제로 대입하여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탐은 음식문제, 진은 인간관계, 치는 남녀문제'로 해석하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다. 도시생활을 하면서 매일 겪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좀 안 먹고 살수는 없나', '사사건건마다 동료, 선후배와 부딪치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본주의 상업사회에서 상품화된 성(性)의 용단폭격에 노출되어 있는 정신의 허약함'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니다.

김성동 '꿈' (2)

고통 없애려면 몸에 박힌 '화살' 부터 빼자

그 중에서도 특히 성속(聖俗)을 불문하고 남녀관계의 성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모두들 태연히 살고 있지만,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작은 가시가 되어 각자의 양심에 박혀 있기가 쉽다. 탐심과 진심에 비해 치심은 상대적으로 더 예민한 것 같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그로 인한 괴로움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김성동의 소설 〈꿈〉의 주인공 능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감수성 예민한 20대의 수좌 능현은 어느 날 홀연히 나타나 말을 걸어온 여대생 앞에서 존재의 근본적인 흔들림을 겪는다.

능현의 흔들림은 다분히 작가 자신이 체험한 것으로, 그가 책머리에서 밝힌 것처럼, 그 흔들림이 곧 소설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은 중요한 계기였다. 이제 50대 중반에 들어선 작가는 소설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결정지은 그때 그 사건을 차분히, 때론 격정적으로 반추한다. 남녀문제가 우리 각자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좌 시절 이 문제를 껴안고 정면으로 충돌한 작가의 생생한 체험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수좌는 자신의 마음에 와 박힌 화살의 실체를 선명히 깨닫고, 그 화살을 뽑기 위해서 만사를 제치고 정직하게 자신의 '치심(癡心)'과 맞대결을 벌였던 것이다. 그리고 2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그 체험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켜 우리 앞에 내놓았다. (계속)

■문학평론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수분흡수와 방산기능은 일반면의 4배, 무좀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삼베목수건은 직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특유의 사각사각한 느낌이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282cm(길이)

btn 불교텔레비전 32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

'이심전심' 선종사 뿌리 한눈에

"선종의 계보와 초기 선(禪)의 요체는 무엇인가."

신간 〈능가사자기〉(박건주 역주, 운주사)는 구나발다라, 보리달마, 혜가, 승찬 선사 등 초기 선종(능가종) 선사들의 어록과 전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어쩌면 초기선종의 역사나 계보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변천의 무늬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 수행의 뿌리를 알게 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능가사자기' 박건주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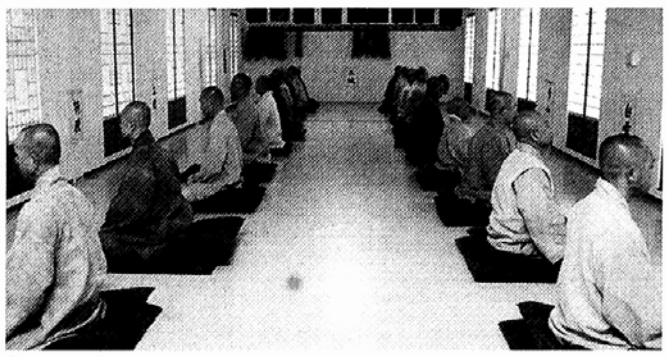
초조~7조 선의 요체·계보 선사 어록 전기통해 조명

1천여 년 전 중국 돈황석굴에서 초기 선가의 실체를 알 수 있게 하는 책들이 발견된다. 〈전법보기〉, 〈능가사자기〉, 〈역대법보기〉, 〈유심론〉, 〈수심요론〉, 〈증심론〉, 〈대승무생방편문〉 등. 이 가운데 〈능가사자기(楞伽師資記)〉는 선종이 본래 〈능가경〉의 핵심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능가종' 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귀중한 책이다. 지은이는 신수의 문하에서 선법을 배운 정각(683-750) 선사.

〈능가경〉의 선지(禪旨)에 의지하여 심인상전(心印相傳)한 초기 선종의 사자(師資 · 스승과 제자) 전승의 계보를 밝히고, 그 분들의 전기와 함께 어록을 수록하고 있다. 이미 초기 선종이 〈능가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었지만 〈능가사자기〉가 발견됨으로써 선법의 요체와 전법의 계통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책은 함께 발견된 다른 선종 사서에 비해 초기 선사들이 설한 선법의 요지를 가장 풍부하게 담고 있는데, 능가선법을 비롯해 후대에 정법을 제대로 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돈황에서 발견된 초기 선종의 자료를 가운데 〈전법보기〉는 〈능가사자기〉보다 저술 연대가 빠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초기 선사들의 행적이나 일화를 간략히 적은 것이고 법문이나 어록 부분은 없다. 따라서 초조에서 7조까지 초기 선사들의 선법을 가장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능가사자기〉인 셈이다. 선의 역사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구나발다라를 초조로 하여 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중국에서 시작된 선종은 우리나라에도 이어져 한국불교의 큰 흐름을 형성했다. 사진은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는 수좌들 모습.

초기 선종의 선법이 후대에 상당 부분 퇴색하고 변질되었으나 이러한 자료를 통해 본래의 선법(능가선)을 되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자료의 소개와 해설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 대중서로는 1990년 출간된 〈초기선종사〉(전2권, 양기봉 역주, 김영사) 이외는 거의 없을 정도다. 중국고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박건주(전남대 강사) 씨가 내놓은 이 역주본은, 사료적 가치뿐만 아니라 번역에 있어서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놓아 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에도 고통스럽지 않은 책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이 책에는 〈출삼장기집〉과 〈속고승전〉에 실린 초기 선사들의 전기도 우리말로 옮겨 덧붙이고 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스테디셀러 다시읽기

불교대전

'막말' 이 많은 시대다. 여기저기 주의와 주장들이 넘쳐나고 목소리 또한 높다. 하지만 진정으로 새길 말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시대에 부처님의 설한 말씀을 깊이 되새겨 봄은 어떨까. 하지만 막상 경전을 읽으려하면 어떤 경전부터 읽어야할지 막연하다.

〈불교대전〉(현암사)은 경전 선별의 방향조차 잡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긴한 책이다. 대장경의 세계를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책은, 만해 스님이 대장경을 토대로 경전의 진수만을 추려서 집필한 책을 불교학자 이원섭 씨가 1980년 역주했다.

방대한 경전을 교리, 신앙, 포교 등 크게 9품으로 나누어 정리한 이 책은, 불교의 기본적 교리와 수도 방법 그리고 처신의



방대한 경전숲서 정수만 가려뽑은 축소판 대장경

문제를 체계 있게 분류하여 위로는 깨달음의 내용부터 아래로는 국가 · 가정 · 개인 문제의 해법까지 담아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경(經) · 율(律) · 론(論) 삼장을 골고루 섞은 174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역대장경과 남전대장경 등 모두 444부에 담긴 것들이다.

이원섭 씨가 머리말에서 "대승 소승에 구애받지 않는 불교 교리의 재정비를 위해 만해 스님이 출간한 이 책은, 대장경의 축소판이요, 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평가한 것처럼 이 책은 '불교경전의 정수' 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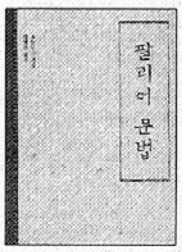
이 책이 이렇게 높게 평가 받는 데는 여러 경전의 정수만을 가려 뽑은 점 말고도 그 까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원섭 씨가 현대어로 풀어놓은 문장과 꼼꼼한 각주와 풀이, 불교용어 사전 구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인 5천여 항목의 찾아보기 등.

부처님께서는 45년간 장광설을 하시고도 "나는 일생동안 한 마디도 설한 바 없다"고 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또한 경전의 경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부처님의 사상을 읽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만해 스님이 이 책을 엮은 까닭이리라. 값 1만9천5백원

김중근 기자

근본불교 담은 고전어 길잡이

'팔리어 문법' 김형준 옮김



근본불교 본디의 교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스크리트와 팔리어 두 가지 고전어를 습득해야만 한다. 불교 고대 문헌(경전) 대부분이 이 두 언어로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신간 〈팔리어 문법〉(연기사)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팔리어 교습서이다. 팔리어 및 남방 상좌부 연구의 석학 미즈노 고오겐(전 일본 구택대학 총장) 교수가 지은 책을 위덕대학교에서 원시불교 및 팔리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형준(불교학과)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팔리어는 같은 계열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에 비해 배우기 쉽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의외로 통달을 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언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어가 근본불교연구에 있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쁘라끄리뜨(중기 인도 아리안어의 총칭) 가운데서도 가장 긴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부파불교 및 초기 대승불교가 현재까지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팔리불전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얀마 · 태국 · 라오스 등 남방불교권에서 팔리어를 성전어(聖典語)로 삼고 있는 것만 봐도 그 가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팔리어 문법서들은 중요성에 걸맞게 여러 권이 나왔다. 하지만 이 책의 특징은 베다어에서 쁘라끄리트, 산스크리트에 이르는 주변 언어와의 광범위한 비교와 함께 그 세세한 해설과 예문을 싣고 있다는 점이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군불자 사랑받는 병영법문 백미

'씨앗법문' 이정우 법사



신간 〈씨앗법문〉(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잊혀져 가는 군생활의 소중한 추억의 불씨를 되살려 준다. 지은이는 이정우(36 · 벽제 일승사) 군법사. 지난 세대에도 그러했겠지만 요즘도 군법사가 설하는 법문들은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는 것들이다.

수록된 법문은 모두 36편. 지은이가 임관 후 첫 법문을 한 철원 청원사를 비롯해 모두 6곳의 군법당에서 장 · 사병들에게 한 법문 가운데 불성을 일깨울 씨앗 법문만을 가려 뽑은 '병영 법문' 의 정수다.

일주일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주제로 5~6곳에서 군불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이정우 법사. 그가 불교 경전과 동서양 고전을 넘나들며 펼치는 여러 예화와 법문은 재미와 흥미를 넘어 내면 성찰에까지 이르게 한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시심으로 본 산사 풍경

이상범 시집 '풀빛화두'



이상범(66) 시인은 30여 년 전부터 사찰을 찾기 시작했다. 속세를 떠난 그곳에서 시인은 사찰의 웅대한 부분이 아닌 아주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심에 잠긴다.

〈풀빛화두〉(책만드는집)는 절을 찾는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릴, 어쩌면 하찮게 생각하는 것들을 시제로 하여 쓴 시집이다.

"어둠을 찢어 발기며 / 새소리가 산을 오른다 / 물소리 차오르듯 / 산새소리 찰찰 넘쳐 / 그 소리 해돋이 한 자락/ 대불전에 공양한다." ('새소리' 전문)

석굴암의 일출을 보기 위해 토함산에 오른 시인은 이 세상에 태어나 배운 모든 지식들을 벗어 버리고 때묻지 않은 본래의 감각을 작동 시킨다. 그리하여 시인은 계곡 끝자락에서 들리는 새소리, 자연의 향기와 맛 그리고 동해의 일출을 시에 담는다.

하지만 외형에 눈을 빼앗긴 사람들은 이런 감상에 잠길 수 없다. 이상범 시인의 시들은 심안(心眼)으로 읽히는 시들이다. 값 5천5백원.

김중근 기자

드나듦의 미학

주남철 '한국의 문과 창호'



사찰의 문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부처님의 세계인 불국정토에 들어섬을 의미한다.

문과 창호를 통해 드나듦의 철학과 미학을 살핀 〈한국의 문과 창호〉(대원사)가 나왔다. 지은이는 30여 년간 한국건축의 문과 창호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주남철(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그는 먼저 우리나라 문과 창호의 상징성과 뜻을 설명하고, 주택 · 도성 · 궁궐에서의 문화 창호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살핀 다음, 사찰에 세워진 문과 전각의 의미 그리고 이들에 설치되어 있는 창호에 대해 고찰한다.

지은이는 사찰 전각에 설치되는 창호들은 한국 창호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다며 사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살짜임새인 정자살창, 빗살창, 빗꽃살창, 솟을빗꽃살창 등에 주목한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 자	출 판 사
1	나의 행자시절	박 원 자	다함미디어
2	깨달음의 길	진우기 신진욱	부디스트웹 닷컴
3	티벳 밀교 요가	라마키지다와삼둠	정신세계사
4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5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6	선의 나침반	현 각	열 림 원
7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선 재	디자인하우스
8	명상으로 얻은 깨달음	달라이 라마	가 람
9	지장경 강의	무 비	불 광
10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성우 지현	민 족 사

도서 안내: (02)737-0695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읽어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천년 신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티벳 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웬츠 편집 | 칼 융 해설 | 류시화 옮김 | 양장본 | 525면 | 15,000원

죽음 이후,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힌다!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사자의 서〉!

티벳 밀교 요가 신간!

라마 키지 다와삼둠 번역 | 에반스 웬츠 편집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520면 | 18,000원

티벳 성자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최상승 요가 수행법!

틸로파와 나로파 · 마르파 · 밀라레파를 포함한 인도와 티벳의 유명한 많은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사용했던 요가 수행의 비의! 수행에 뜻을 둔 사람이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웬츠 편집 | 칼 융 해설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432면 | 15,000원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르게 한다!

왜 이 책은 1,000년 동안 동굴 속에 숨겨져야 했는가?
8세기경, 티벳에 불교를 전하고 수많은 비밀 경전을 남긴 붓다의 화신 파드마삼바바, 그가 예언한 대로 천년 만에 환생한 그의 제자들이 찾아낸 바로 그 책!

티벳 밀교의 정수를 담은 에반스 웬츠의 티벳 라이브러리! — 칼 융이 경탄한 인류 최고의 정신과학!
20세기 초,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 에반스 웬츠는 인도로 가서 라마 키지 다와삼둠의 제자가 되었고, 티벳 불교의 정수를 4부작으로 복원해냈다. 〈티벳 사자의 서〉, 〈티벳 해탈의 서〉, 〈티벳 밀교 요가〉 그리고 출간 예정인 〈티벳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가 바로 그것이다.

•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 티벳의 수행법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 한겨레
• 정신세계를 다룬 티벳 최고의 경전. 칼 융이 직접 해설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조선일보

• 격월간 〈정신세계〉 재창간 기념 정기구독자 특별 이벤트
1년 구독료로 2년간 정기구독자가 됩니다!
8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뉴에이지 종합지 격월간 〈정신세계〉가
1년 정기구독료 7만2천원으로 2년을 구독하시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7월 31일까지).
정기구독을 하시면 자동으로 정신세계원 회원이 되시어 강좌 · 물품 구입 때 할인 받으시고, 정신세계사의 모든 책도 할인 받습니다.
▸ 정기구독 신청 — 전화: (02)733-3135(401 · 407)/ 팩스: (02)747-7034/ 인터넷 신청: www.mindvision.org
송금구좌: 은행 · 우체국 · 농협 지로번호: 3006577, 흥법킹: 009-21-1159-604(국민은행,예금주 송순현)

정신세계사 · 월간 정신세계 · 희망 정신세계 · 정신세계원
전화 747-7033 / 팩스 747-7034
www.mindvision.org

'동악미술사학' 창간호 나왔다



동악미술사학회(회장 장충식)는 최근 〈동악미술사학〉 창간호를 발간했다. 창간호에는 '연가칠년명 금동불상 재고' (장충식 동국대 교수) 등 창립기념 전국학술대회 발표 논문 6편과 연구논문 4편을 실었다.

이철교(동국대 학술정보서비스팀장) 씨가 국내 · 외에서 간행된 불교회화 관련한 논문과 단행본을 정리한 '논저목록' 도 부록으로 실려 관련 전공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신

'선과 생활' 워크숍

한국선학회는 20~22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월례 발표회를 겸한 여름 워크숍을 연다. 선행스님(법주사 강사) 원철 스님(해인지 편집장) 반산 스님(능엄학림 연구원) 인경 스님(보조사상연구원 실장) 김방룡 교수(영산원불교대) 양형진 교수(고려대 교수) 이덕진(고려대 강사) 김태완(부산대 강사) 씨 등이 '선과 생활' 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보조사상硏 월례회

보조사상연구원은 28일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월례 발표회를 연다. 연구원이 시리즈로 계획하고 있는 '불교 수행론 연구' 의 첫번째로 'sati의 의미와 실제' (임승택 동국대 강사), 'vipassana의 인식론적 근거' (조준호 동국대 강사) 발표가 있다.

'회당학원 50년사' 발간

진각종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최근 〈회당학원 50년사〉를 발간했다.

5년여 작업 끝에 나온 〈…50년사〉는 1949년 건국고등공민학교 설립부터 50주년이 되는 1999년까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처음으로 한 곳에 모았다.

"나옹 '서왕가' 가사문학 효시 의문"

임기중 교수 '불교가사연구' 서 주장



우리 나라 가사문학의 효시는 고려말 나옹화상이 쓴 '서왕가' 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계의 이런 통설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임기중(사진)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최근 나온 〈불교가사연구〉(동국대 출판부)에서 현재 전하는 불교가사 108편의 원작과 작자를 문헌자료를 통해 살펴본 뒤 "현재 전하는 나옹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문자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서왕가' 는 1704년에 간행된 〈염불보권문〉에 수록돼 있고, 효시작 여부로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승원가' 역시 조선후기에 필사된 것이라 보이므로 이들 작품을 가사의 효시작으로 보는 것은 무리다"고 주장했다. 원작을 찾을 수 있는 가사 작품 대부분이 후대에 가사체로 옮겨진 사실로 볼 때 나옹의 원작 또한 가송이거나 산문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이 작품들이 노래로 구전되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보다는 일반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문자로 정착될 당시에 성행하던 가사형식을 빌려 적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나옹집〉 등에서 그 원작이 되는 작품을 찾고자 했으나 찾지 못한 점도 이들 작품이 나옹화상의 작품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교수는 그 동안 원작과 실제 작가를 찾을 수 없었던 '원효대사수도가' (원래는 제목없이 '원효대사 지음' 이라고만 쓰여있음)가 '서왕가' 보다 이른 시기에 이미 가사로 지어지고 불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원효대사수도가' 와 원효가 쓴 〈발심수행장〉의 내용을 비교한 결과 '수도가' 가 〈발심수행장〉을 가사로 옮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언해본이 1577년 간행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임 교수는 "그렇다고 '원효대사수도가' 가 가사의 효시작이라는 말은 아니다"며 "다만 '서왕가' 나 '승원가' 는 가사장르의 발생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고 말했다.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지만 작가가 알려지지 않았던 '이산혜연선사발원문' 은 한문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최초로 시도한 운허(1892~1980)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운허 스님 1970년 지어


◇염불보권문본 '서왕가' (목판본).

'회심가' - '회심곡' 전혀 다른 독립 작품

스님이 1970년 봉선사에서 지었다는 사실도 밝혔다. 즉 우리 나라 강원에서 교재로 널리 쓰인 〈치문경훈주〉의 '이연선사발원문' 을 근래에 와서 외우기 쉽고 알기 쉽게 가사체로 옮긴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해 불교가사 108편의 원전을 모아 펴낸 〈불교가사원전연구〉(동국대 출판부)에 이어 펴낸 〈불교가사연구〉는 불교가사가 전하는 문헌조사가 돋보이는 연구성과다. 불교가사가 전하는 문헌을 목판본, 필사본, 활자본으로 나눠 정리하면서 여러 이본으로 유통되는 불교가사의 계통을 정리했다. 이를 토대로 불교가사의 내용유형과 시대별 존재양상, 18~19세기 전개양상, 불교가사의 구성방식과 작시원리 등을 살폈으며 부록으로 회심곡 음반의 사설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다. '회심가' 와 '회심곡' 이 전혀 다른 독립적인 작품임을 밝혀낸 점이라든지, '서왕가' 에 앞서는 것으로도 보는 '나옹화상수도가' 가 1800년대 널리 불리던 '증도가' 의 이본이라는 점, 이두 표기와 관련 고려말 문학사 변동의 한 양상으로 설명돼온 '승원가' 가 '자책가' 의 이본으로 1800년대 이후의 가사라는 점 등을 확인했다.

임 교수는 "불교가사가 전하는 문헌에 대한 자료조사가 미진하다보니 불교가사의 생산과 전승 및 수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통일된 관점없이 독립된 몇 가지 주제별로 다뤄 한계가 있지만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눈 접근방법이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수행체험 학문적 자성의 시간"

제1차 가산포럼 학자 30여명 참석 선교겸수 '공감'


◇제1차 가산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해인사 선원장 원융 스님에게 간화선의 '요체' 에 대한 강연을 듣고 있다.

불교에서의 수행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 윤리학 등의 입장에서도 우리 시대 수행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열렸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6~8일 해인사 홍제암서 연 제1차 가산포럼에는 여러 분야 학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둘째날 열린 종합토론에는 30여 명이 넘는 학자들이 학문적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종합토론에서 사회를 맡았던 이승환 교수(고려대)는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수행' 이라는 실천적 주제를 갖고, 절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포럼"이라며 "수행의 의미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외국 유학시절 가톨릭 수도원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진교훈 교수(서울대)는 "절만이 갖는 또 다른 엄숙한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며 "절대자를 통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방영준 교수(성신여대)는 "서양학문을 하면서 내 삶과는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많아 학자로서 고민도 했었는데, 절에서 잠깐이나마 수행을 직접 해보면서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현원스님은 "수행문화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진정한 지성의 의미를 각성토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역사학이나 물리학 등 다른 분야의 학자들을 포럼 때마다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 라는 대주제로 삼국시대부터 근 ·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를 이끌어온 불교지성을 통해 이 시대 지성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을 집중 조명할 가산포럼의 두번째 포럼은 12월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의상대사와 일승법계도

의상 스님(625~702)은 원효 스님과 더불어 한국불교 역사상 최고의 고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에도 스님의 자취가 곳곳에 배어있다. 스님에 관한 자료는 많으나 대체로 중국의 〈송고승전〉이나 〈삼국유사〉의 기록이 가장 믿을 만하다.

스님은 진평왕 47년(625) 진골귀족의 아들로 태어나 19세를 전후하여 출가해 661년부터 670년까지 중국 화엄종의 대가인 지엄 스님에게 화엄교학을 전수받았다. 귀국 후 78세인 702년에 입적할 때까지 화엄교학을 지방에까지 널리 펴 우리 나라 화엄종의 초조로 숭앙받고 있다.

스님의 행적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원효 스님과 다시 유학을 떠나는 도중 무덤에 유숙할 때 원효 스님은 유심의 도를 깨닫고 되돌아갔으나 스님은 죽기를 맹세하고 바다를 건넜다는 것이다. 중국 양주땅에 도착한 이듬해 종남산 지상사로 가서 화엄학의 2조인 지엄 스님에게 화엄교학을 전수받아서, 화엄종의 3조가 된 법장 스님과 더불어 대표적인 제자가 되었다.


◇의상 스님 진영(경북 영주시 부석사 소장).

中 지엄 스님서 화엄교학 전수 조화와 평등 강조…서민층 교화

법장 스님이 지은 〈화엄오교장〉은 중국 화엄종의 교본이 되고 있는데 스님이 그 책의 편목을 고치고 교정하였을 정도로 의상 스님의 도가 더 높았다.

또한 스님의 사상이 중국의 그것과는 달리 화엄학에서도 조화와 평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천성을 주창한 사실도 돋보인다. 이는 스님이 지은 〈화엄일승법계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나아가 관음신앙과 정토신앙을 전개하였다. 실제 원효 스님이 국내에서 홀로 공부하여 경주일대를 중심으로 불교의 대중화 실천화에 노력하였지만 스님은 국제적인 화엄교학을 받아들여 신라의 변방인 영주 부석사나 멀리 양양 낙산사에 이르기까지 서민대중이나 하층민을 대상으로 널리 교화를 하였다.

스님은 가사 세 벌, 발우 한 개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고, 세수를 하고도 수건으로 닦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문무왕이 밭과 노비를 스님에게 하사하였을 때 "저는 법계로 집을 삼고 바루 밥으로 만족합니다"하면서 사양하였다. 또한 민중의 노역이 과중한 것을 보고 "왕의 정치가 분명하면 풀로 금을 긋는 것으로 성을 삼아도 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성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로 축성공사를 중지하게 하였다. 이처럼 스님은 국가와 민중을 위한 화엄사상을 실천적으로 널리 펼쳤는데, 이러한 것이 스님의 사상을 그림으로 나타낸 〈법계도〉에 집약돼 있다.

▨황인규/동국대 강사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 · 선배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혜국스님께서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 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 현 준 원장의
참회 · 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 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 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틔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 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Ⅰ 업장과 참회 Ⅱ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Ⅲ 절을 통한 참회 Ⅳ 참회염불
Ⅴ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Ⅵ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587-6612 · 팩스 : (02)586-9078

찻잔 속에 독을 넣어 달마에게 바쳤는데 …



원로 언론인 **이규행**이 쓰는

달마이야기

(39) 독부양녀(毒婦楊女)

달마는 신광과의 첫 만남이 어긋난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하지만 아직은 시절 인연이 아니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후일을 기약한 달마는 선종이 창성할 예정지인 소실산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동록관(東綠關)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다. 호젓한 길 맞은편에서 웬 여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달마는 순간적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니나다를까 여인은 당돌하게도 먼저 말을 걸어 왔다.

"노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 길인지요?"

달마는 곧이곧대로 대답했다.

"나는 서역에서 왔소이다. 무제와 신광 대사를 제도하려고 왔는데 아직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아 새로이 인연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외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호들갑스럽게 땅에 엎드려 예를 갖추었다.

"스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불법에 귀의해 집에 조그만 법당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잠시 쉬어 가시면 그보다 더한 복록이 없겠습니다."

호들갑 떨며 땅에 엎드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이름은 양연지(楊脂). 달마의 전기(傳記)에 나오는, 악독한 여인의 표본이다. 양연지는 달마가 무제와 신광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먹이는 것을 보고는 '이거,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고 짐작했다. 이 스님을 집에 모셔 환대하면 반드시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심(邪心)이 발동한 나머지 기를 쓰고 달마를 붙잡으려 한 것이다.

달마는 양연지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분명 예사로운 여인이 아니었다. 사심으로 가득 찬 것이 훤하게 보였다. 그러나 이 여인의 청을 야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사심을 시험해 보는 것도 법을 펴는 것이라 여기고 안내하는 대로 따랐다.

양연지는 달마를 법당으로 안내했다. 달마를 법좌 위에 모신 다음 삼배의 예를 올렸다.

"제자 양연지가 스승님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재계(齋戒)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심견성(明心見性)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인연이 있어 밝은 스승님을 만난 것을 특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스승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옵니다. 자비를 베푸시어 제자로 삼으시고, 정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라나이다."

달마는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다. 짐작은 했지만 너무나 저돌적이었다. 달마는 여인의 얼굴을 똑바로 쏘아보면서 말했다.

"지금 그대가 구도발심(求道發心)한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오. 더군다나 여자의 몸은 오루체(五漏體)로서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은 대원(大願)을 세우고, 삼귀오계(三歸五戒)를 굳게 지키고 바른 생각을 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오. 만일 원을 세운 대로 행하지 않으면 도리어 지옥에 떨어질 뿐이고, 만겁이 되어도 구제받지 못할 것이오. 그러므로 두번 세번 생각하고 원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 것이오. 그렇게 가벼이 원을 세우고 맹세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알겠소이까."

달마는 짚신 한짝으로
화신을 만들어 죽은척
"不二法 구하지 않는구나"

달마는 점잖게 훈계하면서 거절했다. 양연지는 조사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황당하다는 듯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연지는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여인이 아니었다. 도리어 달마 조사의 무릎 앞으로 바짝 기어들면서 읍소했다.

"부처님 앞에서 맹세하나이다. 만약 제가 법을 얻고도 스승님의 은혜를 저버리거나 삼귀오계를 지키지 않고 중도에서 그만두는 일이 있으면 영원히 고해(苦海)에 빠져서 만겁(萬劫)을 지나도 삼계(三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승님,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비록 연지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있지만 달마는 그 목소리에 진실성이 없고 도리어 사심이 듬뿍 깃들여 있음을 새삼 느꼈다. 달마는 대답 대신에 게송을 읊었다.

"만약 삼계고해에 있으면서 정법을 구하고자 한다면, 오로지 몸 속에서 동정(動靜)의 공(功)을 밝혀야 하느니라. 법은 만물을 낳고 삼계를 꿰뚫었으니, 도(道)는 천지를 감싸고 허공에 가득하도다. 뼈를 뚫고 골수를 투과하여 이르지 않은 데가 없고, 팔방(八方)에 응현(應現)하니 그 묘(妙)가 무궁하도다.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四大)는 두루 돌아 진정한 주인노릇을 하나니, 안으로는 형상이 없고 밖으로는 흔적이 없구나. 항상 정기신(精氣神) 삼가(三家)가 와서 상회(相會)하면 내외일체(內外一體)가 황금빛을 나타내리라."

교만심이 싹트는 양연지

달마의 목소리는 여인의 폐부를 찔렀다. 연지는 감격하여 어쩔 줄 몰랐다. 달마는 이어서 게송을 몇 구절 더 읊었다.

"사람과 법, 두 가지를 다 잊는 것이 진공(眞空)이니라. 활발하게 동정(動靜)의 공을 닦는 것도 그 속에서 해야 하느니라. 자기 몸속에서 참나를 찾아 얻으면 하늘의 명을 받아 극락궁(極樂宮)으로 비승(飛昇)하리라."

여인은 달마의 법어를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몽땅 외웠다. 혹시 잊을까봐 몇 날 몇 밤을 암송했다. 양연지의 몸과 마음에는 이때부터 뜨거운 열감(熱感)이 솟으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연지는 금새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듯이 기뻤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달마 조사의 구수심인(口授心印)을 받은 때문이라고 여겨졌다. 그렇다면 자기는 이미 전법(傳法)을 받은 법제자가 된 것이 분명한 듯싶었다.

비록 달마 조사로부터 확실한 언질은 없었지만 연지는 스스로 법을 이어받은 것으로 착각했다. 그녀의 착각은 급기야 엉뚱한 상상으로 번져 갔다. 연지는 전법과 관련한 고사(故事)가 머리에 떠올랐다. 명사(明師)로부터 심인(心印)을 받은 제자는 스승을 이어 그 지위에 오른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작자 미상(조선 중 · 말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 서울 미타사 소장).

달마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된 것으로 자부한 양연지는 날이 갈수록 마음 속에 교만심이 싹텄다. 이미 법을 전해 받은 이상 달마를 만나는 것조차 번거롭고 귀찮았다. 만약 달마만 없다면 자기의 존재를 천하에 과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심지어는 양 나라의 무제와 향산사의 신광 대사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 아니겠는가.

양연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달마가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한 그런 날이 쉽사리 올 것 같지가 않았다. 게다가 달마는 좀처럼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연지는 조급한 마음에 마침내 달마를 없애려는 계책을 세우기로 했다. 소리 소문 없이 달마를 제거하는 최상책은 독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엿보았다.

달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연지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직감으로 알아 차렸다. 하지만 짐짓 모르는 척 하고 그녀의 음모에 걸려들었다. 연지는 날을 골라 찻잔 속에 독을 넣어 달마에게 바쳤다. 그것을 받아 마신 달마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숨을 거뒀다.

전기(傳記)에 따르면 이때 죽은 것은 달마의 화신(化身)이라고 한다. 달마는 짚신 한 짝을 벗어 화신을 만들고 본신(本身)은 감추었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연을 전혀 모르는 양연지는 달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동록관의 교외에 매장했다. 속으로는 기뻐하면서도 남들 앞에서는 대성통곡했다. 세상에 스승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연기를 그럴듯하게 꾸며 댄 셈이다.

달마는 그야말로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 동록관을 벗어난 다음 터벅터벅 걸으면서 시 한 수로 속마음을 드러냈다.

"여인이여, 그대를 위해 슬퍼하노라. 너무나 미매하여 자성마저 어둡구나. 기왕에 마음을 돌이켜 재계를 하였다지만, 미처 삶과 죽음조차 규명하지 못했구나. 오루체로는 죄과가 크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전생에 지은 죄가 너무나 미매하여 수행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불편도 많고 힘난이 거듭되니 삼종(三從)과 사덕(四德)으로 타인의 명을 좇아야 하네. 양연지, 나를 만난 것은 삼세(三世)의 행운이거늘, 진정으로 하나로 관통하는 불이(不二)의 법문을 구하지 않는구나. 여인이여, 비록 말은 잘 하지만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 어찌 가벼이 무자(無字)의 진경(眞經)을 전하리오. 겨우 선기(禪機)의 말 몇 가지를 듣고 우쭐하여, 나를 독살하고 뭇 사람의 스승이 되고자 꾀하는구나. 이로 미루어 내가 온 길은 비록 한 줄기였지만, 내가 떠난 뒤 그 길이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릴 것이 두렵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신심 있는 사람을 찾아 도통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라. 혜안으로 사부주(四部洲)를 살펴보니 한 사람도 없구나. 다만 있다면 신광뿐이니 그를 제도하지 못하면 동토에 온 보람을 어디에서 찾으리…."

달마는 신광에 대한 생각이 새삼스럽게 간절했다. 소림사에 주석하고서도 신광과 재회(再會)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달마를 떠나 보낸 뒤 신광은 이상하게도 허전한 마음이 앞섰다. 달마의 모습과 목소리가 마음 속에서 회돌이 쳤다. 신광은 그럴수록 달마를 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애를 쓸수록 달마의 존재는 그의 마음 속에서 더욱 커져갈 뿐이었다. 신광은 중병이라도 든 듯 신음하기까지 했다.

하루는 꿈 속에서 명부(冥府)의 사자를 만났다. 마침 신광이 법단에 올라 설법을 하려는데 열 사람의 사자가 막아서는 것이었다. 신광은 단에 오르지 못한 채 열 사람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디서 왔소. 나의 설법을 들으려면 길을 비키시오."

열 사람의 사자들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들은 유명지옥(幽冥地獄)의 십전염군(十殿閻君)이오. 당신의 법문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명이 다하였기에 온 것이오. 당신의 생혼(生魂)을 올가미에 씌워 지옥으로 갈 것이니 따라오시오."

신광은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른 채 기절초풍할 지경이 되었다.

신광을 제도하지 못하면

"나는 그 동안 49년간이나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해 왔소. 그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노력했기에 무량(無量)의 공덕을 쌓았으리라고 믿고 있소. 그런데도 염군의 손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아무리 법을 설하고 경전을 강론하더라도 우리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오."

"그렇다면 우리 불문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오?"

"그렇지는 않소. 단 한 사람만은 우리도 어쩔 수 없소."

"그 사람이 누구요, 가르쳐 줄 수 있겠소?"

"그 사람은 당신도 만난 일이 있을 것이오. 얼마전 이 곳에 왔던 달마대사라는, 얼굴이 까맣게 생긴 화상이 바로 그 사람이오."

이 말을 들은 신광은 너무나 놀라 식은땀을 흘렸다. 그런 훌륭한 스승을 박대하다 못 해 쇠염주로 내리치기까지 했으니 될 말이 아니었다. 우선 염군에게 달마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었다.

레이키(Reiki 靈氣)를 아십니까?

레이키는 이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는 「사랑빛의 생명에너지」이며 즉 고급 氣입니다. 이것을 끌어다 쓰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단 3일 동안의 교육으로 전수해 드립니다.

1. 레이키 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3일. 교육비 70만원)
   - 의사, 한의사, 간호사, 대체의료 종사자,
   - 성직자, 호스피스 봉사자, 개호복지사, 간병 봉사자
   - 만성병 환자 혹은 그 가족 특히 불면증 환자
   - 가정생활에 레이키(氣)를 유익하게 사용하려는 분
2. 레이키 요법의 효과
   사람은 병이들면 氣에너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하합니다. 레이키 요법은 저하된 氣에너지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 환자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 되도록 돕고 특히 우울증, 불면증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여러가지 질병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3. 레이키를 교육받으면
   - 모든 질환에 대한 요법이 대체로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쉽게 쓸.수 있습니다.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기서 원격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작용이 없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 생활의 여러 방면에 걸쳐서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레이키 마스터 박희준)

전화 : 02) 720-5682 / 팩스겸용전화 02) 720-57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www.Reiki.co.kr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걸어서 5분. 피어선빌딩 외환은행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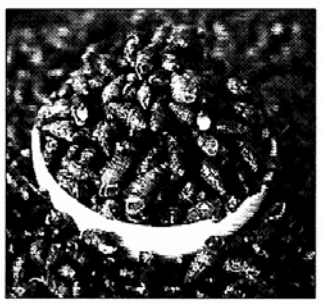
지리산자락 무주구천동 신비의

다슬기 농축액

당신의 **"간·간·간"**

간염, 지방간, 간경화, 간질환… 걱정되시죠?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일주일 철야 용맹정진 법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삼각산 조계종 보림사 보림선원에서는 七日간 철야용맹정진을 아래와 같이 하옵는바 보림三關(不去不來處 生者何物 滅者何物 泰山刮目來 綠水掩耳去, 心外無法處 迷者何勿悟者何物 古路草自青 正邪俱不用, 人我皆空處 說者何物 廳者何物 若論今日事 忽忘舊時人)을 主題로 法門을 하며 二十一世紀 앞소식인 人天의 眼目을 열어가는 活句 大乘禪을 薦揚 하고자 하오니 뜻있는 禪友는 來參하여 서로 탁마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1년 7월 27일(금) 오후 8시부터 2001년 8월 2일(목) 오전 7시까지
- ▲장 소 : 보림사 선방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02)914-6187
- ▲회 비 : 일반 7만원 (1일1만원 기준)
- ▲연락처및 문의처 : 017)332-4096 / 02)914-6187
- ▲교 재 : 유마경, 금강경, 82-85년도 철야정진 법문
-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세면도구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돈암역에서 하차 - 1, 3, 5, 5-1, 16, 710번 청수장행 버스 승차 산장아파트앞 하차 (돈암역에서 25분 소요)

조계종 **보림사 회주** 묵 산
보림회 회장 이수열 합장

종립학교를 가다

(6) 능인중·고등학교

논어(論語)에 보면 '육십이이순(六十而耳順)이라는 말이 나온다. 나이 육십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순리대로 이해한다는 뜻이다. 6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능인중·고등학교는 이순의 의미처럼 교육에 대한 순리를 아는 학교다. 즉,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과의 경우 선생님들이 특기적성연구회를 만들어 고전, 현대문학, 특기적성 교육 및 수행평가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홈페이지(www.openschool.cjb.net)를 통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있다.

대입 전국수석 두차례… '적성교육' 중시

62년 역사·전통 자랑 | 수업전에 법당참배

교과연구 최우수학교 | 학부모가 시험감독

이같은 노력으로 99년도 교육부 주최 교과교육 연구 최우수 연구회 선정되기도 했다. 또 영어과도 홈페이지(engclass.wo.to)를 개설, 학생들에게 대학입시에 필요한 중요 어휘 및 회화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교생활을 반성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능인만의 교육 노하우다.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급신문 발행을 통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학급신문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적 인간형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지적이고 이론적인 면에 편중되어 있는 교과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특기 적성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중학교는 독서신문을 제작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우수 학생들을 위해 정진실을 운영,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들의 결과는 고등학교의 진학률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대에만 매년 평균 22명이 진학하고 있고 그동안 대학입시에서 두 차례나 전국 수석의 영광을 안았다.

'불타 정신 구현'을 바탕으로 도덕적이고 창조적인 민주 시민을 육성하고 알찬 면학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밝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인간상의 확립'을 지향한다는 건학이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능인은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학교다.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개별적으로 법당을 참배, 정법으로 더 좋은 교육을 하겠다고 서원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또한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실시, 올바른 가치관 및 정서 함양에 매진하는 한편 매주 월요일 1교시에 진행되는 법회조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길러 주고 있다.

능인은 학생·교사·학부모간의 신뢰가 강한 학교로도 유명하다. 중학교에서는 시험감독을 학부모가 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와 학교의 유대관계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입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고교생활 길잡이〉도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1939년 설립된 능인 중·고등학교는 이사회와 동창회 학교당국의 화합 아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한 교육을 실시, 전국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서울의 강남에 비유되는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능인중·고등학교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1939년 영천 은해사·대구 동화사·김천 직지사·의성 고은사·경주 불국사가 사재 출연해 설립, 현재 이사장 정휴스님의 지원 아래 중학교 1237명, 고등학교 1474명의 청보리들이 오늘도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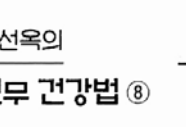
6만명 각계 눈부신 활동

총동창회

능인 중·고등학교 총동창회를 보면 역시 능인이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6만 여명의 졸업생들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법조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능인인의 기개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상주지방법원 지원장, 배광식 대구시청 산업경제국장, 박정주 2군 참모장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능인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총동창회는 재경, 재부산 등 지역별 동창회와 청년, 장년 등 나이별 동창회 그리고 법조, 공무원, 군, 언론, 건설 등 직업별 동창회 등 소모임이 활성화 되어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체육대회 등 왕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동창회는 올해를 동창회관 건립의 원년으로 삼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배칠근 총동창회장은 "동창회관 건립과 함께 동창회보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선후배와 동기간의 우의를 다지는 것은 물론 모교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웃음을 내짓는다.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⑧

• 스트레칭 •





1.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손은 위로 올리고, 무릎을 세운 자세를 취한다.

2.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부터 들어올린다. 단전부위가 위로 올라가면서, 단전에 모였던 피가 상체로 이동한다.

누워 배들어 올려

처진 자궁 바로잡기

3. 다시 처음 상태로 천천히 엉덩이를 내린다. 이때 스트레칭의 중심을 천천히 목에서부터 척추, 단전으로 이동한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를 내린다. 뱃가죽이 땡기다가 편안해진다.

4. 다시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고 '뭐' 하고 소리를 내면서 엉덩이를 서서히 올린다. 목에서부터 척추를 지나 바닥에 지긋이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내린다.

5. 다시 '꼬' 소리를 내면서 한번 더 반복한다. 엉덩이를 내릴 때 마치 목뼈를 다림질 하듯이 차근차근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내리는 것이 동작의 핵심이다. 이 스트레칭은 서서 많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또한 여성의 경우 처진 자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지역불교 문화기행

더위 식힐 동해 3寺 순례

7월: 건봉사·낙산사·등명낙가사·정동진



무더위가 시작되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시원한 해안가에 위치한 사찰을 찾아가는 삼사순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대웅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일출이 장관인 등명낙가사에서는 인간문화재 유근형씨가 5년에 걸쳐 만든 오백나한상을 친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드라마 〈모래시계〉의 촬영지로 유명한 정동진역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세운 최초의 화엄도량 낙산사에서는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상(사진)과 의상대사가 관음을 친견한 기도처인 홍련암을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길에는 염불만일회의 발상지이자 부처님 진신치아 사리가 봉안돼 있는 금강산 건봉사도 찾아갑니다.

◇출 발: 7월21일(토) 밤11시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5만5천원(조식·중식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 (주)한화여행

"남 먼저 생각하는 사람 길러"

능인고 손기완 교장

능인중 조정래 교장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학교에 출근, 법당에서 삼배를 하며 하루를 계획하고 정진관 학생들과 씨름부 학생들을 보살피는 손기완(사진 위) 능인 고등학교 교장은 건학이념을 통한 교육이 바로 능인을 전국 최고의 명문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학생들에게 인사 잘하기 등 기본을 철저히 지키라고 가르친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생기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능인고 교감시절 대구 교사 불자회, 파라미타 창립을 주도했던 손 교장은 청소년 포교가 중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능인중학교 조정래(사진 아래) 교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교육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실시하며, 지식보다는 지혜를 가진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법사실에서 | 아용 스님·이종서 법사

"부처님 대하듯 신행 상담"

능인 고등학교 학생들은 합장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10년동안 교법사로 재직중인 아용 스님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법당인 반야전에 머무르면서 매일 아침 새벽예불을 올리며 수행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아용스님.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학교 신행활동을 주관하며 교직원들의 신앙심 고취에 열심이다.

79년 부임한 중학교 이종서 교법사는 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삼촌과 같은 존재다. 또한 파라미타, 불교학생회 지도는 물론 대구지역 불교행사에도 주도적으로 참석하며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아용 스님



◇이종서 법사

동아리 탐방

씨름부

훈련 명상 도입 각종 대회 석권

능인중·고등학교 씨름부(감독 허만석)는 지난 6월 21일 서울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서울시장기 전국 장사 씨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91년 창단된 능인 씨름부는 짧은 전통에도 불구하고 지난 98년과 99년 대통령배와 시도대항전 등 5경기에서 종합성적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다른 학교 씨름부에 비해 선후배간의 정이 돈독한 씨름부원들은 하루 6시간의 강훈련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겨울에는 동화사에서 숙식을 하며 산악훈련과 함께 명상을 통한 집중력 강화 훈련을 가져 주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교장선생님과 동창회, 학부모의 후원아래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는 씨름부는 오늘도 능인의 또다른 역사를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을 한곳에서 만날 수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뚝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내면의 보배 찾을 때 마음 평화로워

불보살 가피도 타력인지요

문 진정한 보살정신은 모름지기 모든 중생이 성불한 다음에야 마지막으로 자신도 성불하겠다는 발원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의 성불을 기약하시며 몸을 나투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수억 겁의 습에 찌들어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성불하기란 요원하고 자신의 성품을 보는 일조차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중생들은 자연히 제불보살의 가피를 빌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견성 성불을 바라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비는 것도 타력신앙이라 하여 배척할 일 인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 밖으로 빈다면 그것도 타력이지요. 유마힐거사가 아파서 문수가 병문안 왔을 때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겠노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모든 것을 착수 해놓고 물건을 만들어서 시중에 내놔야 다른 사람들을 구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에 중생들을 먼저 제도시켜야 법신 · 보신 · 화신이 충만하게 화해서 바꿔져 털구녕을 통해 들고나면서 응신이 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제도가 돼야 마지막 자기가 성불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완성하려면 내 속에 있는 중생부터 다 제도시켜야 만이 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둘로 보고 망상이다 뭐다, 또는 어떤 애고가 오면 밖으로만 온통 빌고 야단법석을 딴 데다가 하느냐 이겁니다. 그게 무슨 격이냐 하면 길을 가다가 엎드러져 놓고는 일어나려고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땅에서 엎어졌으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지 어떻게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보살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아무리 불보살님께 빌어 본들, 과거에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됩니다. 나를 깨닫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먹어야 되는 법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만이 똥을 눌 수 있고, 잠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죽는 것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고요. 이 다섯 가지만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마음 찾는 건데,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건데 대신 누가 밥을 먹어줍니까? 타력이니 아니니 하고 분별하지 말고 진정 나를 발견해서 자유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상 너무 불공평해 보여요

문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나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착하게 사는 건 바보 같고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나 나쁜 짓 안하고 착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상처받는 게 업 때문이라니 너무 불공평해요. 평생 자신이 의식하는 시간을 착하게 산 것으로 보답 받으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요. 부조리로 가득 찬 것 같아요.

답 악과 선이 어찌 없겠소? 그렇지만 고정되게 선이다 악이다 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모두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마음이란 그 놈이 도둑질도 시키고 선한 일도 시키고 좋은 일도 시키지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짓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악한 짓만 하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타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모두가 찰나찰나 화하기 때문에 평소에 착하던 사람도 앞에 일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또 나쁜 짓을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일이 눈앞에 닥치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 나쁜 일 하는 사람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찰나찰나 바뀌니까 말입니다. 어떤 것을 나쁘다고 하고 어떤 것을 좋다고 할 수 있겠느냐. 마음을 바로 쓸 때는 착하게 되고, 또 한 생각을 잘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엣날에 한 강도가 어느 수풀 속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어린애를 등에 업고 안고 걸리면서 엉엉 울고 가더랍니다. 그런데 밥도 못 먹여서 애들이 "엄마, 밥줘! 밥줘!" 하고 울고 가는데 참혹해서 그 강도가 볼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강도가 아닌 척 하고서는 다가가서 "어린애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먹을 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먹을 것도 없거니와 남편도 불잡혀 가서 영 오지 않고 집도 오막살이 하나 있던 것을 뺏기고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강도질하면서 뺏어서 넣어뒀던 돈을 그 아이들 어머니에게 주면서 오두막이라도 하나 장만하고 먹고살라고 하면서 먹을 거 조금 집어 온 거는 그 애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도둑질을 하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하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길에 가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발길로 차면서 말리는 척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요. 말리는 척 하면서 돈을 얻구요.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가지죠. 돈을 좀 달라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구가 돼서 휠체어를 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버젓이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남 보는데 이렇게, 그 마음이 말입니다.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쑥스러워 할까봐 몰래 그냥 넌지시 얼른 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아주 비싼 값에 다 팔아주고 가기도 하구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육신이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깎아서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 얼마나 천차만별입니까? 그 마음들이.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모르니깐 도둑질도 하고, 모르니까 어리석은 짓도 하고, 모르니깐 나쁜 짓도 하는 거지 마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몰라서 그러죠. 알게 될 때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가 없다고 할 수밖엔 없습니다. 모두가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붙을 자리가 없죠. 왜냐? 쉴 사이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거기다가 되 입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게 그거죠. 주인공에서 나오는 모든 거, 일거수 일투족 나오는 거, 속에서 들끓어서 나오는 거,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는 액운,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가 맡겨라. 그러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며 새 입력으로 들어가면서 새로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온다. 즉 말하자면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통하는 통로는 그 자리밖엔 없다는 겁니다. 우주하고도 통하는 길이 그 자리밖에 없고, 모든 일체만물하고도 통하는 길은 거기밖엔 없어요.

그러니 나쁜 짓을 했으니깐 나쁜 줄로 알지만 가만히 지켜보면 매양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꾸 자꾸 마음을 내 준다면 선한 길로 접어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골어서 건져라' 하는 거예요.

> 대천세계 모든 생명
> 모두 내가 될 수 있고
> 내가 행할 수 있고
> 이끌 수 있어야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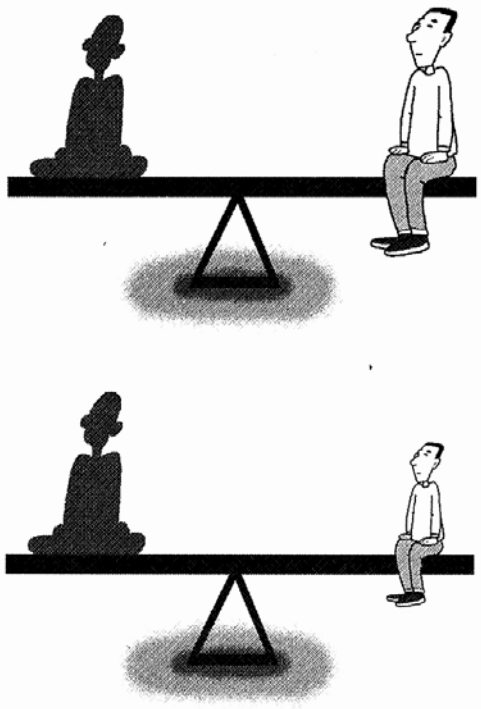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식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문 가슴 답답할 때마다 삼배 올리는 신도입니다. 그토록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던 남편을 안보면 끝일 거라 등을 돌렸더니 남편보다 더한 스승이 있는 줄을 미쳐 몰랐습니다. 13세 된 제 아들 녀석은 책만 펴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을 그렇게도 아프게 만들어 놓고서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야만 공부를 제대로 한답니다. 모습만 다를 뿐이지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그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키워야 좋은 자식 인연되게 키울 수 있는지 스님의 크나크신 가르침 간곡히 바랍니다.

답 부인이라는 인연이고, 어머니라는 인연이니까요! 위에서도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회사의 중역으로 있는 사람은 그런 소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살님도 자식의 어머니요,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되기 전하고 어머니가 되고 나서는 다릅니다.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더러운 것도 볼 수 있고 망난이 짓 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거고 너그러움이 있는 거지, 만약에 어머니가 되기 전에 다른 집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버이가 돼서 자식들을 내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부처의 마음이 모두 갖춰져 있느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은 찰나찰나 나투면서 아니 되시는 게 없기 때문에 맑은 물에다가 비유를 하고 바다에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식, 내 재산, 내 것만 아는 것은 개별적인 그릇의 얘기고, 부처님께서는 대천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다 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행할 수가 있고 나로 나투면서 이끌어 주시는, 말하자면 일체 보살이 다 이름이 각각 있는 보살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체 각계각층 중생들이 다 될 수가 있으니까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책임을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로 행으로, 또는 무엇을 살 돈을 잘 주거나 옷을 잘 입히거나 잘 먹인다고 해서 부모가 제대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정신력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사랑을 하는 거고, 자기 진짜 보배를 찾게 하는 것이 전 세계, 전 우주를 맡겨 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물질적인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준다 해도 자기 진짜 보배를 알게 해주는 것보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사랑이 없고 어떠한 문제가 있거든 그대로 사랑하면서, 그대로 부드럽게 행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다 맡기면 서로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남편이다 부인이다 하는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망하게 하는 나쁜 습성을 고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또 자식도 육신을 잡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단 하나 그 업식을 녹여주면 스스로 밝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주인공에 둘 아니게,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 거기서 만이 부드럽게 행하고, 아주 정말 보배스런 인간으로서 자유인이 되게끔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풍족한 사람이 되고, 모가 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비롭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싱싱하게 키워주고 보배를 찾게 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해 보세요. 나가서 뭐 어떻게 하더라도 절대로 욕하거나 때리지 말고,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은 업보가 그러는 거니까, 의식들이 그러는 거니까 주인공! 뿌리는 나하고 둘이 아니니까 주인공만이 해결 할 수 있다고 믿고 맡기세요. 즉 말하자면 뿌리만이 싹을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진실로서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苦)의 테두리에서 몰록 벗어날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모두 착한 자식이 되고 화목을 가져오니 부부지간에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가정의 질서를 문란치 않게 할 수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해보세요.

'이뭣고' 의심 꼭 내야 합니까

문 스님의 무애설법에 감사 드리며 가르침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헌데, 참선을 할 때 큰 신심, 큰 의정, 큰 분심이 있어야 하며 특히 이뭣고 하고 의심을 하라고 하는데 꼭 의심을 해야하는지요. 저는 그냥 지극히 내 마음을 관하기만 합니다.

답 공부를 처음 시작했다면 그렇게 의정을 내는 거는 좀 힘들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이뭣고' 하고 의정을 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뭣고'를 줬을 때는 벌써 그걸 알고 줬단 말입니다. '이뭣고' 하고 줬으면 이뭣고에다 모조리 다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정입니다. 그런데 놓지를 못하고 전부 '이뭣고' 하고 그냥 거죽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되죠.

'이뭣고'를 준 자체가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이뭣고'도 놔버려야 돼요, 몰록. 의정을 따로 가질 게 뭐 있습니까. 이뭣고를 줬으면 의심말고 믿어라 이겁니다. '이뭣고'에다 그냥 내 몸이고 뭐고 전체를 다 놔 버리는 거예요. 몰록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게 '하, 이렇게 희한하구나.' 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는 안돼요. 이뭣고도 이름일 뿐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스님이 주셨다는 것에 매달려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된다면 그것이 방하착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릇되게끔 착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는 생각들에 젖어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이고, 그렇게 다 놓으라니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러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걸어올 때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한 발 들고 한 발 놓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걸 짊어지고 다니느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살림하는 게 그렇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대로. 붙들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온통 붙들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그것대로 그냥 순응하지 못하고 매일 걸리는 거죠.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을 자기가 만들어 나오지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 세월을 다 보내지 말고 그냥 바로 들어가세요. 너가 너를 끌고 다니니까, 너가 끌고 다니니 그대로 맡기고 그대로 지켜봐라. 못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잘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잘 굴림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잘됐으면 감사하게 놓고 거기에다 맡겨라. 주인의 구멍은 그 한 구멍밖엔 없다.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들고나면서 당신 끌고 다니는 거를 주인을 삼아서 꼭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스스로 깨우치면 자기 고삐도 없어지고 소도 없어지고 하듯이, 자기 주인이라는 이름조차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이 육신을 가

☞ 20면으로 계속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내가 벗어나야 남을 벗겨줄 수 있어

☞ 19면에서 계속

지고 나온 것이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니까, 그대로 그 공이 화두니라.' 한 겁니다. 내 육신 나온 것이 화두이자 공이고, 공이자 화두이니까 지금 원형을 이루고 돌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과거심도 현재심으로 돌아오고, 미래로는 아직 가지 않았으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대로, 내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고정됨이 없이 공하였으니 공에서 나오는 것을 화두로 삼고 그대로 공에다 일임해서 맡겨 놔라.' 이겁니다.

그러니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것을 근본에 맡겨놓고 오직 일심으로 믿고 들어갈 수 있어야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를 자기 자신이 자유스럽게 충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 의 뜻

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게 보통 화두문자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쉽게 일러 주셨으면 합니다.

답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뭘 먼 데서 찾습니까? 그대로 아닙니까? 한 사람이 스스로 열 가지 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열 가지 행했다고 해도 줄지 않고, 만 가지 행을 한 것을 들여도 두드러지지 않죠. 우리 생활에 전체 들고나는 그 문은 하나이니까요. 문이라고 해서 이상스럽겠지만 말을 해야 하니 어쩌겠소?

여자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자의 행을 해야 하고, 남자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남자 행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났으니 그게 바로 생활법이요, 그것이 참선이요, 그것이 행입니다. 하나로 들고 하나로 나고, 그게 그대로 행이에요. 여러분이 나오기 이전 그 자체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콩 나무가 콩 씨를 찾는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콩 씨가 콩 나무로 화한 줄 모르고 콩 씨를 바깥에서 찾으니 찾을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콩 나무에 열린 콩 씨가 하는 소리가 "이놈아! 그 콩 씨는 여기에다 두고 바깥에서 찾으면 어쩌느냐?" 하니까 "어허! 콩 씨가 여기 있네."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콩 나무가.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굼벵이가 매미가 됐는데 매미는 자기가 전자에 굼벵이였었다는 걸 모르고 굼벵이는 매미가 됐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한 꺼풀 한 교차로인데, 그 교차로를 통과를 시켜서 벗어나려고 우리는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를 틔우고 지혜를 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마음에 들었다 한마음으로 내고 한마음에 들었다가 한마음으로 내는 거니까, 잘했든 못했든, 악이든 선이든 전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기 주인공 그 하나에서 모든 게 들고난다는 그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수화풍과 오행설의 관계

문 스님, 저는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청년 법우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지수화풍 사대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하고, 유교에서는 음양오행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지수화풍과 오행설의 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답 눈이 가는 데 귀가 가고 귀가는 데 눈이 가는 것을, 이름만 각각인 걸 가지고 뭘 이거니 저거니 따집니까? 직접 마음으로 먹고 싶으면 바로 먹는 걸 얘기하는데 아니 말이 왜 거기 붙어 돌아가겠습니까?

나는 오행설이 옳으니 사대가 옳으니 하는 말담을 하려고 이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다 필요가 없어요. 수만 년을 한다 해도 말은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아무리 해도 갖다 먹지 못한다면 그 소리를 수백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소리가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목마르면 그냥 갖다 먹는 것이 행이에요. 이 행을 못할지언대 아무리 여러 말이 있어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서 탁 마시듯이 그렇게 마실 때 아무 이론이 거기 붙지 않듯이, 그게 바로 묘법이에요.

사람이 자기 몸뚱이 속에 그 많은 의식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빈집이라면, 집 주인이 없다면 그 속에서 막, 공장에서 파업을 일으키듯이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영계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또는 세균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이 비었으니까 마음대로 들락거리거든요. 그런데 집 주인이 있다면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 집주인부터 완전히 믿고 둘이 통해야,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됨으로써 또 바깥으로 둘 아닌 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도리를 배우세요. 이론을 떠나서 내면의 보배를 찾으세요. 내면으로만 찾고 들어갈 수 있다면 마음이 평화스러워지고 내가 나를 발견해서 자유인이 되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한마음으로 리드하면서 화합을 가져오게 되고, 화합을 가져오게 되면 건강하게 되고 병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도리를 배워서 모든 것을 화합하게 할 수 있다면 내 가정도 화합과 또는 우애와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는 나 하나도 그렇지만 세계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평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 이 지구의 수명도 늘이고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태양과 모든 월세계, 모든 혹성들도 나 아님이 없이 그 우주의 태양, 광대한 은하계,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그 별들을 바로 요 한 점의 생각, 한 점의 생각으로 다 쌀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중세계에 나는 사람들은 부처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리권을 가졌기 때문에, 권리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무한의 능력을 여러분이 쓰지 못해서 못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첫째, 자기의 그 깊숙이 있는 한 점의 자기를 찾았을 때에 비로소 마음의 금궤를 찾을 수 있고, 자석도 찾을 수 있고 또는 자가발전소가 설치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자가발전소 또는 자석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데 발견을 못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 깊숙한 자기의 한 점을 찾기 위해 오직 힘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불경보다 세상사 가깝게 보여

문 도를 닦아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스님들이나 도인 노릇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문화 생활도 알고 보면 다른 선각자들의 피눈물나는 땀과 지혜의 결실로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를 따 먹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과거보다 오늘이 배고픔을 모르고 병환에 덜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 문학을 하는 사람, 의학을 하는 사람 등등으로 인하여 오늘의 인간사회는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발전이지 내적인 발전이냐 하고 반문하실 지 모르지만 절에 조용히 앉아 일체의 번민을 끊고 염불하시는 것도 중요하나 현실에 더 가까이 앉아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나 불우한 이웃들의 냄새나는 대소변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내는 훌륭한 이웃들의 모습에서 진정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부처인척 하는 헛된 부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씨를 지성껏 심는 농부의 얼굴이 부처요,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진지한 얼굴이 부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중생들의 삶과 멀리 계시는 스님들의 이야기는 항상 어려운 법문, 중생들에게는 선문답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에겐 세상사 걱정하는 갑남을녀의 진솔한 이야기가 불경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요.

답 지금 질문하신 분은 자신의 생각이 전체를 위하는 생각이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에 옳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이것이 올바르고 저것은 틀리다고 세우는 생각이 나와 남을 가르고 자신을 고정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개별적인 하나의 생각으로 산다면,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만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낫다, 저것은 필요하고 이것은 필요치 않다, 이것은 좋은 일이고 저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반씩 있다는 겁니다. 가는 길과 오는 길 이 두 개가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작용을 못하는 까닭에, 사람들이 오는 것만 알고 되돌아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고정관념에 가려서 살게 됩니다. 물질계와 정신계가 한데 합쳐져서 작용을 해야 보이지 않는데 50%에서 보이는 데로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도 헤어나기가 힘들고 그냥 여지껏 물질 세계에서 살아 나온 관습, 인과, 업보, 유전 이런 걸로 꽉 뭉쳐서 돌아가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같이 돌아가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단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도 도와주면서 서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벗어나게 해 줄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죽는 거를 가리지 않고 다 버린다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다고 말입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이거는 된다 저거는 안된다 할 것도 없고, 이거 되게 해주쇼, 잘살게 해주쇼 잘 먹게 해주쇼 이럴 것도 없을 거고요. 나는 여러 세월을 돌아다니면서 불쌍한 사람도 알게 됐고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알게 됐고 인생 살아나가는 게 다 이렇고 측생 살아나가는 게 다 이렇고, 모두가 죄가 있다면 한 가지 모르는 게 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 위대한 보배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죄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항상 껍데기의 노예가 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다가 벗어나지 못하게 돼서 또다시 또 구르고 또 구르고 그런다면 그 불쌍함을 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 먼저 밝히라고 했습니다. 꼭 스님이 됐다고 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장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가다 보면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건지게 돼 있습니다, 길에 가고 오다가도 건지게 돼 있고요. 얼마나 멋진 줄 아십니까? 남이 보기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길에 다니다가 그런 모순된 일을 보게 될 때에, 길을 가다가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참다운 인간의 본능과 자비와 더불어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기쁜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과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한 마음 주인공이다 하는 것도 이런 포괄적인 하나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같이 기쁨을 가지려 한다면 진정 알아야 되고, 진정 해야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길이 내 생활과 따로 떨어져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살리는 속에 부처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불법이라고도 했고요.

그러니 내 안의 근본의 능력을 진실로 믿고, 내 한생각에 나와 남을 더불어 함께 밝힐 수 있다면 더욱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계 지워진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찰나에 뛰어 넘을 수 있는 이 마음의 도리를 배워서 소중한 마음씨를 일체중생을 위해서 회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사랑하는 부모마음이 곧 부처

말썽피우는 자식 업식 녹이면 밝아



그림 · 최주현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四柱命理와 일반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役者用」神示出刊
改訂增補版

전 내용이 한글에 한문 토(吐)가 달려 있어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말하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총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참석하시면 이 책을 더 밝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밝게 보실 수 있는 요령이 녹화테이프로 제작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십시요

★래방인에게 던질 첫 말을, 초사(初辭)란에 송곳같이 적시(摘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붙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입문서가 아닌 천역자용으로서 즉시적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을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당위의 시간만 펼쳐 보면 손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놓았음은 물론, 때로는 관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비법들을 요약 ·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천화관이나 사람이나 무속점이나 한의원에 사람이 들어서거나 전화했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년월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비칠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테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난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저지른 일인지,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천심이 악한지 순한지, ●나에게 이익을 사람인지, 피해나 손해나게 할 사람인지, 무력인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란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답안처럼 보면 알 수 있도록 제시해 놓아, 미리 그 내용을 지적하므로서 객사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常生活에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편리上투사으로서의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존경 · 귀의 받을 수 있는 비법관도는,

- 악속인이 올지, 안올지.
- 돈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누구로부터 될지.
- 매매가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언제 될지.
- 임태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수술해 날 아이인지.
- 혼인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부탁한 건이 이루어질것인지, 속을 것인지.
- 이사 방위는 어느 택이 좋을 것인지.
- 계획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치료 될 수 있는 병인지 못 고칠 병인지, 언제부터 차도가 있게 될 것인지 차당기 순조로울지 더딜지.
-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위로 도망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부사에 이길지, 질지.
- 온 사람을 재워야 할지, 재워서는 안될 것인지.
-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해가 될 사람인지.
- 내일 비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육임 세밀정단법 출시중

등에 대해서도 즉시 딱부러지게 알아 답변할 수 있도록 간추려 놓았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60甲子 매일 매시간별로 객사의 사정을 探出해 놓아, 만나기나 전화할 시간만보면 그 사정이 환히 드러나게 되어있고, 집안을 떠나 부재중일때는 1시간 후든, 하루 후든, 열흘 후든, 1년 후의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호흡 및 表情을 미리 남짝와 시간별로 예시해 놓을 수 있어, 가히 神通의 결지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예사로운 책이 아니고, 五行 또는 法力의 경지를 유감없이 과시할 수 있는 神器 · 神示가 담겨진 책이므로, 일반인에게 弄斷되지 않도록 음양오행가 · 무속인 · 스님 · 의사 등 活人專門人에게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 삼십오만원(₩350,000)
- 책 집 : 영구 보관용으로 제작(책크기는 가로21cm×세로30cm) (흑색 표지 · 양장제본 · 금박 · 190g레이지 · 白 색용지 · 옵셋인쇄)
- 입금처 : 한빛은행 066-475024-02-001 김 나 려
- 배 달 : 입금 후 전화하시거나 우편환 송금하시면 즉시 책배 우송해 드리므로 당일, 또는 그 이튿날 받아 보시게 됩니다.
- 전 화 : (02)993-8680
- 주 소 : 서울 강남구 수유 3동 190-49호 임신빌딩 401호

도서출판 복 문 대표 김 나 려
· 출판사등록번호 강남 제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봉 210-90-48989

책값이 他 易書에 비해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역자용이므로, 이책을 활용하여 획득 된 영성과 학문성취감에 비하면 매우 싼 값이 될 것임을 주지해 드리는 바입니다. 내용이 심망되실 때는 즉시 대금을 반환하겠습니다.
본책 휴대용은, 본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해 값50,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법들은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일 · 시(每日 · 時)별로 적시하여 놓았습니다만, 그래도 혹, 의문되시는 점이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오. 저자인 葵卜子 神史선생님과 언제라도 친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동래식물원에서 신성북으로 100M쯤의「기원정사」에서 설명회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卜 問 배상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寧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2004

불자정보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학인모집(통신생포함)
- 과목 : 풍수, 역학, 침술 • 자격 : 학력, 연령제한 없음
- 각과정 : 6개월 졸업, 수료증 수여
- 강사 : 스님(불교대 및 승가대 교수)
- 수업시간은 개인과 단체의 사정에 고려함
기숙하면서 공부 가능함
■법당단지내 : 휴양시설인 황토방찜질 사우나, 피부미용실, 커피숍, 노래방, 식당 있음
주소 : 전남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173 봉나무 가든내 원봉사. 승가대
☎ 061)334-9930
H · P : 016)639-9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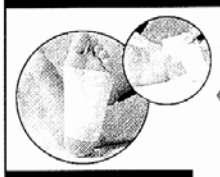
찬불가 피아노 렛슨
방송피아니스트 도연
◇ 합창반주반 ◇
1. 체르니 수준을 치셨던 분
2. 기본적인 코드는 알아도 세련되게 응용이 안되시는 분
3. 악보는 잘 치실 수 있으나 멋있는 편곡 변화를 모르시는 분
4. 찬불가를 대충대충 치실 수 있는 분
5. 찬불가 합창단의 반주자가 희망이신 분
◇ 가요 · 팝송 · 가곡연주반 ◇
클라식과 째즈를 응용한 예술적 연주를 배우실 분
◇ 직업연주반 ◇
전공자 및 피아니스트 희망자
에드립 및 째즈와 클락식과 실용음악을 응용
■ 연주를 들어 보신 후에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도연피아노학원 02-834-2270/011-663-2270

연꽃그림에 부처님 말씀담아 드립니다
- 한지에 수묵담채화
- 크기 : 소, 중, 대, 특대, 주문형
- 종류 : 미표구, 족자, 부채(접이), 평면
- 가액 : 최소 창작 비용
각종 불자 보시용, 도반 선물용, 포교용
※ 사찰행사 시연전시 접수중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농협 150039-56-064426

암자 및 토굴터
- 지리산 쌍계사에서 1.5Km
- 계곡낀 동남향 경관수려
- 부지조성
- 대지 380평 임야 600평
- 주인직접
- 가액 5500만원
011)559-3501

동진기획 불교달력
www.BuddhaComputer.com
불기2546 임오년 Calendar Catalogue
불교카렌다 불교출판물
법보시책자 홍보물제작
부산 금정구 남산동 120-30번지
동진기획 & 도서출판 동진 대표 : 강태규
TEL 051-515-2988 H/P 011-554-2988
FAX 051-515-3611
TUNHWANG.COM

의식 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木목酢초 수액원기시트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약물 복용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자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중풍 마비가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걸을때 당기거나 통증이 오는 어깨, 허리, 등, 허벅지, 무릎등의 불쾌감이 없어져 몸이 기쁜합니다
독소배출 자기눈으로 확인!!
삼보기업 TEL : 02)2279-2715 H·P : 011)397-2715

최준 작명 아카데미
아기 이름 전문 상호 · 아호 · 회사명 · 개명
이름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좋은이름은 좋은 운을 부른다
☘ 좋은이름이란 : 아기의 출생 년 월 일시 (사주)를 기초로 성명학에 근거하여 아기에게 꼭맞는 맞춤이름을 작명하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으로 아기에게 건강과 행운을 주십시요
■ 1호점 : 종로점(인사동 조계사 건너편) TEL 02)730-4522 FAX 02)3665-4760
■ 2호점 : 강서점(미즈메디 병원옆) TEL 02)661-4550 H·P 011)9005-4550
■ 국민은행 : 748-21-0230-480 최규하 ■ 불자님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국내최초 태아 영가 도량인 구담사에서는 미처 세상의 빛을 보기전에 생명을 잃어버린 태아는 부모 형제에게 원결이 되어 무주고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을 천도재 지내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특히 대학입시 취업 사업자는 기도 동참 하시길 바랍니다.
■ 천도재는 3월 9월
대한불교 조계종 구담사 031)533-2855

탈 종 공 고
사 찰 : 법연정사
주 소 :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도리 중촌 45번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원조 농산(어성초·삼백초)
덕유산 해발 800m에서 재배한 신비초! (순수한 자연산)
「어성초 생즙 출시」(8월달까지)
어성초 · 삼백초 건강차와 동시상담
❖ 효능 : 청혈작용, 독소제거, 면역력 증가, 뇌졸중예방, 중풍 · 치매예방, 변비, 다이어트, 알레르기 체질개선 등
서울지사 02) 957-8342 508-0867 011)479-0633

공양주 구합니다
▷ 솜씨가 좋으신 분
041)337-4350

명상 수련 안내
苦 - 삶이 괴롭고 고달픈 것은 나로 인한 것이며
集 -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잘못된 생각의 기록물(업)로 인한 것임을 알고
滅 - 이것을 자기 스스로 소멸시키도록 안내하면서
道 -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인지, 결국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게 되어 진정 자유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명상의 집 SATSANG 전화 031)768-7180

목조 건축물 보수
사찰 한옥, 통나무, 목조, 보수공사전문
1. 방충, 방염성 방부제
2. 목조, 석재 세척재
3. 부식된 목재 복원
02)3474-6232
http://www.dongwhaind.co.kr
(주) 동화특수 산업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43)838-3562
011)486-4408

공양주 구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 없을까?
▷ 경북 구미 조계종 사찰
054)452-0845
054)458-6013

조계종 승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남 진주
055)743-6921
011)878-4852

토굴 안내
- 사찰부지 : 471평
- 요사채 : 30평
- 임법당 : 본존불, 지장보살, 산신탱화, 신중탱화
- 가액 : 1억
※ 조용하고 수행하기에 적합한 토굴형 사찰
041)554-9630
011)9018-9603

암자 토굴 별장용도
- 위치 : 진주에서 32Km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510-5171
※ 현지 답사 하실 분만 연락요망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관음사
02)2234-3310

조그만 암자에서 기도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011)561-6644

산세 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내실 거사님, 보살님은 연락바랍니다
052)254-2427
011)562-555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962-1142
02)962-6186

비구니스님구함
서울 도심 포교원으로 포교의 서원을 세우신 뜻있는 스님을 모십니다. 스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스님을 도와서 포교원에서 정진하실 비구니스님은 연락 바랍니다
02)871-108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조계종 보각사
032) 522-8131
016)706-5832

평생 함께 생활 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공양주보살님, 행자도 구합니다
▷ 천안 영락사
041)584-6675
011)289-1635

사 찰 안 내
- 위치 : 군산시내 10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1평
- 요사체 신축건물 50평
지방문화재 3층 석탑, 대지 400평 등기필 있음. 도로근접 동내를 끼고 있고 절 뒷면 등산로 심야 보일러 태양 온수기 설치 주차장 있음
- 가액 2억 6천 (절충 가능)
011)671-5161
063)451-2410, 451-5161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공주시 근접
- 부 지 : 1,600평
- 법당 겸 요사 : 50평
※ 천년의 계곡이 있으며 깊은 산속에 위치한 기도 정진 도량임
- 양도가 : 1억 3천
- 위 치 : 충남 홍성군 소재
- 부 지 : 4,000평
- 법 당 : 30평
- 명부전 : 20평
- 요 사 : 40평
※ 산세가 이주 좋은 포교 도량임
- 양도가 : 1억 9천(대출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북 평해 소재
- 부 지 : 500평
- 법당 겸 요사 : 30평
※ 목재 황토 건축한 선방이며, 맥반석 온돌 구들 및 찜질방, 대방, 누각, 암반 생수 있음
- 양도가 : 1억 8천만원
- 위 치 : 충남 증평 소재
- 부 지 : 4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50평(2동)
※ 교통의 요지이며, 국보급 문화재 있음
- 양도가 : 3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 치 : 부산 동구 수정동
- 건 평 : 59평
- 2층 법당 : 24평
- 1층 요사채 : 35평
- 가액 : 보증금 3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 비품 각종 집기류 일체 제공
011)9885-7547

포교당 안내
- 위치 : 잠실 본동 신천역 10분 거리
- 평수 : 35평, 방 3개, 욕실, 주차장완비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25만원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능)
- 특징 : 시설 A급, 즉시 법회 가능
02)2203-1118
016)9280-1178

작품[신서화 도자기]전시장
무변 해광스님의 친필작품인 금강경, 반야, 아미타경을 비롯 선구, 달마도등 선화와 도자기, 금강경, 반야, 달마상등을 전시 판매함 - 8월15일까지 -
부평032)503-4883

사 찰 안 내
- 위치 : 의정부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790평
- 가액 : 6억 4천
- 위치 : 전남 완도
- 법당 : 34평
- 요사 : 50평
- 부지 : 150평
- 가액 : 3천 5백 (전세:비구니스님)
- 위치 : 성남 분당
- 부지 : 920평
· 차량 진입가
· 도심 근접하며 조용한 일급 사찰 도량 임
- 가액 : 5억 7천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 대지 : 300평, 자연석간수 뒤가 소나무산
- 건평 : 30평, 창고
- 가액 : 8500만원
042)624-5712
011)209-362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부지 : 130평
- 가액 : 1억 6천만원
011)506-6733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깊은 산마을(부처골)
- 황토집 2채, 법당, 온돌방 2개 청정계곡접 텃밭 620평
- 전세 : 1800만원(절충가)
- 특징 : 환자요양 기도처 최고
011)9585-4908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소재(청평)
- 부지 : 약 200평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3억원
- 특징 : 도심사찰로 서울에서 40분거리 있으며 스님 심정관계로 급히 양도코저 함
좋은인연됩시다
동진불사연구소
전국에 소재한 사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위치 : 충남 괴산군 소재
- 부지 : 약 700평(종교부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 특징 : 영산칠보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통법당내에 보물급 부처님 모시고 있음
02)326-1060 053)624-2992
011)817-2836 018)689-0455

부전스님 모십니다
▷ 보문사
011)422-6757
041)545-6531

지리산 시조암 션원
- 위치:실상사 마천→백무동방향→가채마을 위
- 대지:605평 건평 32평 황토방 한옥 2채 자연식 탐 둘레 25m 텃밭 • 가액:1억 9천
- 특징:전체 자연석 조경 및 작설차 식제 경관수려, 주차 시설
- 합양 휴천 계곡 옆 토굴터 2천만원
055)963-4965
011)9542-9060

사 찰 안 내
- 위치 : 안성 • 부지 : 1000평
- 법당 : 25평 • 산신각 : 3평
- 요사 : 20평 • 가액 : 1억 5천
※ 전국 사찰 표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구리시 교문동 아차산
- 대지 : 151평, 건평 : 약 50평
- 법당 : 25평, 요사채, 방 3개, 주방 1개, 욕실별도, 대형주차장
- 가액 : 3억 8천만원(은행융자 있음)
031)562-6905
016)464-6905

사찰 안내
- 위치 : 백호산 밑 마을 위치
- 땅 : 140평 • 건물 : 방 3개
- 특징 : 비구니 스님 조용히 있기를 원하시는 비구니스님분들께 적합
- 가액 : 2천만원
063)626-8458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시
- 대지 : 총 970평중 450평 - 종교부지
- 요사채 60평, 인법당(20평)
- 특징 : 경치수려, 바다 근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1)495-7754

토굴 안내
- 경북 군위 IC 10분 거리
- 대지 169평 집 2채 방4개
- 양도가 3900만원 주차완비 뒷산 명당터 경관수려
※ 암자 전세 2천만원 연락 요
011)9585-4908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대전에서 30분 거리)
- 부지 : 363평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창고겸 화장실 7평 답사 후 가격절충
011)455-6198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33-11번지 원각사 동강병원에서 울산 예식장 중간 지점
- 건평 : 22평 • 법당 : 방 2개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 절충
052)245-5920
011)895-2919

사찰 안내
- 위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대지 : 100평, 임법당, 방7개
- 특징 : 아파트단지 근처, 교통편리
- 가액 : 전세 5,000만원 월 10만원
017)206-078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앞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 6만평 도량안에 (부지1800평)
- 동강 내리계곡이 앞에 흐르고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경관이 아주 좋음 기와건물 40평 방 8개 주방 법당이 되어있고 천탑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돌 수십톤 확보되어 있음
- 건강관계로 급매 • 가액 : 답사후절충
018)533-7780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면 광덕 2리 281-1 (유관순 열사 생가지 근접)
- 부지 : 전+대지 총 471평 (법당부지조성 완료)
- 특징 : 기도도량으로 적합
- 가액 : 1억원(가격조절가능)
041)554-9630/011)9018-9603
동광천수련불사
심해각 합장

사찰암자 안내
- 위치 : 강원도 점선군
- 대지 : 250평, 대웅전, 산신각 용왕각, 약사여래분상
- 요사 : 3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자세한 문의
016)9788-3144
033)378-3144

포교당 안내
- 위치 : 중랑구 신내동
- 평수 : 40평 4층 건물 4층 방 2 주방1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월 7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
- 특징 : 법당시설 완벽함 주변 대단위 A.P.T.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02)436-3647
011)266-2378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건평 : 90평
- 요사채 : 70평, 법당 : 20평
방 6개, 주방·3개, 거실 3개, 옥실 2개, 법당 단청, 미륵님 모심, 산세수려, 기도도량으로 최적, 노스님 병환으로 급매, 창건 6년 3억 5천 (절충가능)
031)952-7905

토굴 안내
- 위치 : 창녕(산수수려)
- 대지 : 307평 • 법당 : 25평
- 요사 : 50평 • 종무소 : 23평 방사 대 2, 보통 4, 주차완비
- 기타 부속 건물 대추나무 과수원 1천평 (수확가능)
011)592-5455

미국·프랑스·캐나다 명상수련 바람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계 사찰 선산승원에서 참선을 수행을 하는 미국인 불자들. 요즘 구미에선 가족단위로 생활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려는 불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서로 다른 불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서양에서도 산사(山寺) 수련회가 여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서양의 산사 수련회 역시 도심을 떠나 나를 찾겠다는 불자들의 바람이 있지만, 그 방식이 수행자의 생활을 체험해보는 우리의 수련회와는 달리, 걷기나 글쓰기 또는 골프와 같이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 수련회라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

프럼 빌리지 가족단위 유럽불자 즐겨찾아

선산승원 글쓰기 · 그림 · 꽃꽂이와 명상접목

농원선원 몸소 농사지으며 무소유 배워

틱낙한 스님의 주석처로 유명한 남프랑스 '프럼 빌리지'는 유럽 불자들이 가족 단위 수행처로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이 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7월경 20일간 진행되는 '평화를 위한 걷기'. 타프반 명상센터에서 프럼빌리지까지 걷기만 하면 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걸음과 숨의 횟수를 세면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는 틱낙한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정념'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계 사찰인 선산승원은 미국 불자들 사이에서 명상과 문화를 접목한 산사체험으로 유명하다. 작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작가를 위한 사성제'의 경우, 2박3일간 책상을 떠나지 않은 채 글을 쓰는 게 프로그램 내용의 전부다. 그 과정에서 작가 스스로 자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한 것이다. 이외에도 명상을 배우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형상을 실크 캔버스에 옮기고, 그것을 비단실로 한 땀씩 수놓는 '그림과 자수를 함께'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미국의 그린 걸치 농원선원은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혜택과 그것을 주변에 회향하는 법을 배우는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박3일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참가자들이 직접 수확한 채소를 인근 자선식당에 기증하는 행사.

이외에도 캐나다 청년불자들이 단기 출가지로 선택하는 감포승원이나 티베트불교 전통을 따르는 미국의 삼발라 센터도 독특한 수련 프로그램으로 인기다. 특히 샴발라 센터의 '골프와 마음', '한여름날의 축제'는 아침과 저녁 하루 두 차례의 명상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골프를 치면서 혹은 바베큐를 구우면서 자신을 관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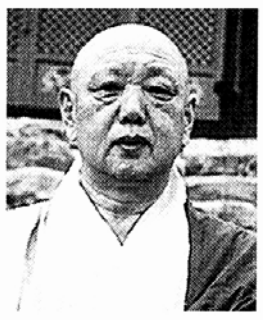
7, 8월 두달간 미주, 유럽 지역에서 열리는 이들 수련회가 단기 출가 형식이 아닌 일상 속에서 불법을 찾는 것에 집중된 것은, "서양불교는 개인 차원이 아닌 가족 차원의 수행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사암련 회장에 듣는다

불교 문화재 보존 앞장

안동 사암련 일우스님



"경북 안동의 국보 · 보물급 탑 등 안동시내 성보문화재의 훼손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시당국은 관리 · 보수에 뒷짐만 지고 있어 불교계가 나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봉정사 극락전(국보 15호) 및 대웅전(보물 55호), 안동 신세동 7층석탑(국보 16호) 등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문화재 등 총 359점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안동시 불교사암연합회의 회장인 일우스님(용담사 주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안동지역에서 더 이상의 문화재 훼손이 없도록 성보문화재 보호 및 보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낙동강 특별법 제정 반대

군법당 · 교도소 포교 강화

일우스님에 따르면 신세동 7층전탑은 중앙선 철로변에 위치해 열차의 진동 등으로 동북방향인 철로변 쪽으로 약간 기운 상태이며, 조탑동 5층전탑(보물 57호)은 개인 소유의 과수원내에 위치해 주변이 온갖 쓰레기 더미와 잡초에 뒤덮여 있는 등 탑 20여 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안동지역의 문화재 관리가 그동안 소홀이 관리되어 온 것은 '유교문화권 개발'이란 지자체의 명분과 유교 가톨릭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1972년 출범한 사암연합회가 30여 회원사찰을 갖고 활동을 펼쳐 왔지만 유교의 본향인 지역정서상 포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초 일우스님이 회장을 맡으면서부터 봉축행사는 물론 사회참여와 문화재 보존 활동을 위주로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6개 지역 시민 · 환경단체와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는 낙동강 특별법 제정반대운동. 지난 2일 안동역 광장에서 주민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낙동강특별법 제정 반대 경북도민 대회에서는 사암연합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대회를 주관한 '경북지역 생존권확보 대책위' 상임대표를 전임 회장인 정우스님(대원사 주지)이, 고문을 일우스님이 맡을 정도로 지역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

"사찰도 이젠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라는 일우스님은 불교회관 건립, 30사단 군법당 및 안동교도소 법회 강화 등 지역포교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안동=김재경 기자

태아영가 극락 왕생발원 10년째

포천 구담사…49일 천도재 입재



하루 6,000명, 연간 200만명의 태아가 낙태수술로 생명을 잃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낙태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찰이 태아영가들을 위한 천도재를 꾸준히 지내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최초의 태아영가 천도도량으로 문을 연 포천 구담사(주지 지율)는 7일 개설 10주년을 맞아 49일간의 태아영가 천도재 입재에 들어갔다.

이날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 도션사 회주 혜성스님, 건봉사 주지 영도스님을 모시고 입재식을 가진 구담사는 태아영가 위패와 우유, 분유, 사탕(과자류), 영가옷 등을 갖춘 태아영가단을 마련하고 그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구담사에서 태아영가 천도재를 봉행한 신도는 10년동안 모두 1,000여명에 달한다. (031)533-2855 김재경 기자

법주사 대웅전 보수

기둥 부식…봉정사 극락전 · 송광사 대웅전도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창건돼 국내 3대 불전 중 하나인 충북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보물 제915호)이 완전 해체 보수된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한국재난연구원에 의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둥이 심하게 썩고 기우는 등 완전 해체 보수 ·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기둥이 썩는 것은 물론 일부 목재의 연결 부위들이 탈락 현상을 보이는 등 건물 안전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의 밑부분은 심하게 썩어 구게를 견디는 힘이 크게 약해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부는 기울기 현상마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부터 완전 해체 · 복원공사를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물의 규모가 커 2년 2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며 "해체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주요 부재는 그대로 살려 원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법주사 대웅보전 외에도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과 완주 송광사 대웅전(보물 제1243호)도 이 달 중 완전 해체해 보수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양산 이웃돕기 음악회



양산시의회 의장 등 3,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원만히 회향됐다.

박순렬 울산지사장

경남 양산시 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봉 · 천불사회주)는 7일 양산 실내체육관에서 독거노인, 소년 · 소녀가장 등 불우 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제1회 양산시민 화합과 발전을 위한 열린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음악회는 스님 40여명과 나오연 국회의원, 안종길 양산시장, 정세영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바다와 함께 부처님과 함께 가자! 부다피아 캠프

태안반도 · 안면암 · 간월암 등지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 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4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무인도가 그림처럼 펼쳐진 기도도량 안면도 안면암, 백제의 미소가 아름다운 국보 서산 마애삼존불, 철새들의 낙원 간월암, 태안반도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서해안의 갯벌탐사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1년 7월30일(월)~8월1일(수) 2박3일
◇장 소 : 태안반도 국립공원 안면도 안면암, 간월암, 서산마애삼존불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 5만원
◇준비물 :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출 발 : 30일 오전 10시 조계사
도 착 : 8월1일 오후 5시 조계사 · 봉은사
◇문 의 : 전화 (0502-317-2555, 02-722-4162)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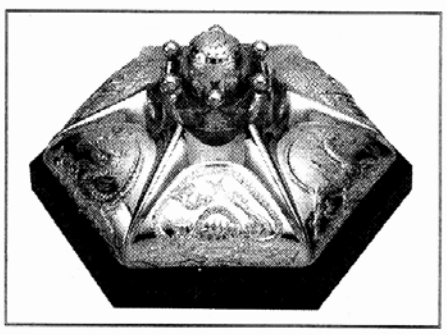
협 찬 : (재)보덕학회, 현대약품(주), 현대불교 신수회
후 원 :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조계사, 한마음선원, 봉은사,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 선재이벤트

소원성취 명당 육기(氣) 방

옛부터 금은 보화와 육신(神)을 가정에 두면 액운을 막아준다 하였고 (좌)청용(靑龍) (우)백호(白虎) (남)주작(朱雀) (북)현무(玄武) 천하(天下)대장 지하(地下) 대장신(神)의 수호신인 육신이 항상 수호해 준다하여소원성취 · 안전운행 · 사업흥왕 · 불화방지 · 가내화합 · 시험합격 · 악귀퇴치 · 극락왕생 · 선신수호 · 삼재예방 · 관재소멸 · 운수대통 하게하고 가정을 편안하게 해 주며 천(天) 지(地) 간의 좋은 기(氣)를 받아 나쁜 맥(脈)과 기(氣)를 막아 주고 좋은 혈장(穴場) 명당이 되어 자손대대로 무병장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가 격
1호 : 10만원
2호 : 20만원
골드1호 : 30만원
골드2호 : 40만원



육기방이 확 달라졌습니다

명당 육기(氣)방
명당 육기(六氣)방은 천지(天地)간의 좋은 기(氣)가 모이는 방이라하여 명당 육기(六氣)방이라하고 범종은 천지(天地)를 진동하게 울리며 모든 업장과 잡귀를 내쫓고 범접을 못하게 하며, 왕관은 관운과 재운과 명예를 얻고 큰 인물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며 범종과 왕관을 떠받이는 여섯개의 명산이 감싸 주고 하늘과 땅, 동, 서, 남, 북을 육방 수호신장(守護神將)이 항상 수호해 주므로 천지(天地)간의 좋은 혈장(穴場) 명당자리가 되어 신비의 황금보물 소원성취 명당육기(六氣)방이라 합니다.

氣란?현실 입니다.
氣란 보이지 않지만 지구를 돌게하고 거짓말 같이 믿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곳이든 대도시 마을 가정을 보아도 좋은 기류가 흐르고 모이고 뭉친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많이 모여들고 큰돈이 움직입니다.
명당육氣방은 氣가 뭉쳐 있으므로 가정에 놓아 두신분들은 기류에 따라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 나고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다이여법칙을 어기지말라." ◆
조상이 편해야 후손이 편하고 액운이 없어야 가정이 화목하다.
불행과 액운이 없다고 자만하지 말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다.
보아라
돈도 명예도 건강도 하루 아침에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가.
구름 거칠 날 없을 것이다.

◆ 꿈의 게시 ◆
6년전 6월 비가 많이 내리던 어느날 마루에서 빨을까지 하얀 옷을 입고 커다란 흰 말 다리 대두무 지팡이를 짚고 신의 수호신인 육신을 데리고 희미한 안개속에서 저를 부르며 빛이나는 황금 보물을 저에게 주시더니,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라. 좋은 명당 자리가 되고 가족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며 희미한 안개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버렸다. 벌떡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는 내리지 않고 하늘엔 구름 한점없이 수많은 별들이 빛을 내며 반짝 거리고 있었다.

❖법집의 힘
1. 모여들게 하는 힘 2. 재산을 물고 들어오는 힘 3. 건강하게 자라는 힘 4. 부지런한 힘 5. 단결하는 힘 6. 정직한 힘 7. 지키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명당육기방은 법집과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명당육기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고 하고, 돈이 많이 온다고들 하며, 좋은 운으로 바뀐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육기방은 효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 벌들은 좋은 명당에만 집을 짓고 삽니다.

❖법으로써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의 속을 깊숙히 들여다보면 힘들고 괴롭고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되지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불화가 자주 일어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속사정 가운데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가정에 꼭두십시오
항상가정에 천기와 지기 그리고 좋은 육기의 정기가 뭉치는 기운을 받게 해줍니다. 항상 근심걱정 없는 화목한 가정이 될 것 입니다. 언제 닥쳐올 줄 모르는 불행과 액운을 막아주고 항상 가정을 수호해주는 방패로서 사용하십시오. 항상 가정에 좋은 정기가 모이고 뭉치면 더 이상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수험생을 둔 부모님과 많은 불자님께 권장하고 싶습니다
(주)명당육기(氣)방 : 051) 865-9933 · 864-7878
일본지사 : 06-6741-1923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특허받은 명당 육기방

명당육氣방은 기묘한 묘법과 비법이 담겨져 불자님의 가정에 안전과 좋은 기운, 자손의번창, 화합과 재산증식 등 큰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토마을 스님 · 불자 30명 '음성 꽃동네' 호스피스 체험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지하철이나 다리 밑에서 아무 말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 걸인들을 맞아들여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 주며 장례까지 치뤄주는 사랑과 구원의 공동체 음성 꽃동네.

7일 무의탁 심신장애자와 걸인 등 사는 한국최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연수원'에서 안내를 맡은 수녀의 설명을 듣고 12명의 스님을 비롯한 교육생들은 연인원 200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삶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꽃동네야말로 보살행의 현장임을 실감했다. 거리를 떠도는 걸인은 연인원 4만여명, 이중 5%를 음성 꽃동네에서 보살펴 준다니 그저



◇정토마을 원장 능행스님(왼쪽)을 비롯 스님과 불자 30명이 7박8일간 음성 꽃동네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종교초월 아름다운 봉사

7박8일간 임상실습

"복지불사 필요성 절감"

을 수용하는 가톨릭 최대의 종합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이 곳에 불교계 유일의 말기 환자 전인치료센터를 운영중인 청원 정토마을(원장 능행)의 스님 · 불자 교육생 30명이 호스피스 케어 실습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꽃동네는 1976년 오웅진 신부가 최귀동이란 걸인 노인이 18명의 거지를 먹여살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 걸인을 구제하기 위한 '사랑의 집'을 개설하면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는 요양인 4,000여명, 수도자 300명, 장기봉사자 200명이 함께 놀라을 따름.

교육생들은 네 조로 나뉘어 인곡자애병원, 심신장애인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배치되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학인 4명과 포교사회학과 학인 3명 등 10명의 스님들은 임종환자들이 많은 인곡 자애병원에 배치되었다. 1일부터 8일까지 7박8일간 진행된 호스피스 케어 교육으로 얻은 지식을 임상에서 직접 적용해 보는 실습이다.

교육담당 수녀로부터 간병봉사의 요령, 환자를 대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스님들은 점심 식사 나르기, 음식 먹여주기, 통증완화 및 욕창 예방을 위한 맛사지, 말벗 되어주기, 청소 등의 활동에 들어갔다.

항문이 없는 환자, 다리가 잘린 환자,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등 죽음 문턱에 있는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스님들은 호스피스 케어란 질병 자체 보다는 인간 자체를 사랑과 자비로써 돌보는 가장 어려운 의료행위임을 절감했다.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살겠다는 희망을 접는 순간 죽음을 너무나 빨리 맞이한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교육생 오심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들을 인간의 존엄성 안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꽃동네에서의 현장 실습을 마친 교육생들은 한결같이 "진정 보살행을 실천하는 곳은 가톨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입을 모으며 "불교의 본 모습인 복지불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남해에 노인복지시설 짓는다

'화방복지원' 기금 10억…20일 기공

사회복지법인 화방복지원(대표이사 효천스님)은 올 초 10억여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남해 망운사 일대 3만여 평의 부지를 확보한 데 이어 20일 오전 11시 30분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노인복지시설 화방동산 건립에 착수했다. 화방동산 건립 계획에 따르면 올해 3백여 평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완공하고, 2003년까지 총 45억원을 투입해 5백여 평, 2백여 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 등 순차적으로 시설을 확장해 2백여 명의 노인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단위 복지타운으로 조성된다. 화방복지원 대표이사 효천스님은 "쌍계사 본 말사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될 화방동산이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자리매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성황사에 협박공문

조계종, 부안저널 고소

수행환경을 보존하려는 전통사찰에 대해 지역정서를 운운하며 지나치게 매도해 지역 불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전북 부안의 한 지역신문이 이번에는 근거 없는 협박성 공문을 사찰로 보내 조계종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1일 부안저널 박재순 사장(편집인) 명의로 성황사(주지 진공)에 배달된 '산책로 상의 시설물 철거요청' 공문은 "성황사 앞 산책로는 7백여 년 동안 부안군민이 사용한 공도인데도 귀하가 금년 봄부터 절 경내를 넓히면서 일주문을 세운 뒤 뒤에는 콘크리트와 쇠로 철문을 세운 것은 불법으로 8월 10일까지 모두 철거하기 바란다"고 밝혀 마치 법원 재판관의 판결문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성황사에 시설물 철거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재순씨는 또 "기일내에 철거 후 산책로를 원상으로 해놓지 않을 때는 교통방해죄로 형사고발은 물론 철거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며 성황사에 대한 근거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는 부안저널의 공문과 관련 성황사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며, 조계종 제 24교구 본사 선운사를 중심으로 말사들이 연대해 성명서와 탄원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나눔의집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11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위안부 범죄 면책특권이라니…"

'나눔의 집' 할머니들 美국무부 항의방문

왜곡된 한일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나눔의집(원장 능광) 할머니들이 나섰다. 나눔의집은 23, 24일 미국 국무부와 연방의회를 방문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한다.

이번 항의 방문은 위안부 생존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기각 신청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마련됐다. 부시 행정부는 4월 27일 미국 연방법원에 "국가간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며 본 소송은 정치적 사안이므로 법원이 다루지 못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능광 스님은 "위안부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면책특권을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안부 문제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부시 행정부에 각인시키고, 위안부들의 집단소송을 정식재판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지난해 9월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출신 위안부 생존자 15명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정식재판은 8월 1일 열리는 연방법원의 예비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의 방미는 미국 언론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능광 스님에 따르면 나눔의집의 할머니들은 재미한국청년연합의 도움을 받아 23일 국무부 청사에서 시위와 함께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24일 연방의회를 방문해 한국 위안부 생존자들의 결의안을 제출한다.

오종욱 기자

"日 역사왜곡 시정"

민족통일불교중앙협 히로시마서 8일 천도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내의 규탄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 역사교과서의 시정을 촉구하고 일본 군국주의 아래 숨진 조상들의 영혼을 천도하는 영가천도재가 일본에서 열렸다.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의장 법혜스님)는 8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국인위령탑 앞에서 한일 불교계 인사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역사교과서 시정촉구 수륙공영가천도재를 봉행하고 11일 귀국했다.

의장 법혜스님은 "조상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게 일본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스님 유흥장 출입' 적극 조사

재가연대, 조계종에 촉구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11일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계종 중진스님 네 명의 유흥장 출입사건과 관련 "종단 핵심지도자들은 이 사안을 파벌간 이해관계에 매달리기 전에 종단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론을 일으키는 발전적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직청규의 제정, 호법부의 청렴성 및 독립적 위상 제고 등을 촉구했다.

재가연대는 "호법부는 스님들의 유흥장 출입과 관련한 소문의 사실을 확인해 대중에게 설명을 해야 할 입장에 있으며, 또한 사실을 확인해서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총무원장의 직접 지시 사항"이라면서 "호법부는 지금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고 있다는 다중의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22일 조계종 호법부로부터 공식 면담을 거절당했다는 재가연대는 총무원 호법부에서 인터넷 언론 '불교정보센터'에 관련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자체적으로 목격자 신원 확보를 통한 사실확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8월 4일 안거 해제일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건 당사자 스님들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댐정책' 국민토론회

18일, 지리산국민행동 등

지리산살리기국민행동과 범영남권댐반대투쟁위원회는 공동으로 18일 오후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댐정책 전환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정동양 한국교원대 교수의 '대형댐의 역할과 한계',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의 '물관리 정책기조 전환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전문가가 토론에 참석한다.

김재경 기자

9월6일 창립 불교환경단체

"명칭 공모"

'새로운 불교환경단체 준비위원회'는 오는 9월 6일 창립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준비위는 28일 오후 2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우리 산하의 올바른 이해-백두대간과 사찰의 의미를 찾아서'란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이날 김원기 백두대간보전회장은 '백두대간의 이해', 서재철 녹색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백두대간의 실태'를 주제로 강연한다.

준비위는 이와 함께 불교, 환경, 생명살림을 상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단체의 명칭을 공모한다. 또 불교환경운동의 사업제안과 회원 및 지역활동가들을 모집한다. (02)720-1654 김재경 기자

은평노인복지관 '우수'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운)이 서울시의 상반기 평가에서 노인복지 부문 '우수' 복지관에 선정됐다. 서울시가 유니온조사연구소에 의뢰해 구 · 시 · 사립 복지관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종합만족도 89.70점, 경쟁지수 113점을 받아, 사립을 제외한 구 · 시립 복지관 17곳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은 6일 서울시 은평구로부터 은평구립도서관을 위탁받았다.

오종욱 기자

국토순례 지도자 교육

(사)비로자나 청소년협회는 제2회 청소년 국토순례대행진 진행을 도울 청소년지도자 연수회를 21~23일 2박3일간 명천 영남건설 교육원에서 개최된다.

비로자나협회는 50여명의 지도자를 선발해 행사 전반에 대한 일정을 소개하는 한편 순례코스도 사전답사한다. 이번 연수회에 참가하는 지도자들은 향후 다양한 청소년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이경숙 기자

'마음고운 禪房
불교방송 이후
오랜 침묵을 깨고
활동을 시작한 정목스님의
작고 고요한 공간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거리
☎ 02) 548-0218, 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無病長壽
무병장수를 기원하는「윤년수의」
좋은 수의를 장만하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효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진정한 윤년수의는 윤달에 만들어진 수의입니다.
• 남자 - 도포,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이불, 요, 장매, 악수, 버선, 도포끈, 베개, 허리띠, 댓님, 오낭, 면모, 행전, 턱받이, 면포 (총 20종)
• 여자 - 원삼, 저고리, 속저고리, 속바지, 바지, 속치마, 치마, 이불, 요, 장매, 베개, 천심띠, 면모, 악수, 버선, 오낭, 턱받이, 면포 (총 18종)
삼베壽衣
▲ 오동나무 박스 ▲ 함나무 박스

품 명	백화점가격	불자님가격	특 별 혜 택
삼베 二品	600,000원	550,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一品	900,000원	798,000원	6개월 무이자, 오동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 特品	1,320,000원	1,1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수적 特品	1,870,000원	1,4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안동포 七升	4,200,000원	3,950,000원	10개월 무이자, 함나무 박스 보관함 삼베침구 세트증정

※ 3개월 무이자 요금이 10% 추가 됩니다.
※ 입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정확히 배달하여 드립니다.
株式會社 安東삼베 ANDONG HEMP CLOTH CO.,LTD
본사/공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439-1
서울영업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70-8호 혜성빌딩 1F
TEL. 02.586.2544 영업부. 02.586.2553~5
무료상담전화 080.588.2544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함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완주 화암사 계곡. 손오공 모양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나무 둥치에서 연기의 가르침을 배운다.

만물은 부처로 가는 구도자

나는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 다큐멘터리 영화를 아주 즐겨본다. 그래서 TV에서 방영되는 이런 류의 프로그램은 꼭 보려고 애쓴다. 동물이나 식물의 자연 생태를 볼 때마다 나는 '삶'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들 세계도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아니한 '삶'의 세계인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중생이란 말을 정말 실감하게 된다. 그들은 다만 본능에 따라 생존할 뿐이고, 우리 인간은 '문화'라고 하는 '허울'을 뒤집어쓰고,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다를 뿐이란 것을 나는 생태 기록을 보며 깨닫는다.

감성으로 보는 절

<12> 숲속 숨은 구도자-중생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다. 그러나 사진이 나의 구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나'라고 하는 실존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나의 구극적 목표이다. 사진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예술이란 게 다 그런 것 아닐까? 나는 '삶'을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진을 이용할 뿐인데, 사람에게서 그 삶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문화의 때가 너무 두텁게 끼어 있기 때문에 그 속살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무나 돌같은 자연물을 더 본질적인 존재의 근원으로 이해하고 매력을 느끼게 된다. 말도 못하고(아니, 저들끼리는 말 하겠지?),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수동적(생물중에선 식물이 가장 수동적이 아닐까?)인 식물이나 자연물이 나에겐 임묵적인 실존의 자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사진에선 사람이 의도적으로 배제된다. 사람과 동식물, 그리고 그 밖의 자연과 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 그것은 결국 하나가 아닌가?

중국의 〈서유기〉는 불경을 구하기 위해 서역의 수백 나라, 수만리 길을 다니며 온갖 고초를 다 겪는 현장 법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선, 사람과 동물 그리고 천상의 세계가 모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그려진다. 서양의 〈이솝이야기〉같은 우화소설도 동물들이 의인화 되어 묘사되지만, 그것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 일 뿐이기 때문에 불법의 세계에서 중생이 하나의 세계임을 묘사하는 〈서유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불법 속에서 중생은 하나-, 〈서유기〉는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다.

삼장법사 서역행 닮은
숲속의 나무 · 돌에게서
실존의 의미 깨닫는다
"불법에서 하나가 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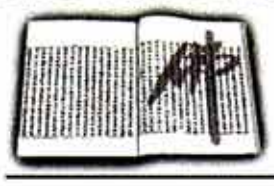
나는 '나'라고 하는 실존으로부터 나의 모든 회의와 사고가 시작된다. '나'에 대한 회의에서 '나 밖의 세계'에 대한 회의가 또 다시 시작된다. '나'라고 하는 실존. 살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사랑도 하고, 욕망하고, 꿈도 꾸고, 그리고 매일 매일 단속적인 의식세계에서 살아가는 나-. '나 밖의 세계'는 또 무엇일까? 왜 '나'는 '너'와 하나로 될 수 없을까? 이것을 실존의 한계상황이라 하는가?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서면 무상(無常)인 것을.

부처님은 우주의 궁극적 근원에 대해 무기(無記)로 침묵하셨다. '가르침'보다 '깨달음'이 중요한 때문일까?

불교는 공업(共業)에 의해 중생이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가 무량하게 펼쳐진다고 한다. 아, 삼천대천세계. 이 엄청난 중생의 세계! 나는 그것이 절에 있음을 절에 가면서 늘 깨닫는다. 대웅전 안에서가 아니다. 절 가는 길가, 냇가, 숲 속에서 수 많은 중생이 연기에 따라 제 모양대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에 놀란다. 그리고 그것이 손오공처럼 잘꽂고 심술꾼이긴 하지만, 현장 법사와 함께 불법을 구하러 서역 수만리 길의 역경을 헤치고, 이제 부처님 문 앞에 거의 다다른 중생의 구도행렬임을 나는 깨닫고 놀란다. 숲 속엔 그렇게, 스스로 부처님께 다가가기 위한 중생의 아픔과 기원이 있는 것이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경전 분류 · 편목의 지침서

한글대장경의 세계

개원석교록

〈개원석교록(開元釋敎錄)〉은 당나라 개원 18년 경조(京兆)에 있는 서숭복사(西崇福寺)의 사문 지승(智昇 668 ~ 740)이 편찬한 일체경의 목록이다. 모두 20권으로 되어 있으며 '개원록' '개원목록' '지승록'이라고도 한다.

지승은 당나라 때의 스님이지만 구체적인 행적을 알 수는 없다. 일찍이 출가하여 대 소승을 두루 수학했고 고금의 역사에도 달통 했다고 한다. 섭도진과 도안 등의 번역 경전을 열람한 후 명전과 도선 등이 편찬한 모든 경록을 보니 차이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다. 그리하여 〈개원석교록〉을 편찬하게 되었다. 후한 효명제 영평 10년(67)에서 개원 1년에 이르는 꼼 664년 간에 걸쳐서 176명의 삼장들이 한역한 대 소승의 경율론 삼장과 현성집전(賢聖集傳) 및 실역(失譯) 궐본(闕本) 등 모두 2천 275부 7천 46권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칙명으로 대장경에 입장(入藏)되었다.

唐代 지승스님 편찬
기존 역경오류 수정

이 책은 모든 경록 가운데 가장 완전하게 정비된 것으로 송장본(宋藏本) 이후 모든 장경이 이것에 의거하였으며, 또한 예부터 전해져 온 모든 언어 및 번역 경전의 글들 역시 이 책을 기준으로 삼았다.

본록(本錄)은 제 1권에 있는 총서 및 제 9권에 지승 자신이 써 놓은 기록에 보이는 것과 같이 그가 장경들을 열람하면서 그 이전에 저술된 〈출삼장기집〉을 시작으로 해서 법경, 비장방, 도선 등과 그 밖의 모든 경록을 참고했는데 그 기사에 오류와 결함이 많음을 발견하고 이를 유감으로 여겨 목록의 기재를 비교 연구하는 한편 현존하는 경전의 실제 내용과 대조 하였다. 이러한 수년간의 노고의 결과로 개원 18년에 본록 및 〈속대당내전록〉〈속고금역경도기〉〈개원석교록약출〉 등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



본록은 수년간에 걸쳐 비교 연구해서 낸 것으로써 본래는 순전히 사적으로 편찬된 경록이지만 〈사고전서총목제요〉의 편찬자가 "불가의 옛 문헌들이 여기에서 완전히 정비되었다"라고 찬탄을 하였을 정도의 위치를 가진 경록으로 격상되었다. 종래에 존재했던 것보다 검출하였기 때문에 후에 칙령으로 대장경에 포함되지 않았겠는가.

본록의 조직을 살펴보면 전체를 총과 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총록은 제1권에서 제10권까지 전반부의 10권으로써 '총괄군경록'이라고 하는데 후한 시대에서부터 개원 18년에 이르는 동안 역경삼장들의 전기와 그들이 역출한 경전을 시대 순으로 기재하고 있다. 소위 대록(代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명(異名) 악명(略名) 괄수 한역의 시기와 장소 등에 근거하여 한역에 관계한 사람의 이름, 한역자가 있는 것과 실역(失譯)의 구별, 단역과 중역의 구별, 대경과 별생경의 구별 등에 대하여 밝히고 동시에 근거로 삼은 경록의 이름을 근거로 들고 있다.

제11권부터 20권까지의 후반부 10권의 별록은 〈분별승록〉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경록(法經錄) 계통의 분류, 정리 방식을 계승한 것으로 간정(刊定) 입장록과 현정(現定) 입장록을 겸비하는 한편 〈개원록〉 독자의 부속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간정입장록에 해당하는 제1권부터 제13권까지는 유역유본록과 유역무본록으로 나뉜다. 각 경전을 대승과 소승의 경율론과 현성집전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반야 보적 대집 화엄 열반 등으로 좀더 구분하여 밝히고 있다. 이 체제는 후세 대장경 편목의 기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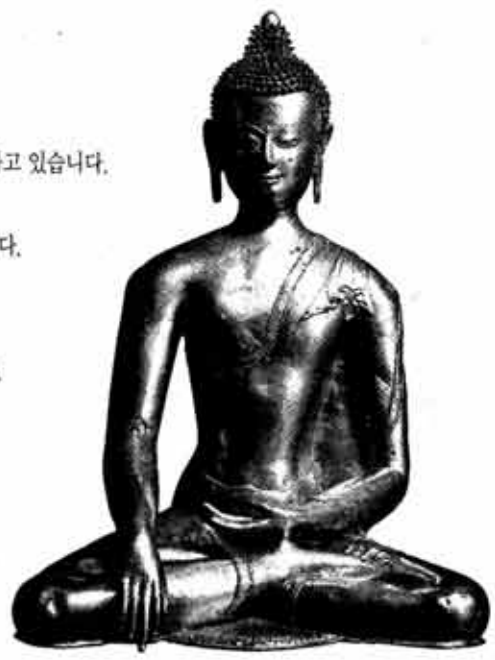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불사, 역경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항시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8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통도사성보박물관
신축개관 2주년기념 특별전

하늘에 맞닿은 불교왕국 티벳

Special Exhibition Art of Tibet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열리고 있는
'티베트 불교유물특별전'의 일환으로 티베트 스님들을 초청하여 만다라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불교미술을 대표하며 신비에 쌓여 있는 만다라는
우주의 원리를 기하학적으로 함축하고 있어 최근 전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통도사성보박물관에 오시면
여러 종류의 만다라가 제작되는 과정을 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액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부르는 티베트 특유의 밀교의식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전시기간 : 2001. 6. 25~9. 17(3개월간)
매주 화요일 휴관(단, 7. 25~8. 15까지는 휴관 없음)
전시장소 : 박물관 기획전시실
전시유물 : 티베트의 탕카, 불상 등 불교유물과 의상 등 민속품 300여 점

통도사성보박물관장 범 하 합장

특 · 별 · 행 · 사

■ 티베트 스님들의 만다라 제작
기 간 : 2001. 7. 8~8. 5(1개월간)
장 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
일 정 : 오전 10:00~11:30 / 일반 만다라
오후 1:30~4:30 / 모래 만다라
7월 14 · 15 · 21 · 22 · 29일 오후 1:00~2:30 / 진색의식(총5회)
※ 진색의식 : 축원문 및 곡식을 태우면서 자신의 액운 등을 날려보내는 의식으로 수명장수, 부귀, 액운소멸 등을 기원

■ 티베트 스님 초청강연
일 시 : 2001. 7. 27(금) 오후 1시
장 소 : 박물관 문화센터

통도사 성보박물관 TONGDOSA MUSEUM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자산리 583 055) 382-1001, 384-0010
http://www.tongdomuseum.or.kr